

1. 신한옥 디자인원리 개발

가. 연구수행방법

전통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사상, 행동, 기술양식 등의 관습, 문화유산 등에 현재의 주관적 가치가 결합된 것으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명쾌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건축에 있어서도 전통적이라는 것은 공간개념, 재료구성, 건축방식 등 다양하고 이것을 계승 발전시키는 방법 또한 다양하여 실제로 계승·발전 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는 디자인도 다채롭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디자인이 나타난 원인도 따지고 보면 현대적 시점에서의 주관적 가치, 즉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다. 그래서 한옥을 현대화시키는데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현재도 많은 논란거리이다. 하지만, 일단 전통을 계승·발전시킨다는 말은 그 안에 있는 본질은 변함이 없으면서도 겉으로 들어난 것들만 변화해도 무방하다는 개념이다.

나. 연구개발내용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적 스타일의 인테리어디자인을 진행함에 있어 먼저, 한국적 디자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디자인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디자인 원리를 규명할 수 있을 때 그것은 디자인의 한국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적 디자인원리를 단적으로 규정짓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많은 문헌에서 한국의 디자인원리로 소박함, 자연성, 담백함, 단아함, 위계성 등의 단어들로 한옥의 공간적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되는 한국적 특성을 요약해보면 그것은 바로 관계성이다.

다. 연구개발결과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는 서양과 달리 동양은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어왔

다. 일례로 우리나라도 자연 속에서 존재하는 상대적인 인간으로서 나, 다시 표현하면 이것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성이며 차경 등을 통해 한옥에 표현되어 있다. 이처럼 한국의 공간적 특성을 종합하여 관계성을 세분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스타일별, 공간별 등 다양한 디자인에 응용할 수 있다.

(1) 자연관계성

한옥이 서양의 건축과 다른 점은 무엇보다 더 자연과의 관계성을 중시한다는 데 있다. 물론 서양 건축이라고 해서 자연과의 관계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양의 건축이 자연을 지배, 정복, 내지는 극복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면 한국의 전통 건축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한다. 한옥의 전통 건축이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했다는 점은 송순의 시에서도 잘 나타난다.

십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여 내니
나 한 간 달 한 간에 청풍 한 간 맞쳐두고
강산은 들일 티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 송순

조선중기의 문신 송순의 시조에서도 볼 수 있듯, 자연과의 조화의 차원을 넘어서 자연과의 일체화를 도모하는 것이 우리 한옥이다. 그래서 한옥은 바깥에서 바라보는 경관도 아름답지만, 실내에서 바깥의 자연을 조망하는 것이 한옥의 참맛이다.

자연과의 관계성을 중시했다는 증거로 차경을 생각할 수 있다. 차경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차경은 경치를 빌려오는 것이다. 실내에서 조차 자연과 접하려고 바깥의 경치를 집안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차경이다. 차경을 만듦에 있어서 공간의 신비로움과 입체적 효과를 연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공간의 중첩 효과이다. 중첩효과는 여러 개를 하나로 합쳐 보여 주는 효과이다. 대개의 경우 여러 개의 커에 의해 중첩효과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창을 통해 마당을 보고 마당의 문을 통해 담을 보고 담 뒤의 산을 볼 때 중첩효과는 일어난다. 차경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창호이다. 창호의 프레임은 자연을 보는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그림의 액자와 같은 것이다. 자연과의 교감을 중시하며 자연과의 경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은 것이 우리 건축의 특징이다.

자연과의 관계성을 중시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대표적인 공간으로 누마루가 있다. 사랑채와 연결되고 있는 누마루는 선비들의 오락의 공간이었으며, 정신적 수양 공간이기도 하다. 다실이 일본의 집을 대표한다면 누마루는 한국의 건축을 대표한다. 누마루에 앉아 별과 달과 바람의 소리를 들으며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친한 친구들과 대화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자연과 벗이 되는 공간을 지향했던 것이다. 누마루는 자연과의 절정의 접점을 만드는 공간이다. 그래서 누마루에는 창호가 없다. 단지 기둥만이 있을 뿐이다. 자연에 완전 개방된 자연과 일체화된 공간이다. 그러나 창호가 누마루에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필요에 따라 공간의 개폐를 조절하는 들어열개창이 있는 것이다. 누마루에는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려는 옛 사람의 지혜가 있다.



[남양주 궁집 '차경']



[장옥진 화백 '동산']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려는 기본적인 욕망에는 변함이 없다. 유명한 화백 장옥진의 그림에서도 나타나듯 사람들은 해와 달, 나무, 새와 같은 자연을 보고 싶어 한다. 자연은 인생의 살아있는 교과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도 빛이 없다면 볼 수가 없다.

빛이 없는 세계는 암흑의 세계다. 빛이 있어야 사물을 볼 수 있다. 빛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사람들의 기분을 좌우한다. 빛이 있어야 사람들은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빛을 다루는 기술은 중요하다. 한옥은 일반적으로 빛을 직접 실내로 끌어들이지 않는 방식을 사용한다. 한옥은 마당에 반사한 빛을 실내로 유입시키는 간접 조명의 방식을 사용한다. 직사광선이 아닌 간접광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눈부심이 없는 편한 빛을 한옥의 실내공간에 만든다. 빛을 간접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반투명 창호지와 처마를 만들었다. 한옥의 처마는 1미터이상 나온 깊은 처마가 특징이다. 전통한옥에서 이처럼 깊은 처마를 만들었던 이유는 태양 빛이 실내로 직접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깊은 처마는 여름의 뜨거운 태양빛을 차단하고, 겨울에 태양빛이 실내공간에 깊숙이 들어오게 한다. 자연과의 일체화된 관계성은 한옥의 본질적 특성이다.



[창덕궁의 처마]



[남양주 궁집]

자연과의 일체성을 추구한 옛집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들어열개창을 생각할 수 있다. 들어열개창은 내부와 외부의 유연한 관계성을 보여준다. 내부와 외부사이에 있는 ‘들어열개창’은 개폐여부에 따라 공간을 내부로 만들기도 하고 외부로 만들기도 한다.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며 가변적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내부와 외부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이 ‘머름’이다. ‘머름’은 창을 받치는 하부 부분이다. ‘머름’은 창을 열고 방 안에서 바깥의 경치를 보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어서 높이가 중요하다. 적당히 높은 머름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의 하체를 보지 못하게 한다. 머름의 높이는 가구의 높이보다 낮다. 따라서 실내의 가구도 잘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한옥에서는 내외부의 관계가 끊임없이 소통한다. 내외부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면서 한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한지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은은한 빛을 실내로 유입시킨다. 실내에서의 시간감과 계절감을 느끼게 한다.

이처럼 내부에서 조차 자연과의 소통을 추구하는 집이 바로 한옥이다. 자연과 일체화되고, 자연과 교감하고, 자연과 공감하는 한옥의 특성은 시대가 지난 옛날 것이라 하여 뒤떨어진 것이 아니다.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지혜를 한옥은 담고 있다. 과거의 옛 것이라고 해서 낙후된 것이 아니라 오래된 미래를 담고 있는 것이 한옥이다.



[창덕궁 낙선재 ‘들어열개창’]



[창덕궁 낙선재 ‘머름’]

(2) 공간관계성

한옥이 한옥다우려면 어때야 하나? 우리는 흔히 한옥을 머리에 떠올리며 마당, 툇마루, 누마루, 처마, 지붕 곡선, 채 등을 생각한다. 이 중에서 채는 공간의 관계성을 가장 잘 말해주는 건축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서양의 건축은 하나의 건물에 모든 것을 담으려고 하는 경향을 갖는다. 이에 비해서 한옥은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여러 개의 건물이 한 집을 구성한다. 이러한 특성은 일본과 중국의 건축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한옥은 안채, 사랑채, 행랑채, 곳간채 등의 구성을 갖는다. 그래서 이러한 채 사이에는 관계성이 존재한다. 채와 채 사이에 있는 마당은 채의 관계성을 만든다. 채와 채의 관계성을 만드는 또 다른 중요한 건축요소가 바로 담장이다. 담장은 채와 채를 구분 짓는 요소로서 영역성을 구획하는 역할을 한다. 한옥의 담장은 외부인의 침입을 막으려는 요소보다는 그 집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지원하려는 더 큰 목적을 갖는다. 사랑채와 안채는 담에 의해 공간을 영역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한다. 안채는 여성의 공간이며, 사랑

채는 남성의 공간이다. 사랑채와 안채의 영역을 구분 짓는데 담장은 큰 역할을 한다. 채와 채의 관계 외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채와 마당의 관계성이다.

마당은 사람들의 소통의 공간이다. 마당은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이다. 마당과 채는 비움과 채움의 관계성을 갖는다. 채는 공간을 채우고 마당은 공간을 비운다. 일반적으로 한옥의 마당은 가능한 한 비우려고 하기 때문에 나무조차 심지 않는다. 일본이나 중국의 정원에서 많은 꽃과 나무를 마당에 심는 것과 크게 비교되는 것이다. 꽃과 나무를 최소로 심는다. 기본적으로 비워두려는 의도가 많다.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려고하지 않고, 자연 그 자체를 좋아한다. 우리의 공간은 장식을 지양하는 철학에 기반 한다. 어떤 특정한 기능을 부여하지 않는 비움은 무엇이든지 수용할 수 있는 포용성을 갖는다. 한옥의 마당에 나타난 포용성은 보자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보자기는 일반적으로 네모난 천이다. 그런데 보자기는 이렇다 할 형태를 갖지 않는다. 어떤 형태도 다 담을 수 있다. 보자기에 담기는 형태에 따라서 보자기의 모양도 결정된다. 포용성의 측면에서 볼 때 보자기와 마당은 본질적 특성에 공통점이 있다. 마당은 보자기처럼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포용력을 갖는다. 특정 기능이 없기 때문에 시대가 변해도 달라지는 삶의 양태를 담을 수 있는 것이 마당공간이다. 그래서 마당공간은 언제나 유용하다. 마당은 채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마당과 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된다.

공간관계성의 또 다른 원리가 위계성이다. 한옥의 공간에는 남녀공간의 구분이 있다. 어른과 아이들 공간의 구분이 있다. 특히 남녀에 따른 공간의 구분은 더욱 명확하다. 남녀 공간의 구분을 위하여 안채와 사랑채로 구분하는 것은 한옥 공간의 위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강릉 선교장의 '채']



[남양 궁집의 '마당']

(3) 형태 관계성

한옥에 구성된 여러 개의 채는 지붕의 높이가 조금씩 다르다. 지붕의 높이를 다르게 한 이유는 그 공간의 용도가 각각 다르고,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체치수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지붕의 높이를 정할 때도 주변의 산을 고려해 지붕의 높이를 정했다. 자연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자연을 닮으려는 생각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이는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지붕의 높낮이는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만든다. 아름다운 지붕의 스

카이라인은 행복한 미적 체험을 만든다. 형태의 아름다운 미에 대한 경험을 거주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인 것이다. 한옥에서의 형태는 형태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 집을 사용하는 사람과 주변의 환경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사람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살려면 인체 치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천정의 높이는 중요하다. 우리 건축에서 천정의 높이는 기둥에 의해 결정된다. 서양건축의 역사가 벽과 창고의 역사라면 우리 건축의 역사는 기둥의 역사이다.

기둥의 민흘림, 안솔림, 꺾기둥은 우리 건축의 특징이다. 민흘림기둥은 하부는 넓고 상부는 좁은 나무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패나 나무를 다듬어 만든 기둥이다. 민흘림은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사람이 지각하는 방법을 생각하였다는 점에서 친인간적이다. 민흘림 외에 시각적인 안정감을 위하여 고안한 것이 안솔림이다. 안솔림은 글자 그대로 기둥을 세울 때 살짝 안쪽으로 기울여서 기둥을 설치하는 기법이다. 시각적인 안정감과 더불어 구조적인 안정감도 함께 고려한 기법이다. 모서리에 세워지는 꺾기둥은 일반기둥에 비하여 높이가 다소 높다. 추녀가 가라앉는 것을 지지하고 가장자리가 상대적으로 더 낮게 보이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추녀를 받쳤던 것이다. 착시현상까지 고려하여 집과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했던 인본주의적 한옥의 특징이다.



[민흘림 기둥, 전남 여수 진남관]



[안솔림 기법, 경북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추녀의 처마곡선은 우리건축에서 손꼽히는 형태이다. 중국과 일본에 비하여 추녀를 하늘로 높이 들어 올려 만든 지붕의 곡선은 같은 아시아권의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것이다. 지붕의 곡선과 채의 직선은 대비를 이룬다. 대비의 형태 관계성을 중시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직선이 대비된 형태미가 우리건축에 있다. 이러한 대비의 관계는 여백의 관계성으로도 나타난다.



[중국 대안탑 일원의 처마]



[일본 오사카성의 처마]



[창덕궁의 단청]

우리 건축의 형태미를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요소로 한지창을 생각 할 수 있다. 서양의 스테인드글라스가 성서에 나오는 인물을 포함하고 있다면, 한지의 창은 기하학적 패턴으로 표현되어 있다. 스테인드글라스가 인물을 통해 창 의 상징성을 표현한 것에 비해 한지창은 어떤 의미가 없는 기하학적 패턴의 창이다. 기하학적 패턴의 창은 추상성을 표현한다. 한지창에 나타나는 추상성은 궁극적으로는 미니멀리즘과 비움과 만나게 된다. 한지 색은 무채색의 흰색이다. 이러한 한지는 우리는 미니멀리즘의 정신으로 대표된다. 미니멀리즘의 과도 뜻이 통한다. 이와 같은 미니멀리즘의 표현방식은 실내공간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미니멀리즘은 단순성과 직결되어 있다. 단순성이 절정을 이루면 비움으로 나타난다.

건축가 승효상은 빈자의 미학이란 “가짐보다는 쓰임이 더 중요하고, 더함보다는 나눔이 더 중요하며, 채움보다는 비움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다. 비워둠으로써 공간에 우리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담을 수 있다. 공간에 삶이 채워질 때 생명력을 지니며 비어있는 가운데 채워진 느낌이 생긴다. 우리 ‘마당’은 무용의 공간, 무목적성의 공간에 대한 좋은 예가 된다. 마당은 집을 짓고 남은 땅이 아니다. 오히려 마당을 만들기 위해 집을 지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서양의 마당이 관상의 대상이거나 생활의 중심임에 비해 우리의 마당은 생활뿐만 아니라 사고의 중심이며 공동체를 발견케 하는 의식의 공간이다. 이것이 바로 무용의 공간이다.

또한 우리의 마루는 아무 장식도 없이 텅 비어 있으나 비어있음으로 인해 사시사철 변화하는 아름다운 자연을 비롯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열려있음으로 하여 그 자리에 머무르는 이의 마음을 열리게 한다. 이처럼 마루는 마당과 함께 비어있는 상태로 열려있어 온갖 것을 다 수용한다.



[하회마을 충효당 대청마루]



[창덕궁 낙선재의 마당]

(4) 색채관계성

여백의 관계성 외에도 한옥은 색채의 관계성을 반영한다. 색채관계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단청이다. 단청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붉음과 파랑이다. 이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붉은 계열의 색과 푸른 계열의 색이 있어 색채에 대비성을 잘 보여준다. 단청은 일반적으로 공포부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색되는 색이다. 단청은 화려하다. 일반적으로 단청은 집보다는 궁궐이나 사찰에 많이 활용되었다. 단청과 하부의 벽

체와는 색채적으로도 대비를 이룬다. 색채의 화려함과 소박함의 대비가 존재하는 것이다. 색채는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면 같은 노란색이라고 하더라도 검정색 위에 있는 노란색과 파란색 위에 있는 노란색은 다르게 느끼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에서 색채의 관계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색채의 관계성을 반영하며 만들어낸 색채 표현체계가 바로 단청이다. 단청의 화려함, 문양, 색채 그 자체가 우리의 문화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단청을 위하여 사용된 배색도 실내디자인에 맞게 수정한다면 한국성을 담고 있는 색채 계획도 가능할 것이다. 색채 관계성에 있어서 어떤 바탕 위에 색이 칠해지느냐도 중요하지만 인접한 색이 무엇인가도 중요하다. 단청은 색이 칠해지는 색채 또한 중요하다. 동일한 색채를 사용한다고 해도 칠해지는 색의 순서를 바꾸면 그 느낌이 다르다. 단청의 색을 결정함에 있어서 순수하게 색의 느낌만을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았음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달리 한국의 단청에서 녹색이, 중국의 단청에서는 청색이, 일본의 단청에서는 붉은 색이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 이처럼 한국, 중국, 일본의 색상 선택이 다른점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한국 사람들이 녹색을 좋아하고 중국 사람들이 청색을 좋아하고 일본 사람들이 붉은 색을 좋아하는 것 때문일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 사람들은 붉은 색을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건물에서 청색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안료의 값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붉은 색은 고가여서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의 민족을 백의민족이라고 이야기하면 흰색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흰색의 사용배경에는 안료의 경제성을 고려하였던 점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 염색을 하지 않고 흰색 무명옷을 입은 것도 경제성의 원리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흰색을 사용한 시작도 흰색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경제성 때문이었다고 추정을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흰색을 좋아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부정한다는 말은 아니다. 아무리 경제성이 있다고 해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그런 것을 했겠는가? 또 자주 사용하다 보면 좋아질 수도 있다는 사람의 심리를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색을 적게 하려고 했다는 것도 자연 그 자체를 존중하고 인위적인 것을 표현하지 않으려는 자연주의의 원리에 충실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밝히고 싶은 것은 너무 우리 위주로 자화자찬의 형식으로 우리를 무비판적으로 보지말자는 이야기이다.

단청의 색은 건물의 화려함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함도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달리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역불승유 정책이 팽배했던 조선 시대에서는 단청의 사용을 금지, 절제 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단청이라고 해서 단청이 색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단청을 생각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단청에 들어간 문양이다. 단청을 색으로만 보면 안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서까래에 칠해지는 단청의 문양은 한국, 중국, 일본이 조금씩 다르다. 여기에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단청은 서까래에 많이 사용되었다. 홀처마의 경우 서까래의 형태는 원형이다. 그러나 겹처마의 경우 하부에는 원형의 서까래가 놓여지며 그 위에 사각형의 서까래가 놓여진다. 그렇다면 원형의 서까래보다 위에 사각형의 서까래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원형은 하늘이고 사각형은 땅이다. 그러나 우리의 처마 서까래는 이것이 뒤 바뀌어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렵다. 단청은 부식의 방지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문양이라는 상징성과 미감을 제공하

며 색의 감성을 표현하는 건축요소이다. 우리의 단청에서 녹색을 사용한 이유로 안료의 경제성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이것에서조차 우리가 얼마나 자연과 일체화되려고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단청에서조차 자연과의 관계성을 중시한 것이다. 자연을 닮으려는 우리 조상들의 생각은 녹색을 사용하게 하였다. 산의 녹음과 조화가 된 건물을 만들려고 녹색의 면적을 넓힌 것이다. 녹색의 면적을 최대한 함으로써 주변과의 일체화를 꾀했던 것이다. 이에 비해 중국의 청색이나 일본의 붉은색은 산과 일체화된 색이라고 볼 수는 없다. 녹색은 일반적으로 생명을 상징한다. 또한 부활을 상징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한국의 단청에는 생명존중의 사상이 스며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나 중국의 단청을 가리켜 인공적이라고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에서 인공적인 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연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일 수 있다. 자연을 이해하려는 접근이 다를 뿐이다. 인공성을 강조한 것도 결국 자연을 알기위해 나온 발상인 것이다. 자연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하여 인공적인 것을 추구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건축은 인공적인 것을 통해 자연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연 그 자체에서 자연을 이해하려 했다. 우리의 단청에 많이 사용되는 녹색은 자연의 색이며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색채의 관계성은 또 다른 자연에 대한 표현이며, 인간 생명에 대한 성찰이며, 생명존중 사상의 반영인 것이다.

(5) 사람관계성

조선시대에는 유교사상의 윤리관인 남녀의 내외가 극심하여 공간 이용과 일상생활에서 남녀의 구분이 철저하였다. 따라서 건축물 자체에 사용자에 따른 위계질서를 부여했다.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건축물의 특성과 남녀의 위계질서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건축물 자체의 높낮이와 형태에 따라 시각적 위계질서로도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적 위계질서와 함께 동선의 분리, 분산식 배치에 의한 남녀유별의 표현 등은 신분의 차이, 성별의 차이를 나타내는 심리적 위계질서까지도 담는다. 자녀의 양육을 예로 들면, 딸은 살림살이와 예절을 익히며 안채에서 성장하며, 아들은 조부나 부친을 통한 학문의 연마 및 제반 예절을 습득하기 위해 수유기가 지나면 바로 사랑채에서 생활하였다.

안채에는 안방과 건넌방, 안대청, 부엌, 곳간 등이 있다. 안방은 안방마님의 일상거처실로 밤에는 침실이 되기 때문에 주택의 가장 은밀한 공간이다. 따라서 안채에는 직계존속 이외의 남자들의 출입을 금지시켰고, 안채에 기거하는 부인은 중문 밖으로 나서지 않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부엌은 안방과 건넌방에 각각 붙어 있다. 안방 쪽 부엌은 주된 조리공간이며 건넌방 쪽의 부엌은 물을 끓이는 등의 보조공간이다. 안마당은 문간행랑채와 안채, 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랑마당과 안마당 사이에 담을 둘러 문을 달아 놓았다. 사랑채에는 가부장을 위한 큰사랑방, 장자를 위한 작은사랑방, 대청, 누마루, 침방, 책방, 서고 혹은 도서실이 있었다. 경치가 좋은 곳에는 풍류를 즐기기 위해 정자도 만든다. 또한 전통적인 가게 계승의 방식을 따라 부모의 사망 전이라도 일시에 가부장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용하던 은거용 안사랑채도 있었다.

안채와 사랑채의 구분은 남성과 여성의 성에 의한 차이를 위한 것이지 차별은 아니

었다. 남성들이 기거하는 사랑채가 가족의 현재를 위한 공간이라면 여성들의 안채는 가족의 미래를 위한 공간이다. 그리고 안채에 붙어있는 각종 다락방, 부엌, 창고 등을 관리한 사람은 부인이었다. 이는 집안을 운영하는 권한을 여자가 가졌다. 이처럼 전통한옥은 일상생활과 의례생활의 방식 등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

사람 관계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신분을 고려한 건축 계획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건물에 높은 곳에 세워졌다. 또 단청의 사용과 단청의 종류도 사용하는 사람의 신분에 의해 결정되었다. 앞에서 설명한 모든 관계 중에서 사람 관계성은 한옥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관계성이다. 집은 사람을 위한 건축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안채에서는 가족 간의 관계가 만들어진다. 남편과 아내, 어머니와 자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안채이다. 사랑채에서는 이웃사람과 손님과 소통의 관계가 만들어진다. 가족과의 대화가 소원해지는 요즘의 시대에서 가족 관계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지혜를 한옥에서 발견 할 수 있다. 한옥의 자연과 교감하는 집을 넘어선 인간존중의 사상이 내재되어 있는 집이다. 사람관계성은 집다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창덕궁 낙선재 - 높낮이의 차이]



[구례 운조루]

2. 한 스타일 인테리어 디자인

가. 연구수행방법

신한옥 인테리어 디자인 요소 색채, 재료, 조명, 패턴(문양), 창호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나. 연구개발내용

(1) 색채

한옥의 현대화를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는 재료, 색채, 조명, 패턴 등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중에서도 색채는 기존의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적용이 가능한 디자인 요소이다. 형태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시공법과 디자인 방법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다. 색채는 3차원적인 것이라기 보단 2차원에 가까워 그 적용 과정이 비교적 단순하다. 색채 적용의 장점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장점은 공사비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사비의 증액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색채의 강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색채의 강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색채 디자인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색채는 감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람의 마음을 좌우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즉, 사람의 심리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한 구체적 형태가 없기 때문에 추상성을 갖는다. 색채는 형태에 담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색채의 특성은 결정된 형태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에도 담긴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색채는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색채는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이다. 형태는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이다. 형태는 보이지만 보이는 것 그 이상은 없다. 색채는 형태로는 보이지 않지만 결정된 것이 없기에 무한성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색채는 공(空)사상과도 연관성이 있다. 흔히들 색채를 생각할 때 하나의 색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색채가 하나로만 존재하는 법은 없다. 색채는 여러 색들 가운데 존재한다. 색채의 존재감은 다른 색이 있음으로써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색채는 관계성 속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전통 한옥의 디자인 원리가 관계성으로 압축된다고 보았을 때, 색채만큼 전통한옥의 디자인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것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색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전통 색채의 활용에 대한 체계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색채는 사람들의 감성적 측면을 건드리기 때문에 상징적 특성이 강하다. 상징적 특성이 강하다는 것은 문화 정체성을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 요소임을 시사한다. 한국, 중국, 일본의 색채는 같은 동아시아의 인접한 국가임에도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의 색채에 대한 조명은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한다. 전통색채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오방색이고 단청이다. 오방색과 단청은 우리의 문화 의식과 철학, 그리고 상징 세계를 담고 있다. 오방색과 단청에 대한 이해는 색채의 현대화에 있어 필수적이다. 특히 단청에는 전통색채의 유전자가 담겨 있으며 이러한 유전자가 있기에 단청에는 우리 색채의 본질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청에 담겨져 있는 색채

사용에 내재적·외재적 질서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색채에 대한 전통 계승도 가능하다. 때문에 한국의 전통색채를 이해하려면 오방색과 단청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가) 전통 색채와 문화

한국의 색 문화는 단연 독특하다. 음양오행의 사상 체계를 바탕으로 뚜렷한 사계절과 그에 걸 맞는 의식주 문화 등 다양한 요인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있다.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오방색과 오정색이라는 의미론적 색채를 기준으로 발전해왔고, 이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시대별 색채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는 강하고 화려한 색상을 많이 사용하였지만, 고려시대에는 중후하고 둔탁한 색채가 유행하였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전통색의 선명하고 다양한 색채는 조선시대의 색문화가 대부분이다. 조선 시대에는 종교와 사상, 그리고 시대적 배경에 따른 미의식이 오방색의 바탕 위에서 발전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색채 의식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은 색채를 시각적인 것보다 오행사상의 관념화된 의미와 상징성에 큰 비중을 두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색채의 철학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오행이란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를 말한다. 이러한 오행의 요소는 모든 사물, 즉 방위, 색채, 계절, 음양, 풍수 등에 대입시켜서 설명이 가능하다. 음양오행사상의 색채체계는 동서남북 및 중앙의 오방(五方)을 구성한다. 이 오방에는 각 방위에 해당하는 정색(正色)이 있다. 이 정색은 청, 적, 황, 백, 흑이며, 이를 오방색이라고 부른다. 또한 정색과 정색 사이에 간색(間色)이 있다. 동과 서 사이의 간색은 벽색(碧色)이며, 동과 중앙 사이는 녹색(綠色), 남과 서 사이는 홍색(紅色), 남과 북 사이는 자색(紫色), 북과 중앙 사이에 유황색(硫黃色)이 있다. 한국의 전통 기본색은 이들 다섯 가지 정색과 다섯 가지 간색을 합한 열 가지 색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한국 민족은 색채를 우주 개념과 결합시킴으로써 색채에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색채를 우주만물의 질서와 조화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오방색의 청색은 파랑으로, 어근은 ‘팔-’이며 ‘풀(草)’에서 변한 말이다. 전통적 의미는 나무, 하늘, 물, 동쪽, 탄생, 젊음, 벽사(잡귀를 물리친다는 뜻), 낮은 지위이다. 적색은 붉은색을 뜻하며 밝음, 고귀함, 남쪽, 벽사를 뜻한다. 황색은 노랑이며 어근은 ‘눌’이다. ‘눌’이란 땅이나 흙을 뜻한다. 전통적 의미는 땅, 중앙, 만물이 잘 자라는 곳, 황제, 권위이다. 백색은 흰색으로 태양, 신성, 서기(길한 조짐), 서쪽을 뜻하고, 흑색은 검은색으로 신격, 물, 북쪽을 의미한다.¹⁾ (표 1 참조)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 과 같다.²⁾

1) 이재만, 한국의 색, 2005

2) 이동희, 색깔에도 서열이 있다, 2006

표 1 오방색의 개념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파랑 : 어근 '팔'로 '풀'에서 변함	붉은색	노랑 : 어근 '눌' (땅, 흙을 뜻함)	흰색	검은색
나무, 하늘, 물, 동쪽, 탄생, 젊음, 벽사(잡귀를 물리친다는 뜻), 낮은 지위	밝음, 고귀함, 남쪽, 벽사	땅, 중앙, 만물이 잘 자라는 곳, 황제, 권위	태양, 신성, 기(길한 조짐), 서쪽	신격, 물, 북쪽
동쪽	남쪽	중앙	서쪽	북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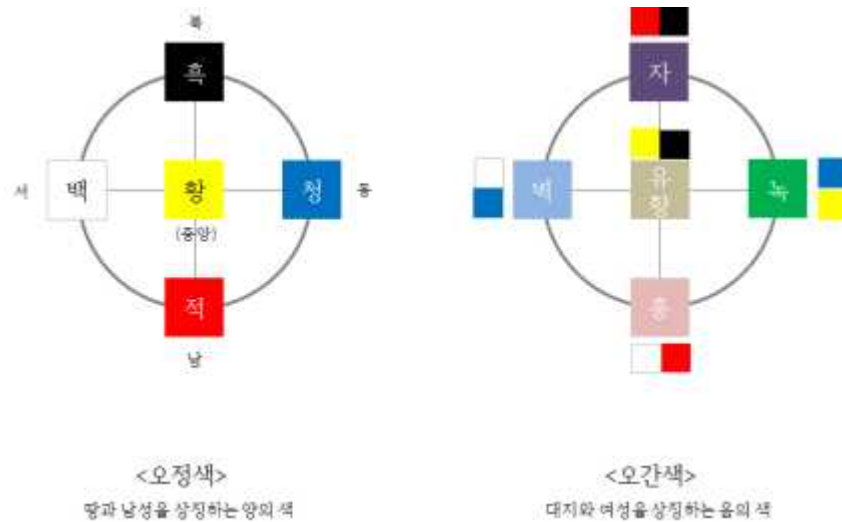


그림 19 오방색과 오간색

반면, 역사적으로 색의 사용이 다양했음에도, 침략의 역사가 많았던 우리나라는 근대화 이후엔 색채에 관한 고문헌이나 자료를 쉽게 접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21세기 세계화 시대는 문화를 중시하는 시대이다. 문화시대에서 색채는 당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왜냐하면 색채는 그 시대의 문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전의 색채를 현재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색채 문화는 정체되어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건물의 현대화가 필요한 것처럼 색채 또한 현대화를 필요로 한다.

한옥의 현대화에 있어서 전통색채의 계승 박전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계승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전통색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나) 오행과 단청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전통건축의 색채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단청’이다. 단청은 음양오행설의 원리와 철학이 집대성된 건축의 외장 및 내장 채색 기법이다.

단청의 기본 빛깔은 5색이며 이를 혼합해서 수많은 빛깔을 낸다. 5색은 곧 청·적·백·흑·황 이다. 정약용(丁若鏞)의 《여유당전서》 〈잡찬집(雜纂集)〉을 보면 단청의 5색은 5행사상과 관계가 있다. 청은 동(東)이며 용(龍)이고 계절로 봄[春]이며 5행으로 목(木)이다. 적은 남(南)이며 새[雀]이고 계절로 여름[夏]이며 5행으로 화(火)다. 백은 서(西)이며 호랑이[虎]이고 가을[秋]이며 5행으로 금(金)이다. 흑은 북(北)이며 현무(玄武)이고 계절로 겨울[冬]이며 5행으로 수(水)이다. 황은 중앙이며 계절로 토용(土用:환절기에 해당)이며 5행으로 토(土)이다. 단청의 오행사상에는 현세의 강녕(康寧)과 내세의 기원을 담고 있다.

이러한 오행의 색상과 방위와 계절의 상징을 표로서 나타내면 표 2 와 같다.

표 2 오행의 색상과 방위와 계절의 상징

오 행	절 기	방 위	색 상	신 상
목	봄	동	파랑	좌청룡
화	여름	남	빨강	전주작
토	토용	중앙	노랑	중인황
금	가을	서	하양	우백호
수	겨울	북	검정	후현무

그러나 이와 같은 오행색을 건축에 바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음양오행론적 색채 시스템을 통해, 건축에 응용된 단청이 단순히 현란한 색채가 아니라 정색과 간색의 혼합 즉, 음과 양의 혼합체인 단청을 건축에 응용했던 것이다. 하늘의 기운인 양과 땅의 기운인 음이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단청색은 오정색인 적, 황, 청, 흑, 백과 오간색인 녹, 황, 홍, 벽, 자, 그리고 미색, 석간, 양록, 육색, 장단, 하엽을 구성한다.³⁾ 이처럼 단청은 음양오행설과 깊은 관계를 갖는다. 색의 상징성과 색의 관계를 중시한 전통색채의 특성을 그대로 지속시키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3) 박민정, 한국의 색채 이미지 분석과 현대적 관점에서의 정체성 확인 연구, 2010(재인용, 심민경, 조선시대 궁궐의 단청색채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다) 색채팔레트

색채의 현대화를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전통성을 반영한 색채팔레트를 만든 다음 팔레트에 있는 색 중에서 색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색채팔레트란, 디자이너들이 원하는 색채를 쉽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무수한 색 중에서 어떤 목적에 따라 활용빈도가 높은 특정 색들을 모아 놓은 집합을 말한다. 색채팔레트는 디자이너가 그 목적에 따라 색을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으며, 색채팔레트에 포함된 색을 구성하여 여러 가지 배색 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것도 색채팔레트의 또 다른 장점을 포함한다.

색채는 문화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 요소 중의 하나다. 최근 한국에서는 문화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대한옥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우리 전통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집이 현대한옥이다. 우리의 전통성을 계승하기 위해 전통한옥에 나타난 디자인적 본질을 파악하고 그를 재해석 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전통한옥을 재해석 하는 데 있어 우리가 고려하여야 할 디자인 요소로 차경, 비레, 색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 중 색채는 비교적 현대적 재해석이 용이한 디자인 요소이다. 그러나 전통한옥의 색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게 진행되었으며, 현대한옥의 실내디자인을 위한 색채연구가 크게 부족하다. 기존의 전통한옥과 달리 현대한옥에서는 현대인의 감성과 생활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색채에 기반 한 실내디자인 용 색채팔레트를 개발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⁴⁾

①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색채 팔레트

우리만의 전통색에 대한 연구에 앞서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의 전통색채 팔레트를 살펴보는 것은 전통색채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다음페이지의 그림들은 각각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색채팔레트를 나타낸 것이다. 중국과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전통색팔레트⁵⁾는 수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4) 현대한옥 실내디자인 색채팔레트 개발에 관한 연구, 이현수 · 심민경, 디자인융복합학회, 20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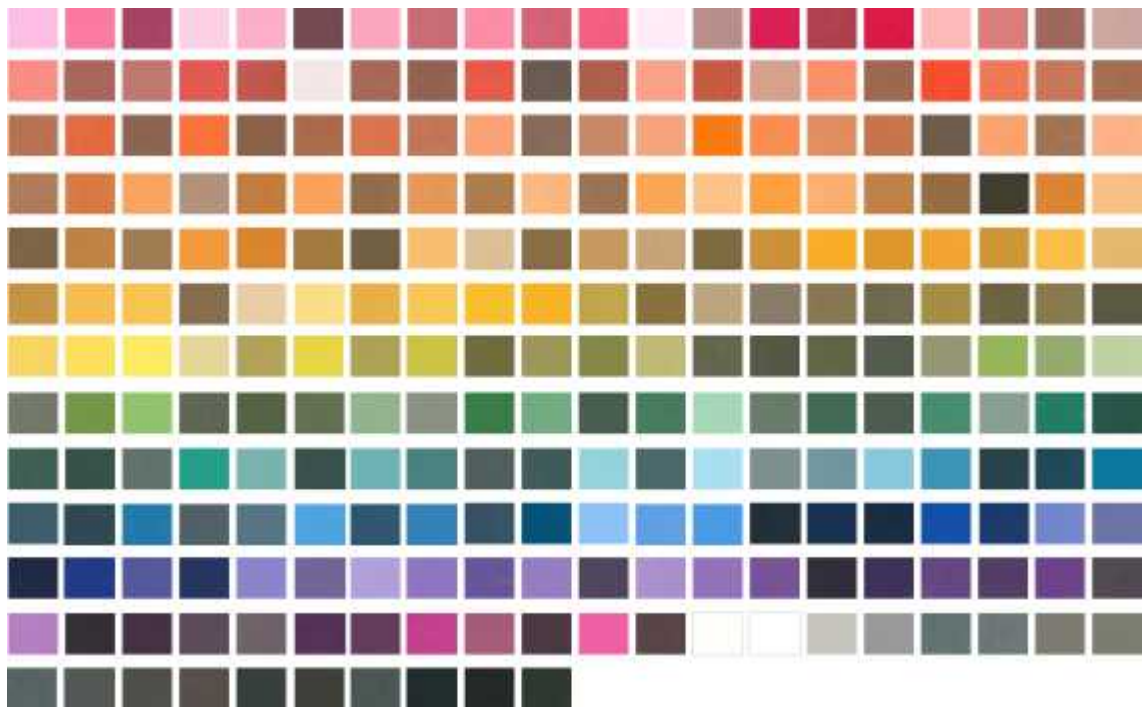
5) 1992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연구 발간한 '한국전통표준색 90선'



한국의 전통색채팔레트 90



중국의 전통색채팔레트 158 (<http://ylbook.com>)



일본의 전통색채팔레트 250

(2) 재료

(가) 재료 개요

재료는 디자인의 스타일이나 사용자의 지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같은 형태라고 하더라도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주는 느낌은 다르다. 그러나 재료를 선택할 때 있어서 느낌만을 고려해서 선택할 수는 없다. 재료의 강도나 시공방법, 가격 등 재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많다. 한옥의 현대화 과정에서 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옥’ 하면 지붕의 기와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또 목재 기둥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통문양의 창살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목재의 기둥을 철골로 바꾼다면 그것은 한옥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목재나 철골이냐가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는 콘크리트 기둥이나 철골 기둥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전통의 방식을 생각한다면 창호에는 꼭 한지를 써야 할 것 같다. 그러나 한지보다는 유리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 한지가 습기에 약하고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통한옥의 현대화에 대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저마다 다르다. 어디까지 전통재료를 고수해야 하는지도 그 경계가 모호하다. 다시 이야기해서 최소 어떤 재료를 고수해야지 한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료에 상관없이 현대화된 재료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써도 무방하다고 이야기한다. 이와 같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재료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바닥	벽	천장	기둥	창호
목재	수입나무	0		0	0	0
	국내나무	0		0	0	0
	소나무	0		0	0	0
	구조용집성재			0	0	
	기타나무					
벽지	지사벽지		0	0		
	초경벽지		0	0		
	천벽지		0	0		
장판지	닥나무장판지	0				
	PVC 장판지	0				
회벽			0	0		
타일·기와			0			

(나) 목재



한국, 목구조가 노출되어있는 한옥의 천장, 전주한옥마을



한국, 목재가 사용된 한옥, 운조루

‘한옥’은 목구조로 대표된다. 단적으로 말해 목재를 빼놓고 한옥을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옥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조차 목재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목재는 콘크리트에 비하여 내구성이 떨어지고, 화재의 위험도 있고 가격도 비싸다. 또 목재를 다루는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 그래서 목재의 사용은 공사비를 높이고 구조적 성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현대인의 생활에 맞는 스펀을 갖는 건축물을 만들기에 적당하지 않다. 목재는 재료의 특성상 소규모의 건축물에 적합하다. 다시 말해 구조적 성능을 만족시키는 충분한 스펀을 갖는 목재를 구하기가 충분한 크기의 방을 자유롭게 계획할 수 없는 약점도 있다. 전통방식에 의해서 지어지는 한옥은 그 스펀이 짧아 방이 작다. 방이 작다 보니 한옥에 오래 있다 보면 답답하다는 느낌도 든다. 이를 해결하려면 목재 대신 콘크리트나 철골을 사용해 스펀을 넓혀야 한다. 형틀 속에 철근을 짜 넣고, 모래, 자갈, 시멘트를 부어 넣어 콘크리트를 만드는 작업은 간단하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널리 사용 될 수 있는 보편적인 건축 기술이다. 콘크리트는 장소를 선택하지 않는 보편성의 장점도 있지만 어떤 모양도 만들 수 있는 보편성을 갖는다. 콘크리트는 쉬운 재료이다. 콘크리트는 표면 마감의 자유를 준다. 콘크리트 표면에 원하는 재료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콘크리트 위에 돌을 붙일 수도 있으며, 목재나 흙을 바를 수도 있고 알루미늄 판 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콘크리트는 강해서 그 위에 무엇인가를 덧달기에 가장 손쉬운 건축 재료이다. 콘크리트는 강한 건축재료이다. 화재에도 강하고, 벌레에도 강하다. 어느 장소에나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장소를 획일화하여 자연을 파괴한다. 그러나 강할 것 같은 콘크리트는 처리하기 어려운 산업폐기물로 변한다. 콘크리트는 내부에서 철근이 부식되고 있어도 그것을 알아채기 힘들다. 그러나 나무는 부식하면 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 나무의 부식된 부분은 교체가 가능하다.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것은 콘크리트의 본질이다. 목재를 고수해야 할지 아니면 콘크리트와 같은 재료로 바꿔 써야할지 그것은 한옥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이며 연구 쟁점이다.

이와 같은 목재와 콘크리트의 장단점 때문에 한 가지의 재료만에 집착하려는 입장에서 있지 않다. 재료의 선택에서 형편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목재의 물성이 갖고 있는 느낌, 콘크리트의 물성이 갖고 있는 느낌, 철골이 갖고 있는 느낌이 확연히 다른 것은 사실이다. 재료의 변화가 한국적인 느낌이나 분위기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큰 문제이다. 재료를 바꾸어서 넓은 스펀을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재료를 고수하여 원하는 물성을 얻고 단(短)스팬의 집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저 이러한 문제는 사용자가 결정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최종 선택은 건축주가 하여야 한다.

목재의 특성은 부드러운 이미지를 준다는 데 있다. 그래서 딱딱하지 않고 차갑지 않다. 목재는 자연재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친밀감을 준다. 목재의 대청마루는 목재 사이사이 틈이 있다. 그 틈은 공기에 대류현상을 만들어 실내공간을 시원하게 만든다. 대청마루는 여름을 나기 위한 공간이었던 것이다.

요즘 현대주택을 보면 그러나 에어컨과 냉방설비가 등장함에 대청마루에 대한 필요성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현대주택에서 대청마루가 없어지는 대신 거실이 등장하게 된다. 대청마루를 흉내 내 거실 바닥을 목재로 화장한다. 돌로 마감된 벽도 얇은 판석의 화장에 불과하다. 콘크리트 기둥 위에도 목재의 마감이 가능하다. 콘크리트와 목재의 결합은 현대건축과 전통건축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이처럼 목재의 사용은 감성적인 측면에서 한국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용을 포기하기가 어렵다. 한국적 정체성은 역시 목구조이기 때문이다. 한옥의 목구조는 현대건축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이다. 따라서 천장의 목구조를 보여줄지 아니면 천장을 마감처리 하여 가릴지는 언제나 디자이너를 고민하게 한다. 전통방식대로 방은 천장마감을 하여 목구조를 감추고 거실은 천장마감을 하지 않아 목구조를 보여주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옛날 방식 그대로의 목구조가 아닌 단순화된, 시공이 용이한 구조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예전에 무거운 기와의 하중을 받기 위해 만들었던 목구조가 중량을 줄인 지붕시스템에서는 옛날의 목구조방식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구조의 단순화는 시공성과 경제성의 측면에서 유익하지만 우리의 옛 건축의 건축미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가 자부해왔던 지붕의 곡선미가 퇴보할 가능성이 있다. 목구조의 단순화 되는 이유가 건축비와 시공의 용이성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목구조의 단순화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단순화하는 과정이 옛날의 부재의 짜임방식에 반드시 기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겐고 쿠마는 호샤쿠지 역사에서 창의적 형태의 목조 천정을 소개했다. 소우 후지모토는 목재로 쌓아 만든 실험주택을 통해 일본의 전통성을 구현했다. 이와 같은 예에서 보듯 목재는 전통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조적의 재료이다.

목재의 형태적 구조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목재의 종류도 중요하다. 소나무를 쓸 것인가, 혹은 소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를 쓸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수입나무를 쓸 것인지 아니면 국내산 나무를 쓸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에 사용되는 나무로 침엽수인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가문비나무, 전나무가 일반적이다. 치장재나 특수 용재로는 참나무(참나무과 참나무 속에 속하는 여러 수종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이 속屬에 속하는 나무는 모두 도토리류 생산하므로 ‘도토리나무’라고 불리기도 한다)의 너도밤나무 과의 갈참나무, 굴참나무, 물참나무, 줄참나무 등의 광엽수가 일반적이다.

여러 가지 나무 중에서는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나무로 꼽히는 것이 소나무이다. 소나무는 가을의 처서부터 봄의 우수까지 물이 오르기 전에 베어 사용한다. 비틀거리거나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그늘에서 잘 건조시킨 목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목조건물의 기둥, 대들보, 서까래 등에 사용되는 재료가 소나무이

다. 느티나무는 결이 아름답고 구성이 단단하여 조각, 가구 등에 많이 사용된다. 집성목재는 목재의 강도를 인공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길고 단면이 큰 부재를 만들기에 용이하다. 응력에 따라 필요한 단면을 만들거나 아치와 같은 굽은 용재도 제작 가능하기 때문에 목재의 단점 및 구조적인 약점을 보완하여 대체 사용이 가능하다.



중국 시안, 콘크리트 소재의 처마, 섬서역사박물관

(다) 한지

한옥의 창에 사용하는 한지는 전통한옥의 대표적 재료이다. 한지 유리와 달리 불투명하지만 공기와 소리가 통하는 숨 쉬는 집이 한옥의 장점이다. 한지의 통풍 기능과 채광 기능은 자연 건축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게 한다. 한옥의 불투명성은 마당을 반사하여 들어오는 태양빛을 여과하여 기분 좋은 간접광을 실내에 유입하게 한다. 한지는 바깥을 내다보게 하지는 않지만 소리를 통해 바깥의 분위기를 짐작하게 한다. 이처럼 한지는 외부의 자연과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시각적, 청각적 재료이다. 이와 같은 특성에 더해 한지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재질이다. 그러나 습기에 약하고 내구성이 약하고, 또 천연 자연 재료의 특성상 대량생산이 어렵다 보니 한지 대신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투명성 때문에 우리는 바깥을 볼 수 있다. 유리가 음을 통과시키지 않지만 시선을 확장시키는 매력은 대단한 것이다. 한지 대신 사용되는 유리는 한지 대신 사용되는 유리는 조망을 제공하며 빛을 투과시킨다. 한지가 은은한 맛이 있다면 유리는 세련미를 갖고 있으며 화려하다. 청각적 자극에 의한 자연과의 교감이 한지의 장점이라면 시각적 자극에 의한 공간의 확장이 유리의 장점이다. 한지는 통풍성이 좋으며 유리는 기밀성이 좋다. 유리와 한지는 서로 다른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지와 유리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한지는 한국적 정체성 또는, 한국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재료이다. 유리는 어떤 문화정체성을 띠지 않고 유니버설한 보편적 특성을 갖는다. 유리가 빛을 통과시켜 채광을 만들고 조망을 제공한다는 점이 혁신적이고 매력적임에 틀림없다. 유리는 20세기 건축을 만든 재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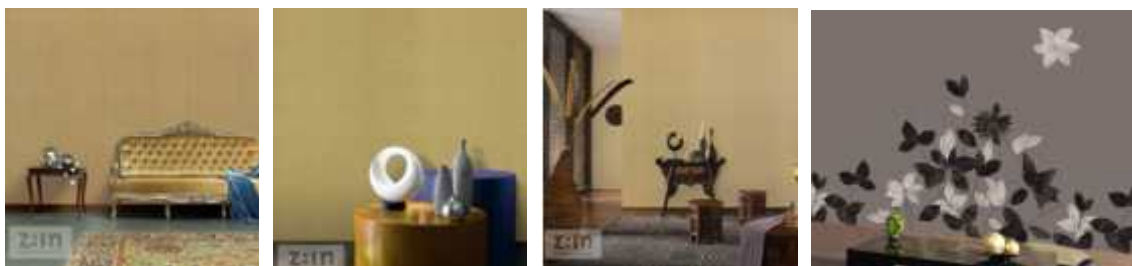
유리는 투명하기 때문에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경계를 허문다. 내외부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짐으로써 공간의 확장이 일어난다. 이러한 공간의 확장성은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Hohe]의 판즈워스[Farnsworth, 1950]주택이나 필립존슨[Philip Johnson]의 글라스하우스[Glass House]에서 잘 나타난다. 사면을 유리로 만들어 자연공간과 주택공간의 일체화를 만든 것이다. 유리의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개방성이다. 유리가 없는 건물은 답답하고 폐쇄적이다. 그러나 유리는 내·외부를 통하게 하여 주변 환경과의 관계성을 맺는다. 이러한 관계성 속에 유리는 빛을 여과 없이 투과시킨다. 유리는 기밀성이 좋다. 그래서 유리 건축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다. 그래서 에너지효율이 나쁘다. 이에 비해 한지는 통풍성이 좋고 빛을 그냥 통과시키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이 춥다.

한지는 창에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한지는 아무 패턴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적 문양을 새긴 것도 있다. 한지는 창호를 포함, 벽, 천장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소에 종종 아크릴 한지가 사용된다. 관리가 용이하고, 값이 싸기 때문이다. 한지를 모방하여 새로운 재료를 개발한 것이다. 아크릴 한지는 한지를 흉내 냈지만 더 이상 종이한지는 아니다.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가 파이프를 보여주며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Ceci n'est pas une pipe)’라고 말한 것처럼 아크릴 한지는 시각적 착각을 유발하는 현대의 재료이다. 또 다르면 다를수록 좋다는 의견이다. 그러니까 아크릴한지도 쓰고, 전통한지도 쓰고, 철골기둥도 쓰고, 목구조기능도 쓰면서 살아남고 지속적인 것이 전통으로 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아크릴 한지에는 종이한지에서 느껴지는 은근함과 단아함이 없다. 경제성을 향상시킨 재료지만 심미적

감성은 퇴보시킨 재료인 것이다. 종이한지는 은은함이 장점이지만 표면의 내구성이 떨어지고 습기에 약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표면이 쉽게 너덜너덜해져 지저분한 느낌이 든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축 재료로서 한지는 사용하기에 예민한 재료다.

그렇지만 한지는 한국적 정서가 담긴 재료로서 한국적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전통의 자연재료이다. 그러나 전통방식 그대로의 한지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재료의 내구성과 경제성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옛 향수를 생각하며 감성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전통한지만을 고수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옥이 현대화 되어야 하듯 한지도 현대화 되어야 한다.

(라) 벽지



벽체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에는 목재, 한지, 흙 등 다양한 재료가 있다. 수직의 벽을 마감하는 벽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 수 밖에 없는 재료이다. 사용자는 바닥보다 벽체를 더 많이 접한다. 벽체는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따라서 벽체는 사람들의 감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벽체는 공간에 분위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현대한옥에서 한지의 사용은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지는 벽체의 재료로 사용하기에 많은 단점이 있다. 대량생산된 벽체 재료의 다양성은 재료의 선택에 자유를 제공한다. 벽체의 재료로 타일의 사용이 가능하며 유리나 콘크리트, 그리고 플라스틱의 사용이 가능하다.

벽지는 소재에 따라 종이벽지(종이 한 겹으로 구성된 종이벽지, 두 장이 합쳐진 합지벽지), 비닐벽지(실크벽지), 직물벽지, 목질계 벽지, 무기질 벽지 등으로 나뉜다. 제조방법인 인쇄법, 발포, 엠보, 색가공, 나염가공 등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이 중에서 합지벽지, 비닐벽지, 친환경벽지, 무늬벽지, 특수벽지 등이 많이 사용된다.

합지벽지는 종이를 겹쳐 놓은 것으로 PVC 코팅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친환경적이다. 비닐벽지보다 질감이나 색감이 떨어지지만, 최근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여 실크에 가까운 질감과 표면이 특수 처리된 벽지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비닐벽지는 색상과 재질은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고, 습기에 강하기 때문에 오염으로부터 관리가 용이하다. 반면에 PVC 소재 코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가소제의 유해성과 시공 후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가 문제가 단점이다. 또한 비닐 코팅 때문에 습도조절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친환경벽지는 천연재료 사용으로 인체에는 좋으나, 일반벽지와 비교하여 가격과 시공비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무늬벽지는 시공 면에 패턴이나 사진을 한 장의 사진처럼 시공할 수 있는 벽지이다. 종류와 규격이 다양하며 크기에 맞게

제작이 가능하나, 일반 벽지에 비해 가격 및 시공비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특수벽지는 질석벽지, 구슬벽지, 나무벽지, 콜크벽지, 한지벽지, 형광벽지, 레자벽지, 섬유벽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 한지벽지의 마감은 한국적 느낌을 주지만 한지의 특성상 내구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한국적 느낌을 주는 회벽도 벽체의 수명이 짧고 주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단점을 갖는다.

(마) 장판지



장판지가 한국성을 잘 보여주는 바닥 재료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노르스름한 색깔을 띠는 장판지는 한국적 재료로서 주목을 받는다. 장판지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콩기름을 바르고 그 니스칠을 해서 마감한다. 니스칠 때문에 장판지는 반짝반짝 빛나는 광택을 갖는다. 장판지는 온돌 바닥에 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깔이 변화하는 특성이 있다. 온돌의 온기에 의해서 색깔이 점점 진해진다. 특히 아랫목의 경우에 온도가 뜨거워 심지어는 검은 빛으로까지 변한다. 장판의 광택과 색채는 장판지만의 차별화된 재료적 특성이다. 장판의 약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손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리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습한 바닥의 경우에는 장판지가 썩는다. 그러나 장판이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닥에 물을 흘린 경우, 얼마든지 쉽게 청소가 가능하다. 일본의 다다미의 경우 오염된 바닥의 청소가 어렵다는 결점을 갖는다. 카펫도 청소를 용이하게 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다미와 동일하다. 장판지 바닥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기가 쉽다. 그러나 다다미 바닥이나 카펫 바닥에서는 자녀 양육은 아이들에 의한 바닥재 오염 때문에 비위생적 공간이 생겨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장판지는 위생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장판지 외에 바닥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공장제품이 있다. 장판지와 같이 전통성을 보여주면서 장판지를 보완한 재료로 많이 고려되는 재료가 목재 마루이다. 목재는 장판지에 비해 관리가 쉽다. 그러나 난방 효율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바닥 재료로서 장판지를 고수할지 아니면 목재를 사용할지는 사용자가 최종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물론 이와 같은 재료 말고도 바닥 재료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은 많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용 가능한 바닥 재료 중에서 한국성을 고려했을 때 장판

지만한 바닥 재료는 없다. 장판지는 온돌의 바닥 난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통재료이다. 장판지 고유의 색채감성은 사용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러나 장판지의 사용만을 고집할 수 없는 이유는 저마다의 특성을 갖는 다양한 바닥 재료가 있기 때문이다. 바닥 재료로서 장판지의 사용도 결국 사용자의 최종결정에 맡길 수밖에 없다.

(바) 회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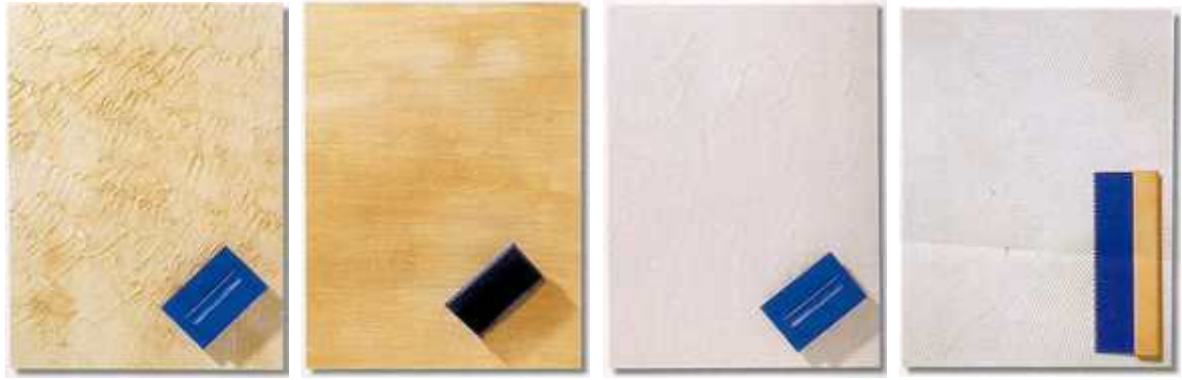


회벽은 사전적인 의미로 ‘석회를 반죽하여 바른 벽⁶⁾’이다. 석회, 백토, 가는 모래 따위를 섞어 반죽하여 벽에 바른 벽이다. 회벽은 벽체의 재료이기도 하지만 천장의 서까래 사이를 메우는 재료이기도 하다. 흰색의 회벽은 비움의 미학을 보여준다. 백은 아무 것도 없는 것, 비어있는 것, 무언가로 채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회벽은 정갈한 마음과 욕심 없는 삶을 보여주는 다소 무거운 재료이다. 벽체의 재료로 시멘트 모르타르를 쓸지, 회벽마감이나 석고 보드를 사용할지는 한옥에서 항상 고려사항이 된다. 벽체의 재료도 바닥과 마찬가지로 토담, 폐신문지, 석고보드 등의 다양한 재료의 사용이 가능하다. 정통성을 고수하고 싶다면 흙에 도배지를 붙인 마감이나 회벽 그리고 토담집이나 귀틀집 등등 벽체가 좋다. 이 중에서 회벽은 시공하는 사람의 표현력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섞기, 찍기, 붙이기, 표면 갈아내기 등의 기법을 사용한 시공이 가능하다.

회벽의 장점은 재료의 담백함을 보여주는 감성적 표현에 있다. 하라켄야는 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백은 현실세계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백을 보고 백을 접한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현실 세계의 백은 오염되어 있다. 그것은 백을 지향한 혼적으로서만 존재한다. 백은 섬세하고 부서지기 쉽다. 그것은 탄생의 순간에서조차도 완벽한 백이 아니며 접촉하는 순간 백이라고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즉시 오염되어 버린다.” 백의 색이 있는 회벽은 단단하지 않지만 사람들의 감각을 고무시킨다. 그래서 회벽을 사용하는 이유도 재료의 성능보다는 무언의 편안함과 시각적 편안함의 향수가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진화된 새로운 것은 옛것을 교체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저 막연한 바람이 될 수는 있지만 현실적이지는 못하다. 사회는 새로움을 향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용광로이다.

지붕의 재료로 어떤 재료를 쓸지 언제나 고민할 수밖에 없다. 기와는 다른 문화의 건축물과 한국의 건축물을 차별화 시켜주는 요소이다. 기와의 강한 한국적 특성은 한옥 현대화를 위한 무한한 잠재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어찌 보면 지붕의 형태도 기후에

6) NAVER 사진



회벽의 다양한 표현기법, 테라코코리아(주)

최적화된 형태로 진화된 것이다. 한국의 지붕은 맞배지붕에서 우진각 지붕, 최종적으로 팔작지붕으로 진화했다. 지붕의 기능 중에서 비를 막고, 비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이 지붕의 기본 기능이다. 맞배지붕은 측면이 취약한 지붕이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측면에도 지붕이 있는 우진각 지붕이 고안되었다. 그러나 우진각 지붕이 맞배지붕의 기능을 보완하였지만 모서리 부분이 취약한 형태이다. 모서리 부분에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지붕 모서리 끝을 들어 올린 지붕이 팔작지붕이다.

(사) 타일 및 기와



내구성과 관리적 장점이 있는 타일은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타일은 특히 물공간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타일을 욕실공간이나 부엌공간에서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공간에서 타일을 별도의 디자인 노력 없이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타일의 패턴을 만들어 벽체 마감을 하면 한국적 공간의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지붕에 사용하는 타일을 특별히 기와로 부른다. 지붕의 기와는 한국적 스타일을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한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문제는 기와를 지붕에 얹었을 때, 엄청난 중량이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중량을 지탱하기 위하여 한옥에서 고안된 구조시스템이 공포다. 공포는 육중한 지붕에 중량을 견디기 위하여 여러 개의 목재 부품을 조합한 구조시스템이다. 경제성에 입각해서 볼 때 사용되는 목조부품의 수를 줄이는 것은 공사비 절감과 직결된다. 기와 밑에 있는 흙도 지붕의 중량을 높이는 요인이다. 물론 기와 밑에 흙은 기와를 고정시키는 역할 외에 단열재로서의 기능도 한다. 지붕의 기와는 자연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부각되는 재료이다. 흑백대비에 의해 빛을

발하는 재료이다. 그러나 기와가 만드는 중량은 큰 단점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한옥의 현대화에서 지붕의 중량을 줄이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다. 기와의 중량을 줄이려면 기와 자체의 재료를 바꿀 수밖에 없다. 정통성이 있지만 시공 방법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통기와는 정통성이 있지만 중량이 무겁다. 그래서 전통기와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지붕의 중량을 줄이기 위하여 기와를 금속판으로 만들거나 고무기와로 만드는 것, 그리고 화산재기와로 만드는 등 기와의 현대화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또, 암기와와 수키와로 구분되어 있는 기와를 시공의 용이성을 위하여 암기와와 수키와가 일체화된 기와로 만드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옛날 전통방식의 재료가 아닌 현대화된 재료의 사용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한옥의 맛이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이것도 전통방식의 기와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현대화된 기와를 사용할 것인지가 한옥 현대화의 논란거리이다.

한옥 기와의 중량 문제가 있더라도 기와의 담백한 느낌과 기와의 지붕 곡선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기와의 재료를 바꾸면서도 기와의 품격을 손상시키지 않는 재료가 개발된다면 그것은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도 옛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 하는 이중적 욕망을 갖는다. 새로운 것에 의한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좀처럼 변하지 않으려는 모순적 속성을 보인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옛것에 대한 향수를 느끼면서 집착을 한다. 그저 해오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여하튼 무엇인가 사라져간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감정은 아니다. 사람은 하루하루 많은 것과 이별하는 연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 운명을 갖는다.



한국, 기와, 내소사

(3) 조명

(가) 한국의 빛

빛은 사물, 공간을 지각하게 한다. 빛은 불투명성과 연관되어 공간을 연출하고 사람들의 감성을 지배한다. 우리는 빛을 통하여 공간을 인지하며 지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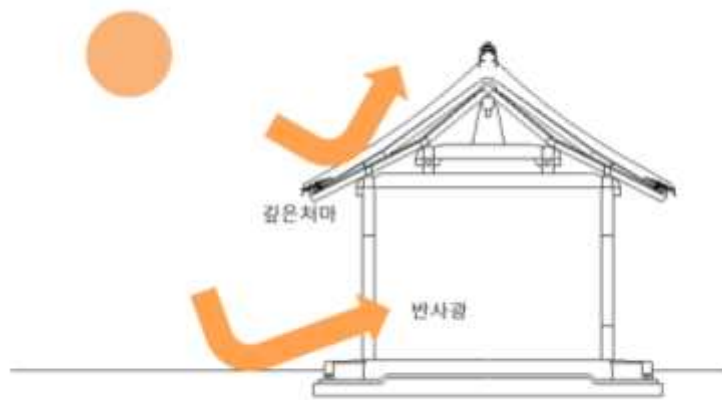
빛을 사용하는 방식이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얻은 중간 결론은 빛에 대한 명확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술의 발달에 의해 조명기기가 만들어 졌다. 그에 따른 조명기기의 도입으로 빛의 원리, 조명 방식 등이 유니버설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빛이 유니버설 하게 생각되고 있다면 한국의 빛은 없는 건가? 비록 빛을 사용하는 방식은 같더라도 빛이 만들어 내는 공간경험과, 빛이 받아들여지는 의미는 저마다 다를 것이다. 한국적인 빛과 공간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은 전통에 대한 빛의 이해일 것이다. 한옥의 빛과 공간, 그리고 공간 경험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어떤 지혜를 생활공간에 담았을까? 옛날의 생활방식을 복원하는 것은 현대인의 생활에 맞지도 않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현대 한옥에서 과거의 조명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서양의 조명기기와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모두가 답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대 한옥의 완성도를 노이기 위해서는 조명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빛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힘을 주는 요소이다. 인간은 빛을 통해 안정감을 얻는다. 빛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빛에 대한 관심은 미흡하다. 이에 따라 한옥에 어울리는 빛을 찾기가 어렵다.

(나) 간접 조명 VS 직접 조명

과거 한옥에서 빛을 사용하는 방식은 옛 선조들의 정신과 사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한국의 빛은 간결하고 소박하며 화려하지 않고 은은하다. 자연재료와 함께 어우러진 화려하지 않은 은은한 빛이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편안하게 만든다. 전통 한옥에서는 자연채광을 통한 간접광원이 중요하다. 조명기기가 없었던 과거 한옥에서는 햇빛을 생활공간에 이용하는 것이 전부였다. 따라서 햇빛을 고려하지 않은 한옥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한옥 마당은 조경을 최소화 하여, 마당에서 반사된 햇빛을 집안 내부로 투과시켜 실내 조명을 충족 시킨다. 간접조명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옥 내부공간은 은은한 빛으로 가득 찬다. 처마는 직사광을 차단한다. 긴 처마는 햇빛을 차단하는데 유리하다.

한옥의 창호지에 비친 햇빛은 어머니의 젖무덤과 같은 색으로 형용화 되어,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때문에 좋은 빛이다. 한지라는 재료적 물성만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빛이다.

한국적 빛을 보여주려면 원칙적으로 간접조명을 써야 한다. 빛을 받아들이는 데에 동서양의 사고방식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일사량이 부족한 서양의 사람들은 일광욕 즐기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 양산을 쓰는 등 서양인들과는 반대되는 행동양식을 갖는다. 간접광을 선호하는 것은 하나의 민족성인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한옥에서와 같이 마당의 빛만으로 현대 생활공간에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고 공간연출을 할 수는 없다. 천정 구조체를 활용한 간접조명 디자인을 한다든지, 창문과 창문 재료(창호 등)를 활용하여 투과 효과를 이용한 간접조명 등을 통해 조도를 높여야 한다. 그러나 간접조명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간접 조명을 이용한 공간 연출의 단점은 조도의 부족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현대한옥의 조명은 간접조명과 직접조명을 조화시킨 조명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마당에 반사된 간접광을 실내 공간에 이용

(다) 빛과 디자인 요소

빛은 스스로 드러나지 않는다. 빛은 구조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며, 재료, 문양, 그림자, 색채 등을 통해 부각된다. 따라서 빛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와의 관계를 통해 빛은 존재한다.

① 빛과 구조

구조를 감추는 빛도 있고 구조를 보여주는 빛도 있다. 구조가 아름다운 한옥은 구조를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옥은 수장재로 쓰인 나무를 집 밖은 물론 안에서까지 형태 및 질감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정직한 집이다. 한옥의 가장 권위적이고 상징적인 공간인 대청의 큰 대들보를 보여주는 것도 한국적 느낌을 보여준다는 시각에서 의미가 있다.와 통합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구조를 보여주기도 한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서까래의 구조도 구조미를 보여주는 조명의 대상이다. 한옥의 구조는 빛과 그림자의 음양 대비에 의해 구조미가 극대된다. 천장 구조를 드러내는 조명 연출 방법은 공간 사용자들의 관점에서 볼때 간접 조명 이다. 천장 구조의 노출은 부재의 상태를 알려주는 단초가 된다. 일부 부재가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부재를 교체하면 그만이다. 이에 비해 콘크리트는 그 내부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수가 없다 그래서 목조는 정직하다. 정직한 목조는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기에 유리 하다. 단순한 부재가 만든 복잡한 조립 형태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 건축의 한국성이다.

경주의 라궁과 가마 광주요는 천장의 구조미를 보여주는 조명의 예이다.



1	2
3	4
5	6
7	8
9	10

1. 창덕궁
2. 궁집
3. 궁집
4. 궁집
5. 임청각
6. 임청각
7. 상산관
8. 임청각
9. 드라마아
10. 임청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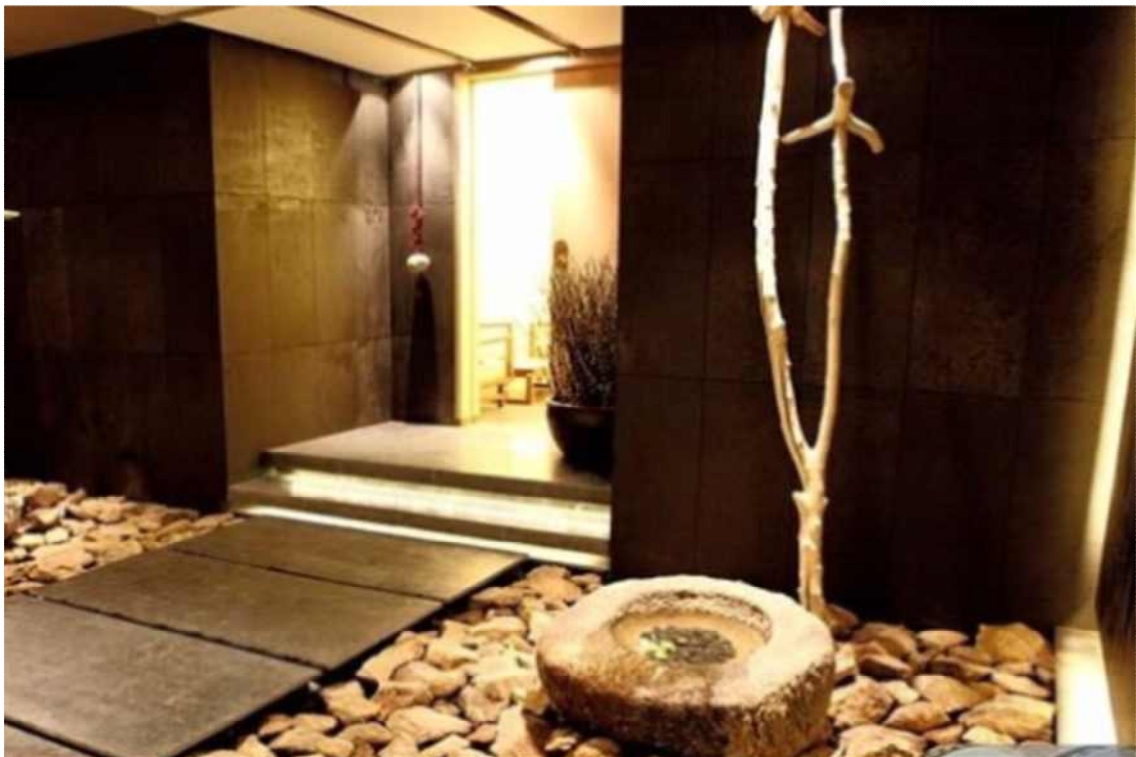
경주 라궁



가마 광주요

② 빛과 재료

빛은 재료의 질감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자연성을 강조하는 한옥에서 재료자체의 질감은자 중요하다. 한옥을 짓는데 사용된 자연재료는 인근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나무와 흙과 돌이었다. 지역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동서양을 떠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연 재료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느낌이 다르다. 같은 재료라 하더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르다. 자연 재료에는 분위기가 있다. 자연 재료에는 지나온 세월을 담고 있으며, 재료가 겪어 온 성장 배경의 흔적을 품고 있다. 이에 비해 인공재료는 세월의 흔적도 갖고 있지 않으며 문화를 풍부하게 담고 있지도 않다. 그저 대량생산된 많은 것들의 하나일 뿐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인공 재료에는 어떤 정신이 담겨있지 않다. 명화의 진품과 복제품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자연 재료와 인공재료의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자연재료는 다듬어지지 않아 거칠고 울퉁 불퉁하다. 자연 재료에 빛을 비추면 재료가 더욱 입체적으로 변한다. 재료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면 보여 줄수록 사람의 감각을 자극한다. 감각에 대한 자극은 기억의 체험을 제공한다. 공간의 기억과 체험을 만드는 것이 조명의 역할이다.



다담 한정식

많은 건축재료 중에서 한지는 신비스러우면서도 담담한 자극을 만든다. 담담한 자극은 인생을 관조하며 되돌아 보게 한다. 한지는 불투명한 소재이지만 빛을 받으면 빛을 투과하는 반투명의 매력적인 소재이다. 조명과 함께 장식적인 요소로 사용되기도 하며, 공간을 분할하는 파티션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백색의 소재를 선택하여 조명과 함께 연출한 담백함, 순수함, 질박함의 감성을 한지에서 엿볼 수 있다. 한지와 조명의 관계성은

현대 한옥에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불투명한 한지에 의한 간접 조명은 한국적 빛의 근간이다.



바리솔 조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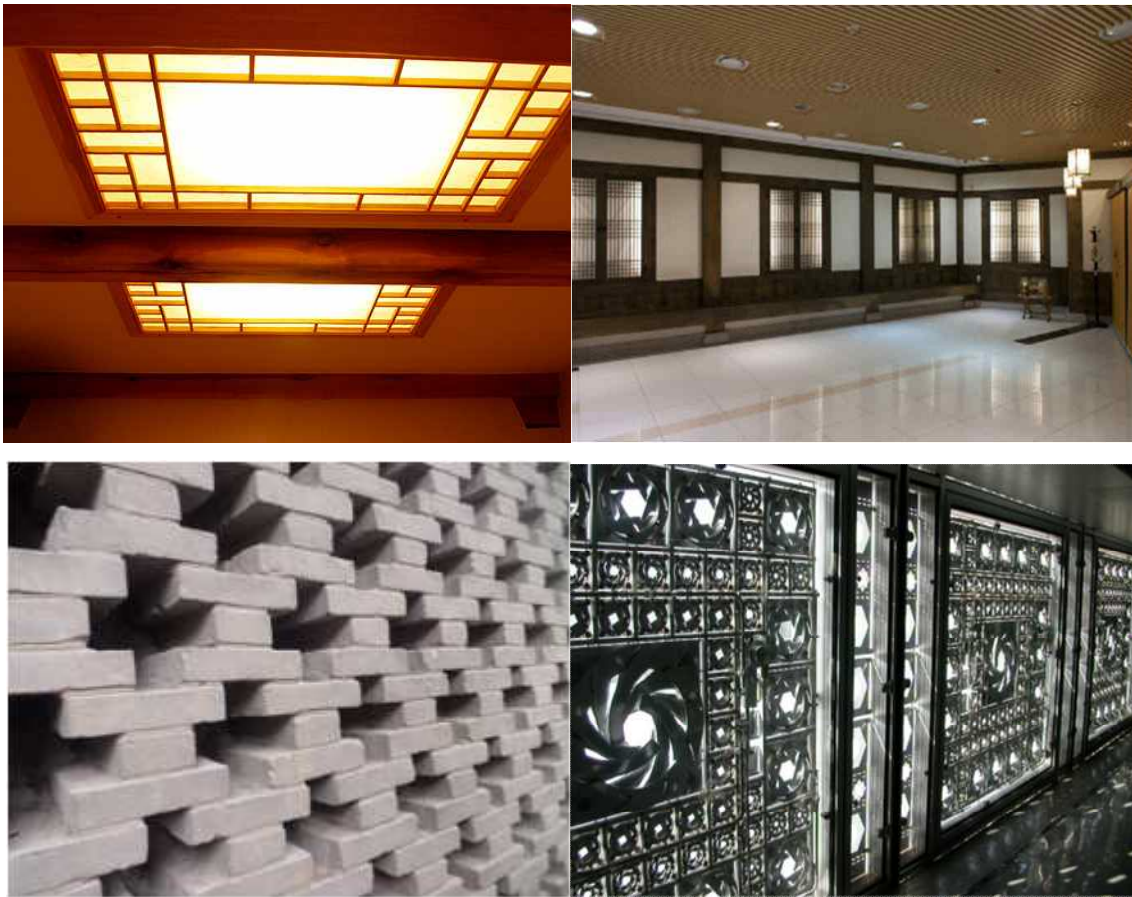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의 한옥이 간접조명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우리 건축에서만 간접조명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켄고쿠마의 memu meadows 는 일본 전통 민가의 형태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한 건축물로서 막 재료를 사용하여 집을 덮음으로써 빛과 열을 받아 들였다. 저녁에는 내부의 조명을 집 밖으로 내보낸다.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도 탈리아센 웨스트에서 지붕의 재료를 컨셉요소로 사용해 간접 조명을 연출 했다. 간접 조명은 눈에 편한 빛이다. 불투명한 재료에 의한 간접 조명은 우리 건축에서 중시했던 건축정신이다.



③ 빛과 문양

빛은 재질도 보여주지만 형태나 패턴을 보여준다. 한옥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창호 문양과 패턴들은 그 형태에 그림자의 음영을 더해 새로운 기하학적 상태를 만든다. 경주 라궁의 천장 조명 창살 패턴이 대표적 예이다. 양각의 창살은 빛에 의해 음영을 더해 그 문양을 더욱 강조한다. 공공장소 등의 넓은 공간에서는 때로 천장의 개구부를 이용하여 자연채광을 실내로 유입하기도 한다. 이때 개구부를 패턴 및 전통 문양을 이용하여 디자인한다면 전통미를 표출할 수 있다. 중국 자은사의 돌담 음각의 패턴의 음영에 의해 회화적 이미지를 만든다.

프랑스 아랍 문화원에서는 하이테크놀로지 소재로 된 조리개의 모양은 아랍을 느끼게 한다.



④ 빛과 그림자

빛이 물체에 닿으면 항상 물체는 반드시 그림자를 만든다. 빛과 그림자는 항상 함께한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시간성과 계절성 심지어는 존재감을 실감한다. 계절마다 햇빛의 고도는 달라지고, 빛이 들어오는 깊이도 달라진다. 처마의 서까래 문양은 시간에 따라 그 무늬가 달리 새겨진다.

한옥 역시 빛과 그림자의 향연이 있다. 형태를 투영하는 빛을 통하여 그림자는 회화 효과를 연출 한다. 자연물이어 투영되어 만드는 그림자 효과는 자연을 한옥의 내부로 끌어 들인다. 구조물 혹은 다른 물체들도 그림자를 연출 한다. 특히 우리 전통 건축의 지붕 서까래는 벽면에 그림자를 만든다. 문양은 한 시대의 문화를 압축하여 보여주는 아

이론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강력한 문양은 일차원적으로 또는 표피적으로 소통 능력을 갖는다.



임청각, 안동



ithuba school

그림자는 허상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실체로도 존재한다. 그림자는 부정적이면서도 긍정적이다. 우리의 관념 속에서 단순히 새각하듯 그림자는 부정적이지 않다. 예로 한여름 낮의 그림자는 시원함을 만들어주는 고마운 존재이다. 살아가면서 고통의 그림자가 있어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듯 건물의 그림자가 있어야 좋은 건축이다. 예를 들어, ithuba school의 지붕의 라인은 벽면에 그림자로 새겨져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외관을 시간에 따라 변형시켜 흥미로운 외관을 만든다. 한옥에서와 마찬가지로 처마의 곡선은 벽면에 회화를 만든다.



kloof 151(saota)



킨텍스

⑤ 빛과 색채

빛이 없으면 색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색채는 빛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색채는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다르게 변한다. 엄밀하게 어느 한 순간도 똑같은 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이 물결처럼 빛은 변하기 때문이다. 자연광에서 일정한 세기의 빛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색도 일관성있게 존재하는 색은 없다. 그러므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색채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보다 한옥 공간의 실내디자인에서 좋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자연 광원 하에서의 색채는 변하지만 인공광원하의 색채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연광원하의 색채가 인공 광원하여 색채보다 아름답다. 자연 광원에 의해 만들어 지는 빛과 그림자는 우리한옥의 미의 결정체다.



편강 한의원



물의 절, 다다오 안도

(라) 조명 기기

공간 연출을 위한 조명디자인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조도, 휘도, 색온도, 밀도, 높이, 방향의 6가지 원리가 있다. 조도는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정도이다. 휘도는 물체를 일정한 방향에서 보았을 때, 그 물체의 관측 방향에 수직인 단위 면적에 대한 밝기로서 눈부심의 정도와 관계가 있다. 색 온도는 광원의 색을 나타내며, 색온도가 낮을수

록 따뜻한 색이다. 밀도는 일정한 면적이나 공간 속에 포함된 광원의 뻗뻗한 정도를 말한다. 높이는 광원이 위치한 높이이다, 방향은 광원에서 나가는 빛의 말한다.

이러한 요소외에도 조명디자인 시 고려할 요소로서 광원의 방향, 빛의 방향, 조명기기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광원의 방향은 분산광, spot light 등으로 나뉜다. 빛의 방향성에 따라 상향, 하향, 수평으로 나뉜다. 광원의 종류는 형광등, 백열등, 할로젠, LED 등이 있다.

앞에서 각종 조명관련 디자인 변수는 쾌적한 실내 조명 환경을 만드는데 있어 중요하다. 그러나 실내 공간의 미학적 측면과는 거리가 멀다. 조명에 관해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공학적 측면이 아닌 미학적 측면이다. 그래서 조명기기 자체의 디자인에 관심이 많다. 조명기기는 미적 측면 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중요하다. 그래서 조명기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조명기기를 잘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선택할 수 있는 조명기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명기기는 많지만 한옥에 잘 맞는 현대화된 조명기기가 거의 없다. 그래서 대량생산된 개성 없는 조명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조명기기가 공간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조명은 중요하다.

(마) ISSUES

기본적인 현대의 한옥 공간에 조명 연출 방법을 제안해 보았지만, 그 방법과 효과는 더 다양하게 존재할 것이다. 한국의 빛에 대한 정체성을 찾는 일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이슈를 던져볼 수 있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시해 볼 수 있다. 과연 원하는 조명 연출 효과를 위한 기술적인 부분은 충분한가? 조명 디자인은 공간과 빛의 관계 외에도 조명기기 자체가 가구로써 의미를 가질 것인가? 한지 창호와 같은 재료의 특성을 가진 다른 재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것들은 한지와 비교해서 경쟁력을 가질 만한가? 한국성을 가지는 조명 디자인 컨셉으로 어떤 것들을 제시해 볼 수 있는가? 한국인의 경험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조명 디자인 아이디어를 기대해 본다.



1	2
3	4
5	6
7	8
9	10

- 1.서울
- 2.시안
- 3.서울
- 4.시안
- 5.시안
- 6.시안
- 7.서울
- 8.서울
- 9..서울
- 10..시안



1	2
3	4
5	6
7	8
9	10

- 1.서울
- 2.서울
- 3.서울
- 4.서울
- 5.시안
- 6.서울
- 7.서울
- 8.서울
- 9.서울
- 10.서울

(4) 패턴(문양)

패턴은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는 형태이자 이미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패턴에는 한 집단의 의식이 내재되어 있으며 집단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패턴은 구성원들이 받아들인 것이어서 지속성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즉, 패턴은 문화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패턴은 집단을 대표하는 소통도구인 것이다. 그래서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은 패턴을 즐겨 사용하려 든다. 왜냐하면 패턴이 강력한 소통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 ANTHROPOLOGIE 매장 쇼윈도우>

뉴욕에 위치한 ANTHROPOLOGIE 매장의 쇼윈도의 경우 크기가 다른 반복적인 원형 패턴을 사용하여 쇼윈도우를 꾸몄다. ANTHROPOLOGIE 매장은 패턴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 그 매장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하지만 패턴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슈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옥을 현대화 시키는 방안 중에 패턴을 사용하는 방법이 전통 그대로의 패턴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현대적이게 맞게 재해석, 추상화하여 패턴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패턴을 그대로 가져와 유사하게 사용할 경우 예전과 현대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패턴을 표피적이고 감각적으로만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옛날의 패턴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졌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패턴의 재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재해석이 필요하다. 현대적인 재해석은 현대인들에게 맞는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한다. 하지만 원래의 의미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전달되어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만들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패턴의 적용과 관련하여 어떤 접근이 옳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장단점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것을 그대로 가져오기 보다는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공간에 적용하는 방법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음악의 경우에서 이러한 접근은 그대로 적용된다. 리메이크는 그 시대에 맞게 음악을 재해석하여 바꾸는 것이다. 그 시대의 감각으로 재해석하기 때문에 현대인들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현대 한옥도 현대인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전통을 고집하기 보다는 재해석 과정이 필요하다.



패턴들이 현대 공간에 적용된 사진들이다.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해 접근한 좋은 예이다. 뉴욕 ANTHROPOLOGIE 매장 안의 사용된 패턴은 공간 안에 공간감을 부여하고 시각적인 효과를 준다. 왼쪽 사진은 뉴욕 MOMA 미술관의 전시관 안에 전시된 벽면을 패턴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패턴으로 인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전통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공간에서도 패턴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패턴은 기하학적 패턴(Geometric Pattern)과 구상적 패턴(Figure Pattern)이 있다. 기하학적 패턴은 직선, 사선, 곡선 등을 포함하며 구상적 패턴은 사물을 대상으로 한다. 사물을 초월한 기하학적, 추상적인 패턴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연꽃, 나비와 같은 구상적인 패턴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하학적, 즉 추상적 패턴을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징적인 측면보다는 심미적인 측면에 초점을 더 맞춘다. 반면, 두 번째의 경우는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존재 사물을 단순화 시켜서 장식적 요소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구상적 패턴에는 상징성이 있다. 예를 들면, 나비는 부귀영화, 거북이는 장수를 상징한다. 이와 같이 구상적 패턴은 심미적인 측면보다는 상징적인 측면이 강하다. 한옥 디자인을 하는데 패턴을 어떻게 공간에 적용 하는 것이 좋을까는 중요한 이슈이다. 기하학적 패턴만을 사용할 것인지, 구상적인 패턴만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패턴을 혼용 하여 사용할지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 중국, 일본에는 창호, 바닥 등 모든 공간에서 패턴을 찾아 볼 수 있다. 나라마다 고유의 패턴이 있다. 패턴은 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도구이다. 이러한 점에서 패턴의 사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다음 장의 사진들은 한국과 중국의 패턴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기하학적 패턴과 구상적 패턴을 모두 갖고 있다는 것은 한중일 패턴의 공통점이다.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동물과 식물 자연에 존재하는 사물에서 패턴을 만들었다는 점은 자연을 중시하는 한중일의 사고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삼국의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다른 점이 많이 있다. 한국의 패턴은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정교하거나 절제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반면 중국은 중화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화려하고 복잡한 이미지를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색채의 사용에서도 동일하다. 한국과 일본에 비해 중국은 색채도 명도와 채도가 높다. 그래서 원색을 많이 사용한다. 기하학적 문양도 중국의 것은 한국의 것보다 좀 더 복잡하고 화려하다. 한국의 경우는 패턴이 일관성이 있고 절제 되어 있는 반면 중국의 패턴은 다양하고 일관성 있는 패턴이 아니다. 일본 역시 한국과 비슷한 패턴의 형태를 지닌다. 중국의 경우 크게 기하

학적 문양과 구성적 문양으로 나눈 후 기하학적 문양을 동물적 문양과 식물적 문양으로 분류하였다. 한국의 경우 Page8에서 용인 MBC 드라마아의 벽에 사용된 꽃 패턴과 기와 장식 문양을 보면 Page6에서 중국 시안의 홍경궁에 사용된 천장 패턴과는 사뭇 다르다. 한국의 경우 절제된 문양과 장식을 사용하는 반면 중국의 경우는 패턴과 색채과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굉장히 화려한 경향이 있다. 창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page9의 창덕궁 난간에 쓰인 모양과 page7의 중국 시안 화청지에 있는 창호의 패턴과 비교해보면 이와 같은 차이를 한 번 더 알 수 있다.

문양은 어떤 요소들보다도 사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패턴에 문화적인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쉽게 사용하는 디자인 요소이다. 문이나 창은 자연의 공간과 인간의 공간을 나누는 역할을 하면서 외부의 요소를 내부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지만 패턴의 경우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문과 창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내부를 보여주는 시각적인 역할을 한다. 패턴의 기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람들을 시각적으로 자극한다는 점이다. 패턴은 압축된 형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는다. 패턴은 문화적 아이콘인 것이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인간은 사물을 단순화 하고 패턴화 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패턴의 적절한 사용은 공간을 돋보이게 하느냐, 아니면 공간을 돋보이지 않게 하느냐를 결정짓는다. 패턴은 어떤 특정한 부위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다. 패턴은 기둥, 담장, 서까래, 벽, 기와 등에 사용될 수 있어 사용범위는 무한한 것이다. 현대한옥은 문양으로만은 장식적 측면을 충분하게 발휘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화된 패턴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음의 사진들의 사례는 패턴과 패턴이 담긴 공간은 현대화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것들이다. 패턴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 있고 단지 인테리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 건축, 시각 매체, 제품 등 다방면에서 사용되고 있다. 최근 한옥은 사라지고 있고 이보다 더 아쉬운 점은 한옥에 담긴 우리의 정신도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한옥에는 우리 조상의 지혜와 문화가 담겨 있고 역사가 숨 쉬고 있다. 이런 한옥이 사라져 가는 것은 아쉬운 일이며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한옥을 현대에 맞게 현대화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은 필요한 것이다.



1	2
3	4
5	6
7	8
9	10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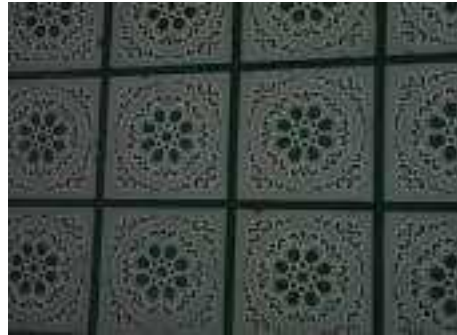
1. 기와
2. 용 형상
3. 계단
4. 기둥
5. 난간
6. 지붕
7. 동물 문양
8. 용 문양
9. 도깨비
10. 주나라



1	2
3	4
5	6
7	8
9	10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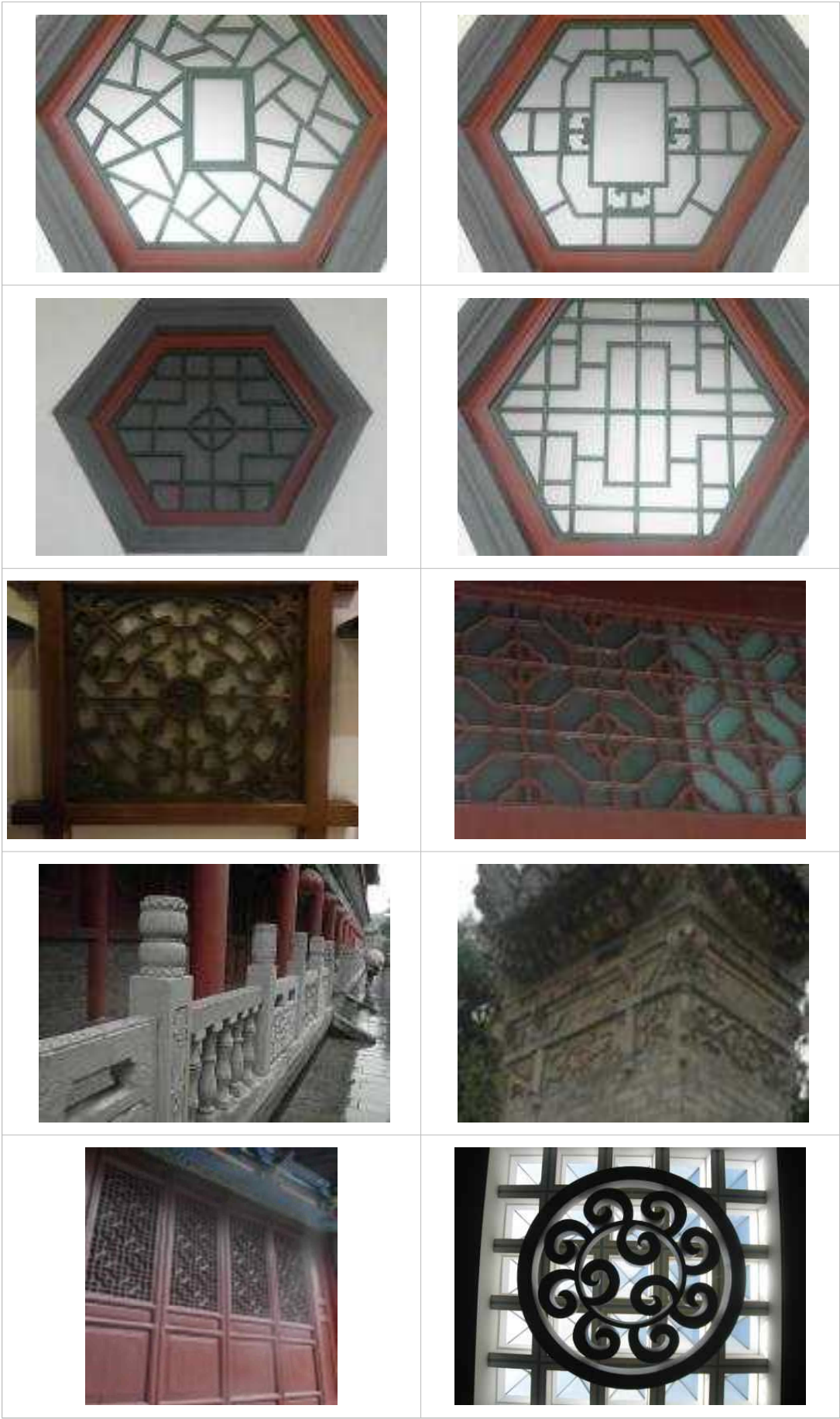
1. 벽
2. 꽃문양
3. 꽃문양
4. 벽
5. 문양
6. 도자기
7. 난간
8. 구름난간
9. 구름기둥
10. 장식



1	2
3	4
5	6
7	8
9	10

중국

1. 창호
2. 창문
3. 천장
4. 천장 장식
5. 궁궐 장식
6. 궁궐 장식
7. 궁궐 장식
8. 외부 장식
9. 외부 장식
10. 외부 장식



1	2
3	4
5	6
7	8
9	10

중국

- 창호 문양
- 창호 문양
- 창호 문양
- 창호 문양
- 창호 문양
- 창호 문양
- 외부 문양
- 외부 문양
- 외부 문양
- 외부 문양



1	2
3	4
5	6
7	8
9	10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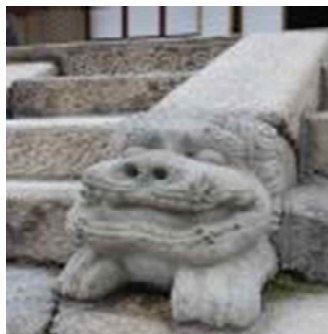


1. 처마
2. 창호
3. 지붕
4. 장식
5. 장식
6. 장식
7. 벽
8. 기와
9. 기와
10. 기와



1	2
3	4
5	6
7	8
9	10

한국



1. 장식
2. 장식
3. 외부
4. 외부
5. 기와
6. 기와
7. 외부
8. 외부
9. 용 문양
10. 창호 문양

(5) 창호

사람의 얼굴과 같은 것이 건물의 외관이며 입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입면은 사람들에게 첫 인상을 주는 요소이며 사람들이 처음 접하는 공간 요소이기도 하다. 건물의 전체 이미지를 다루는 건물의 입면은 미적인 측면에서 무척이나 중요하다. 건물의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창호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 할 것이다. 창호는 이처럼 건물이미지에 특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건물의 스타일을 만든다. 이러한 창호가 차지하는 위치 때문에 현대 한옥에서도 창호는 무척 중요하다. 한옥답게 보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전통 창호의 차용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창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현대한옥을 한국적으로 보이기 위하여 사용 되는 창호에서 창호의 패턴은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한옥의 현대화에 있어서 창호는 사람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는다. 하지만 한스타일의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이너들이 창호의 패턴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 없이 그저 단순하게 생각해서 차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수 도 있다.

사람들이 창호에 주목하는 이유는 창호가 한옥의 디자인 원리가 깊은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창호는 틈새가 많아 바람이 통하는 창호였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 있어서의 창호는 기밀성을 중시하게 되었다. 기밀성이 확보되었을 때 실내의 공기를 보다 쾌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한옥에서 기대하는 것은 편안함과 편리함이다. 한옥에서 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의 답변 중에는 한옥이 겨울에 추워서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밀성에 대한 연구가 한창이다. 사람들은 창에 기능으로 기밀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사비를 증액해야하는데 창호의 두께도 이중창을 하다 보니 늘어 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창호의 두께가 늘어나는 것은 실내공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창호의 기밀성을 확보는 과정에서 이야기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는 것들이 많이 논란이 된다. 창호의 개발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창호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내려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창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창은 사람들에게 전망을 선사한다. 창은 내부공간과 외부 공간 사이에 있는 완충공간으로서 공기는 막으면서 빛은 투과시키는 기능을 한다. 창은 사람들에게 미감을 주는 장식적 또는 시각적 기능을 제공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창에 기능인 것이다.

창은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연결하는 역할이 있다. 창은 프레임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보는 시선을 좌우한다. 건물 바깥에서 창을 통해 내부를 들여 보기도 하지만 안에서 바깥을 내다보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창은 이러한 점에서 양방향의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

미학적 측면에서 보면 창 패턴은 중요하며 창 크기도 중요하다. 창 재료 역시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미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적 측면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중요할 것이다. 어떤 창살 패턴의 창호를 쓸 것인지 어떤 재료의 창호를 써야 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는 한옥의 현대화에 주요 이슈이다. 또 다른 이슈는 전통 창호에 패턴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변형 또는 재창조해서 사용할지에 대한 것도 이슈가 된다.

(가) 동, 서양 창 의 기능

동, 서양의 창 의 기능이 차이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나 스스로 던져 본다. 건물의 개구부로서 통풍이 되고 채광을 하고 조망을 할 수 있게 하며 건물에 조형성을 결정짓는 것으로서 동양과 서양은 별반 차이가 없다. 서양의 스테인드글라스가 외부와의 차단을 고려하여 만들어 졌다면 우리의 한지도 외부와의 시각적 차단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외부공간과의 단절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모두 똑같이 충족시키면서도 창을 만드는 제작방법만 달랐던 것이다. 창 의 종류를 따져보면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다. 문양을 사용한 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창호의 차이는 문화적 특성을 보여주는 문양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동서양의 차이는 문양에서 발견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서양을 구분 짓는 문양이 요즘 시대에 들어 차이가 없어졌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산업혁명이라는 사건이 합리성과 근대성 나아가서는 대량성과 경제성을 표방하며 획일화시켰기 때문이다. 어떠한 사람들은 문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과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창호에서 사용해 왔던 문양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성의 논리에 의해서 주도되는 이 사회의 문제는 개성화의 문제가 생긴다. 현대사회는 대량생산을 위해 표준화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온 것이다. 요즘의 창호가 과연 진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예전의 창호에는 장인 정신의 숨결이 느껴진다. 그러나 현대의 창호에서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안타까움이 있다.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고 약식으로 처리하다 보니 그 깊이가 얕아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문화의 발전은커녕 문화는 퇴보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물이 투명하면 물고기가 살 수 없다는 흔한 말이 있다. 모든 장식적인 것들을 없애고 단순하게 만든다면 그러한 세상은 삭막하고 획일화되고 재미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옛날 고유의 스타일을 갖는 창호가 사라지는 것도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풍부한 장식이 우리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점차 소울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예전의 인간에 손길이 느껴지는 창호의 문양이 점차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한다. 현대화라는 사명아래 동양과 서양의 창이 모두 동일해지는 것에 대해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동서양이 갖고 있었던 창호문양의 형태의 차이는 앞으로 우리가 지속 발전 시켜야 할 것 이다. 단적으로 말해 동양과 서양에 있어서의 창 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다. 단지 상징적 장식적 특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문양의 차이가 크게 존재할 뿐이다. 창호의 문양은 문화의 정체성이고 차별성이며 서로 다른 문양의 창은 우리들의 삶을 풍족하게 한다.

한국과 서양의 차이를 이야기한다면 내부에서 외부로 바라보는 방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창밖 뉴욕’이라는 책을 보면 뉴욕커 63인이 바라보는 다채로운 풍경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창은 꿈 꿀 수 있는 뼈대를 제공한다.

“사람은 하늘이며 나무 정원 보도를 걷는 사람까지 내 창에는 일상의 풍경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담겨 있다. 길 건너 브라운 스톤은 우리 집을 거울에 비춘 듯 거의 똑같이 생겨 마음 놓이는 쾌적한 방실로 허영심을 채워준다” 커트앤드선

“내방 창밖 경치는 뉴욕사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창을

통해 타인의 창을 들여다본다. 우리 삶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과도 같다” 데이비드 번

“우리는 도시사람이라 도시의 삶이 꽤 중요하다 그렇지만 나무와 조용한 마당 가을의
빛깔 명절의 불빛 봄의 기색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경치가 도시의 활기에 편안한
대조를 선사한다. 무엇보다도 빛 그것도 많은 빛이 깃든 풍경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프레드로블리

뉴욕커63인이 바라보는 다채로운 풍경은 창을 통해서 보이는 일차원적인 풍경에 가
깝다. 그러나 한국의 창에서는 뉴욕커가 보는 창 의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것이 있음을
보여준다. 창을 통해 우리가 보는 방식은 공간에 깊이감과 중첩성이다. 창밖으로 내다보
는 풍경은 다른 창을 개구부를 보여주고 그 개구부를 통해 건물이 보이고 또 그 건물의
개구부를 통해 또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창을 통해서 바라보는 풍경은 전체를
다 보지 않고 일부분을 보여주고 부분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신비로움을 더하는 방식이
다. 창 의 외부와의 관계는 시각적으로만 끝나지 않고 한지와 같은 재료를 사용하므로 서
외부공간의 청각 세계까지도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은 다른 서양의 창에 대한 이해와 다르
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창이라는 외관적인 형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지라도 풍경에
대한 체험은 동서양이 확연하게 다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동 서양창의 차이이다.



한국전통건축의 입면 (돈암서원_논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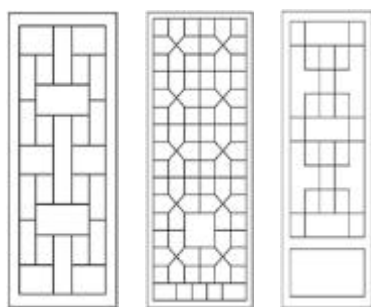


서양건축의 입면 (샌프란시스코 Grace Cathedral)

(나) 한국 창살의 대표적 특징

① 조형성 : 기능, 상징, 미의 조화/ 여유와 다채로운 변화

한국인의 창호에 대한 감각은 어느 민족보다 예민하였다. 창은 채광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창살의 구성에서 시원스럽게 바라보는 운치를 추구하였다. 창살 모양에 따라 바라다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기며 방마다 창살의 무늬를 다르게 하였던 것은 이런 변화를 즐기려는 정서의 발로였다. 한국의 창호 틀에 있어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아무리 복잡하게 전개한 변형일지라도 그 중심부에 살 없는 시원한 공간을 한두 군데 설정하여 여백과 변화의 아름다움을 살려내고 있다.



숫대살

귀갑살

아자살



정온선생고택

유교성향이 강했던 한국의 창살은 기하학적인 패턴을 통해 공, 무를 표현하였으며 이 패턴은 규칙적이면서도 다양한 형태를 보여준다. 서양은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하여 구체적인 인물중심을 창에 표현하였으며 있음을 표현한다.



윤증고택 사랑채 _ 띠살과 정자살의 문양이 겹치면서 새로운 조형성을 보여준다.



GraceCathedral_ 디테일한 이야기가 풀어있는 서양 창

② 상징성 : 구복(求福)으로서의 창살 문양

창호는 흔히 바깥쪽의 여단이는 띠살로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안쪽의 미단이는 ‘아자살’, ‘완자살’, ‘용자살’, ‘숫대살’, ‘귀갑살’ 등의 다양한 무늬의 살이 사용된다. 이러한 살무늬는 천일, 지이, 인삼 등 삼극의 도형적 기호를 기초로 하여 인간의 수복강녕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 전통 창살의 대표적 형태	면의 변형					
		띠살	빗살	숫대살	귀갑살	꽃살
	글자의 차용					
		정자살	용자살	완자살	아자살	귀자살



미살_ 윤증고택



숫대살_윤증고택



정자살 _ 윤증고택



꽃살_창덕궁



아자살_창덕궁



완자살_창덕궁

③ 자연과의 조화, 내면화

자연의 한 자락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집을 짓고 살았던 한국인들은 집의 구조도 안을 중심으로 꾸며지고 있다. 중국의 창이 밖에서 창호지를 바르도록 되어 있는데 반하여 한국의 창은 안에서 창호지를 바른다. 방 안은 앉은 사람의 시선으로 집의 방향이 주어지고 방 안을 단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의 주인이 창을 열고 밖을 보든지 문을 열고 나가면, 잘 다녀진 마당이 나오고, 마당의 담 너머로 멀리 들과 강이 보이며, 후원의 경우에는 언덕과 뒷산으로 이어진다. 대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개인의 정서적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동양인의 이상이 집의 창호 속에서도 그대로 구현되고 있다.



윤증선생고택

다. 연구개발결과

(1) 색채

(가) 한중일 전통색 비교 결과



한국전통표준색은 특히, PB(Purple Blue), P(Purple), RP(Red Purple)계열의 색상군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앞장에서 보여준 국립현대미술관의 한국전통표준색 90선을 기반으로 개발한 색채팔레트가 <현대한옥 실내디자인 색채팔레트>⁷⁾이다. 공간의 적용성을 고려해 채도를 낮춘 색상들이 많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 <현대한옥 실내디자인 색채팔레트>와 <한국전통표준색 팔레트>에서 차지하는 색상 계열의 비율은 거의 일치하며, 현대 한옥 실내디자인 색채팔레트에서도 한국 전통색의 색상 비율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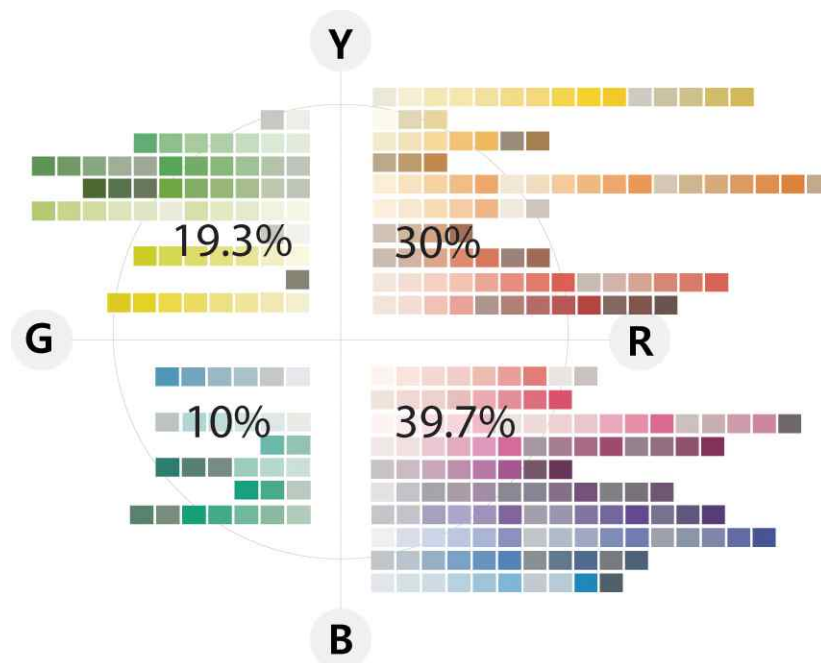
(나) 현대한옥을 위한 실내디자인 색채팔레트

7) 1992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연구 발간한 ‘한국전통표준색 90선’을 토대로 개발되었다. : 이현수 . 심민경, 현대한옥 실내 디자인 색채팔레트 개발에 관한 연구, 디자인융복합학회, 2012.6, 34호

8) 이현수 . 심민경, 현대 한옥의 실내색채 적용을 위한 배색코드 개발, 디자인융복합학회, 2013.8.



현대한옥을 위한 실내디자인 색채팔레트 300



현대 한옥 실내디자인 색채팔레트 300색의 계열별 색상 분포

(다) 현대한옥의 실내디자인 배색

개발된 색채팔레트를 활용하여 배색을 하면, 한국적 색채의 특성을 내재적으로 담

을 수 있다는 것이 전통색채의 현대화에 대한 근거이다. 이러한 색채팔레트만 제시하여도 색채의 배색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색채 전문가가 아니라면 색채의 배색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생각에서 색채팔레트의 실용성을 고려한다면 스타일별 배색코드를 제안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5가지 스타일별(‘격식있는’, ‘고상한’, ‘전통적인’, ‘조화로운’, ‘화려한’, ‘현대적인’, ‘담백한’, ‘정적인’, ‘은은한’, ‘편안한’, ‘자연의’, ‘단아한’, ‘온화한’, ‘맑은’, ‘상쾌한’) 배색코드를 개발하였다. 본서에 담은 배색코드는 하나의 예시로서 참고 이미지로 활용하면 좋다. 제안된 배색코드 외에도 무수히 많은 배색코드가 있을 수 있다.

전통적인 Traditional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규범(전형)으로 간주되는

이 미 지	배 색 코드
	\$ 1515-Y10R \$ 1505-Y10R \$ 2020-G90Y
	\$ 2005-Y70R \$ 2005-B80G \$ 2010-B90G \$ 2020-Y70R \$ 2020-B60G
	\$ 1005-R90B \$ 1005-Y20R \$ 1005-Y \$ 1005-G90Y \$ 5025-G10Y \$ 5025-R40B \$ 5025-R50B \$ 5025-Y90R
	\$ 1010-R30B \$ 1010-G10Y \$ 1010-G40Y \$ 1010-G80Y \$ 1010-Y80R \$ 1010-Y40R \$ 1010-Y90R \$ 1010-R10B \$ 1010-R20B \$ 1050-Y80R \$ 1040-Y40R \$ 1040-R10B \$ 1040-R1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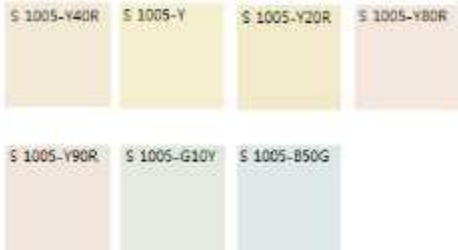
현대적인 Modern

새 유행의, 시류에 맞는, 오늘날의

이 미 지	배 색 코드
	S 9000-N S 1002-R50B S 1002-G50Y S 5005-R30B S 5005-G60Y S 2002-B50G S 2002-G50Y
	S 2040-B S 2040-R60B S 2040-R80B S 1510-R90B S 1560-R90B S 2002-B S 2020-B S 2040-B
	S 4050-R80B S 4050-R50B S 5020-R80B S 5020-R40B S 5020-R50B S 0300-N S 4005-Y20R S 4005-R80B

담백한 Plain

1.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하다
2. 아무 맛이 없이 싱겁다
3. 음식이 느끼하지 않고 산뜻하다

이 미 지	배 색 코드
	
	
	

은은한 Subdued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아니하고 어슴푸레하며 흐릿하다

이 미 지	배 색 코드
	S1010-G10Y S1010-R20B S1010-Y80B S1002-Y50R S2002-Y50R S1002-Y50R S2005-Y40R S2002-Y30R S2002-Y
	S1005-Y90R S1005-G10Y S1005-B50G S0804-R70B S2002-B S1005-Y90R S1005-G10Y S1005-B50G S2002-B50G
	S 1005-G40Y S 1005-R30B S 1005-G40Y S 1020-G40Y S 1040-G40Y

격식있는 Formal

틀(을) 차리다. 일정한 격식이나 형식을 갖추다

이 미 지	배 색 코드
	S 1005-Y20R S 4005-Y20R S 8010-Y90R
	S 5005-G80Y S 1002-G50Y S 1005-Y80R S 3050-Y90R
	S 1005-Y20R S 1020-Y20R S 1040-Y20R S 2020-Y40R S 2020-Y S 2020-Y60R

고상한 Elegant

1. 품위나 몸가짐이 속되지 아니하고 훌륭한
2. 신분이 높은, 상류층의, 고귀한
3. 품격높은, 우아한, 고급의

이 미 지	배 색 코드
	S 2005-Y60R S 2010-Y60R S 2020-Y60R S 4020-Y60R S 2005-Y70R S 2020-Y70R S 1005-Y40R S 1020-Y40R
	S 2020-Y S 1005-Y S 1005-R90B S 2002-Y
	S 0500-N S 9000-N S 5005-G80Y S 5010-G30Y S 0050-Y90R S 1060-Y30R

조화로운 Harmony

서로 잘 어울려 모순됨이나 어긋남이 없음. 어울림

이 미 지	배 색 코드
	S 2010-G30Y S 5010-G30Y S 2002-R50G S 2002-G50Y S 2005-G30Y S 2020-G30Y S 2040-G30Y
	S 4005-Y20R S 4020-R50B S 1002-G50Y S 1002-R50B S 2002-G50Y S 2002-R50B
	S 2005-R20B S 2005-R40B S 2005-R60B S 0505-R20B S 1005-R20B S 2005-R20B S 6005-R20B S 2005-B80G S 2005-R20B S 2015-Y40W S 2005-Y60R

화려한 Gorgeous

환하게 빛나며 곱고 아름다운

이 미 지	배 색 코 드
	S 2005-Y70R S 2005-B80G S 2010-B90G S 2020-Y70R S 2020-B60G S 2020-B90G S 2040-Y90R S 2040-B70B S 2040-B80G
	S 1050-Y80R S 2005-Y80R S 2010-Y80R S 2020-Y80R S 1020-Y90R S 3020-Y90R S 3020-Y90R
	S 3010-Y90R S 3030-Y90R S 3050-Y80R S 4010-R30B S 4020-R30B S 4030-R30B S 4040-R30B

정적인 Calm

1.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하다
2. 아무 맛이 없이 싱겁다
3. 음식이 느끼하지 않고 산뜻하다

이 미 지	배 색 코드
	\$ 1005-R90B \$ 1040-R90B \$ 2020-R80B \$ 4020-R80B \$ 9020-R80B \$ 2002-B \$ 2020-B \$ 2040-B
	\$ 2005-Y80R \$ 2005-G20Y \$ 2005-B80G \$ 2010-R60B \$ 2010-R20B \$ 2010-R80B
	\$ 2005-G20Y \$ 2020-G20Y \$ 2040-G20Y \$ 2010-G30Y \$ 9010-G30Y

편안한 Cozy

긴장을 풀어주는, 안락한

이 미 지	배 색 코드
	\$ 1010-B50G \$ 1010-Y20R \$ 1010-Y40R \$ 1010-Y80R
	\$ 0300-N \$ 1005-R90B \$ 1020-R90B
	\$ 1002-Y50R \$ 2002-Y50R \$ 1010-Y90R \$ 3010-Y90R \$ 5010-Y90R \$ 6010-Y90R

자연의 Natural

천연, 자연 그대로의, 가공하지 않은

이 미 지	배 색 코드
	\$ 2010-Y80R \$ 2010-G20Y \$ 2010-B90G
	\$ 1010-G10Y \$ 1010-G40Y \$ 1010-B70G \$ 1020-G10Y \$ 1020-G40Y \$ 1020-B70G
	\$ 1010-R70B \$ 1010-Y \$ 1010-G90Y \$ 1010-G40Y

단아한 Graceful

단정하고 아담하다

이 미 지	배 색 코드
	\$ 3050-R70B \$ 1505-Y10R \$ 1020-G10Y \$ 1060-R10B \$ 1005-Y40R
	\$ 4010-B70G \$ 4010-Y70R \$ 0505-Y40R \$ 1005-Y40R \$ 2005-Y40R
	\$ 2005-G20Y \$ 2005-R60B \$ 2005-R40B \$ 2005-R2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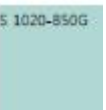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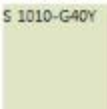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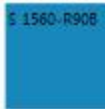
온화한 Mild

1. 날씨가 맑고 따뜻하며 바람이 부드럽다
2. 조용하고 평화롭다

이 미 지	배 색 코드
	S 0530-G40Y S 0530-G70Y S 1020-Y40R S 1020-Y S 1020-Y20R
	S 0530-Y50R S 0530-Y40R S 2002-Y50R S 2002-Y80R
	S 1515-Y10R S 1505-Y10R S 2020-G30Y S 0300-N

맑은 Pure

1. 잡스럽고 탁한 것이 섞이지 아니하다
2. 구름이나 안개가 끼지 아니하여 햇빛이 밝다

이 미 지	배 색 코드
	  
	  
	   

경쾌한 Cheerfu

움직임이나 모습, 기분 따위가 가볍고 상쾌하다

이 미 지	배 색 코드
	\$ 0300-N \$ 9000-N \$ 3050-Y90R \$ 1050-Y \$ 3050-R70B
	\$ 3050-Y90R \$ 2040-R40B \$ 2040-R60B \$ 2040-B70B
	\$ 1005-Y20R \$ 1020-Y20R \$ 1040-Y20R \$ 1050-Y \$ 1050-Y40R

(2) 재료

현대적, 전통적 건축적 재료들을 소재별, 건축요소별로 분류하고 재료를 제안한 것이 본 연구의 독창성이다. 인테리어 계획 시 사용 근거가 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소재 별 분류				
유기질계 재료	목질계 재료		침엽수재, 활엽수재, 패널, 합판, 판자 등	
	섬유계 재료		커튼, 가구커버, 벽지, 카펫 등	
	고분자계 재료		고무, 플라스틱, 아스팔트, 도료, 비닐 등	
무기질계 재료	금속계 재료		철강계재료	스틸, 철 등
			비철금속계 재료	알루미늄, 청동, 황동, 구리 등
	비금속계 재료		석질계 재료	석재, 인조석 등
			시멘트계 재료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 콘크리트제품 등
			점토소성계 재료	흙, 점토벽돌, 기와, 타일, 도자기 등
			유리계 재료	판유리, 유리블록, 유리섬유 등
			미장마감계 재료	플라스터, 모르타르, 점토등

	재료	바닥	벽	기둥	천장	계단	문	창	가구
목질계	침엽수재	○		○	○				
	활엽수재	○	○	○	○	○	○	○	○
	패널		○		○		○		○
	합판		○		○		○		○
	직접								○
섬유계	합판지	○							
	벽지		○		○				
	직접지		○		○				○
고분자계	고무					○			
	플라스틱					○	○	○	
	아스팔트								
	도료		○						
	비닐	○					○	○	○
철강계	스틸						○	○	
	철						○	○	
비철금속계	알루미늄						○	○	
	청동								
	황동								
	구리								
석질계	석재	○	○			○			○
	벽돌								
	타일	○	○						
시멘트계	시멘트		○						
	모르타르								
	콘크리트								
점토소성계	흙	○	○		○				
	점토벽돌								
	기와		○						
	직접	○	○						
	타일								
유리계	판유리		○				○	○	
	유리블록								
	유리섬유								
	유리블록								
미장마감계	플라스터		○		○				
	모르타르								
	점토		○		○				

건축 요소별 분류



한국, 벽과 바닥에 적용된 목재, 부어룻테리조트



목재가 적용된 공간 사례

목재





한국, 한지, 2011 서울리빙디자인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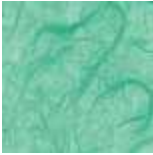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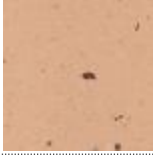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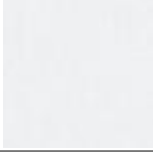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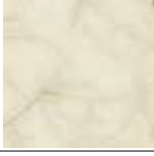


한지가 적용된 공간 사례

한
지



한 지						

한 지						
						
						
						
						
						
						
						
						
						

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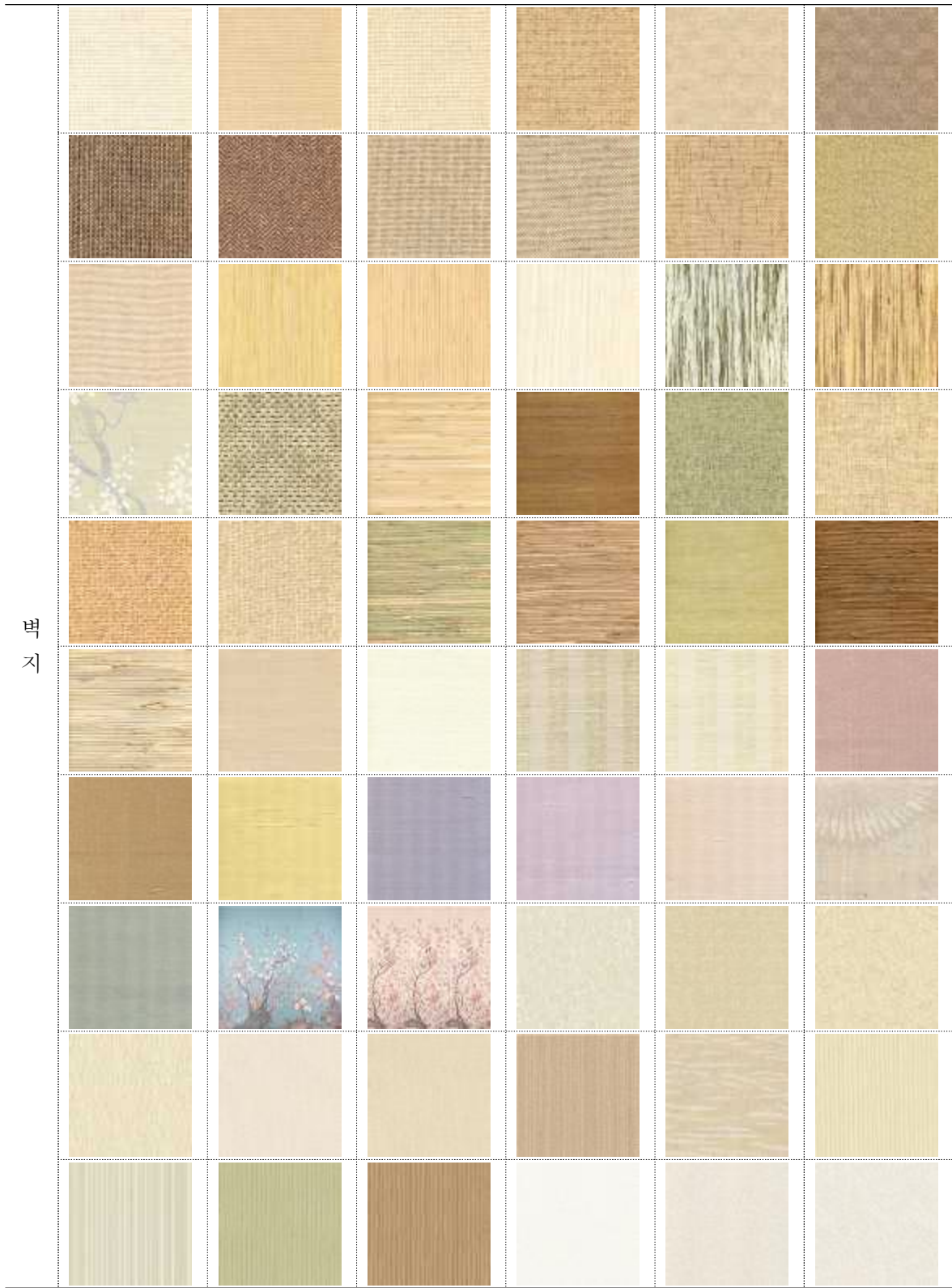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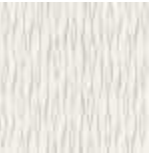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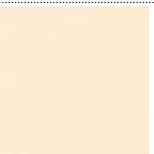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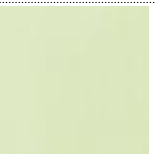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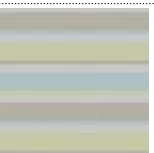


한국, 포인트 벽지가 적용된 공간, 부여롯데리조트



포인트 벽지가 적용된 공간 사례



						
						
						
						
						
벽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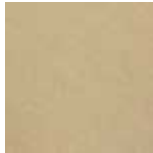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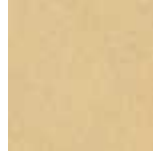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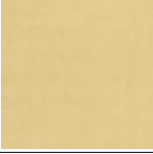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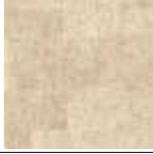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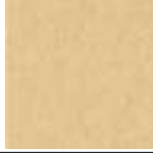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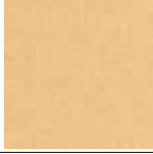
벽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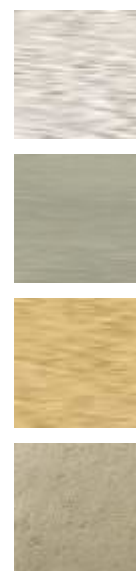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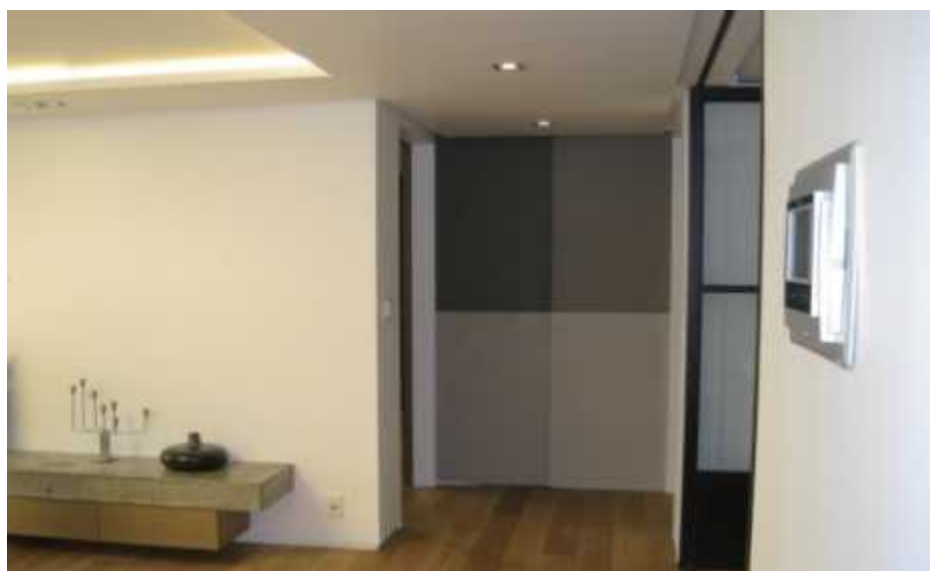


한국, 장판지 마감 바닥, 강회동 하선재, Guga



장판지 바닥마감이 적용된 공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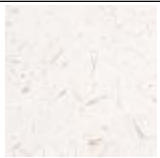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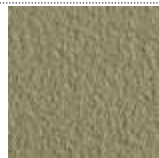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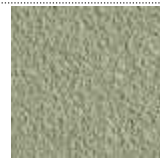
장 관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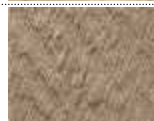


회벽 마감이 적용된 공간



회벽 마감이 적용된 공간 사례

					
					
					
	 기-315	 VA-180	 VB-240	 VC-340	 기-316
 VB-200	 VC-300	 VC-340	 기-317	 VB-220	 VC-320
 MR-002	 MR-020	 MR-018	 MR-008	 MR-007	
					
					
		 TK-301 피꽃한 흰색	 TK-344 민트색	 TK-343 소라색	 TK-341 자갈색
 TK-333 갈대색	 TK-328 달빛색	 TK-327 은비취색	 TK-318 황금색	 TK-317 은행잎색	 TK-316 유채색

					
TK-313: 참마색	TK-312: 복숭아색	TK-309: 살구색	TK-308: 오희색	TK-307: 연주황색	TK-306: 무명색
					
TK-305: 크림색	TK-304: 참쌀색	TK-303: 무유색	TK-302: 콘모래색	MR-003	MR-019
					
MR-016	MR-006	MR-005	MR-004	MR-003	MR-019
					
MR-016	MR-006	MR-005	MR-004	MR-003	MR-019
					
MR-016	MR-006	MR-005	MR-004	MR-003	MR-019
					
MR-016	MR-006	MR-005	MR-004	MR-003	MR-019
					
MR-016	MR-006	MR-005	MR-004	MR-003	MR-019
					
MR-016	MR-006	MR-005	MR-004	MR-003	MR-019
					
MR-016	MR-006	MR-005	MR-004	MR-003	MR-019
					
MR-016	MR-006	MR-005	MR-004	MR-003	MR-019
					
MR-016	MR-006	MR-005	MR-004	MR-003	MR-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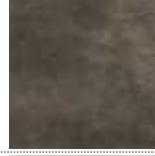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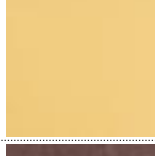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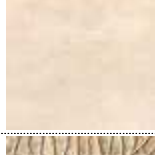
타일 바닥마감이 적용된 공간 사례



한국, 타일 벽마감이 적용된 공간, 다담

타
일
맞
기
와



타 일 맞 기 와						
						
						
						
						
						
						
						
						
						

(3) 조명 - 시제품 개발

전통 한옥 빛에 대한 고찰과 현대한옥을 위한 조명 개발 및 공간별 조명 개발은 다음과 같다.



	빛의 종류	한옥에서의 효과
공간 관련 빛	중심영역을 형성하는 빛	공간을 구획하는 간접 조명
	부유하는 빛	창호지 투과효과
	감추는 빛	가구 간접조명
	충첩성의 빛	프레임을 통한 구성을 보여주는 빛
구조 관련 빛	초점을 형성하는 빛	작업공간 기능조명(점광원)
	구조와 통합된 빛	천정의 보 강조
	구조를 보여주는 빛	벽체의 기둥 강조
형태 관련 빛	형태를 생성하는 빛	창살 음영 그림자 형성
	형태를 투영하는 빛	그림자를 통한 회화 효과
재료 관련 빛	질감을 표현하는 빛	나무, 돌 질감표현

- 거실은 한옥의 구조미가 드러나도록 구조미를 강조할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한다. 천정의 보와 기둥을 강조할 수 있는 조명은 구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노출 시킨다.
- 전반조명으로 직접조명을 설치하여 거실의 기능을 돕는다.
- 거실의 창호에 설치된 조명은 창호를 통해 투과된 빛으로 한옥의 은은함을 더해준다.
- 색온도는 WARM을 주로 사용하여 한옥의 재료와 잘 어울리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전반 조명은 YELLOW, 구조 강조조명은 ORANGE 계열로 계획되어 한옥의 분위기 연출을 돕는다.

● 조명지정 사항

구분	공간 관련 빛				한옥 한옥 구조미 강조				전반조명				액센트조명			
	위치	조명기	조명기	조명기	위치	조명기	조명기	조명기	위치	조명기	조명기	조명기	위치	조명기	조명기	
주광	천정	간접	간접	간접	천정	간접	간접	간접	천정	간접	간접	간접	천정	간접	간접	간접
주광	천정	간접	간접	간접	천정	간접	간접	간접	천정	간접	간접	간접	천정	간접	간접	간접
주광	천정	간접	간접	간접	천정	간접	간접	간접	천정	간접	간접	간접	천정	간접	간접	간접

● 조명기기

구분	공간 관련 빛				한옥 한옥 구조미 강조				전반조명				액센트조명			
	위치	조명기	조명기	조명기	위치	조명기	조명기	조명기	위치	조명기	조명기	조명기	위치	조명기	조명기	조명기
주광	천정	간접	간접	간접	천정	간접	간접	간접	천정	간접	간접	간접	천정	간접	간접	간접
주광	천정	간접	간접	간접	천정	간접	간접	간접	천정	간접	간접	간접	천정	간접	간접	간접
주광	천정	간접	간접	간접	천정	간접	간접	간접	천정	간접	간접	간접	천정	간접	간접	간접

● 조명설치

구분	공간 관련 빛				한옥 한옥 구조미 강조				전반조명				액센트조명			
	위치	조명기	조명기	조명기	위치	조명기	조명기	조명기	위치	조명기	조명기	조명기	위치	조명기	조명기	조명기
주광	천정	간접	간접	간접	천정	간접	간접	간접	천정	간접	간접	간접	천정	간접	간접	간접
주광	천정	간접	간접	간접	천정	간접	간접	간접	천정	간접	간접	간접	천정	간접	간접	간접
주광	천정	간접	간접	간접	천정	간접	간접	간접	천정	간접	간접	간접	천정	간접	간접	간접

거실의 조명 제안과 조명 디자인 매트릭스

(가) MARKET ANALYSIS _ 한옥조명 시장현황



Strength	Weakness
•친환경 소재 •은은한 분위기의 연출 가능	•소재가 목재와 한지로 제한됨 •한정된 전통 문양의 사용 •빛과 컬러 활용에 한계
Opportunities	Threatness
•한옥, 한스타일에 대한 관심 증가 •세계적으로 한류에 대한 관심 증가	•중국, 일본과의 문양이 비슷

(나) DESIGN CONCEPT

치유의 빛

Healing lighting

심미적 요소로서의 빛



안도안도로 '빛의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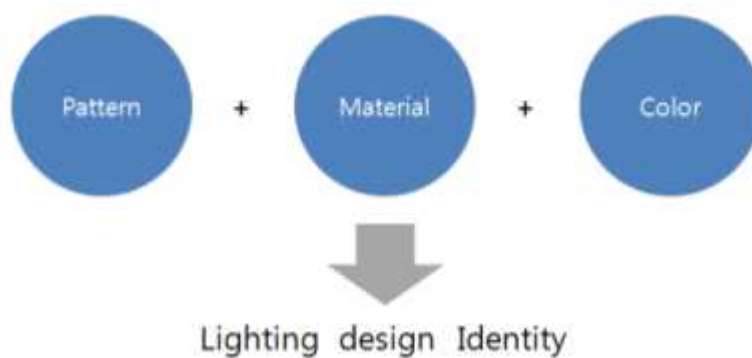
빛(Lamp)의 확장성

은은하고 담백한 한옥 공간에서의 빛은 자연과 사람의 중간영역을 두어 자연과의 소통을 자연스럽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직·간접적인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1차원의 개념을 넘어 공간의 중요 요인으로의 '빛'은 인간의 몸과 마음의 심리적 안정과 편안한 휴식을 제공한다.

Healing lighting을 통해 공간으로의 친밀감을 높이고 화합과 소통,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연출한다.

(다) DESIGN STRATEGY

- ▷ 한옥의 문양을 재해석하여 다양한 패턴으로 구성하고, 패턴의 아이덴티티를 조명의 조형과 소재, 컬러에 접목한다.
- ▷ 각 공간별 조명의 디자인을 차별화하고, 통합적 조명디자인으로 한옥 및 현대적 공간의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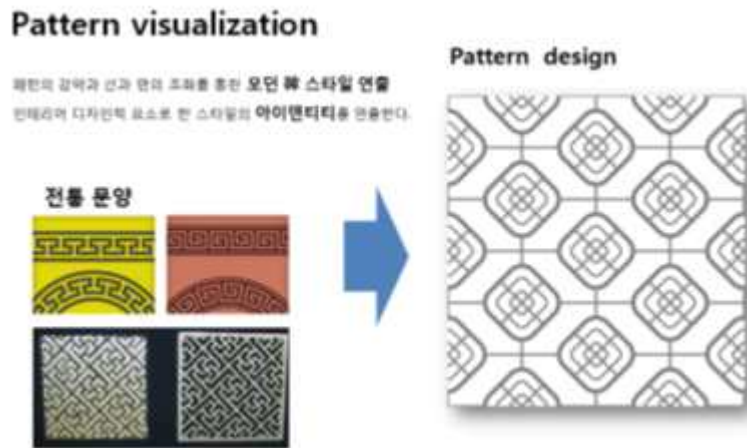


차별성

- 전통문양을 현대적으로 리디자인하여 조형에 접목
- 새로운 소재의 활용
- 다양한 공간에 맞는 조형을 개발

(라) LIGHTING DEVELOPMENT

① 디자인 구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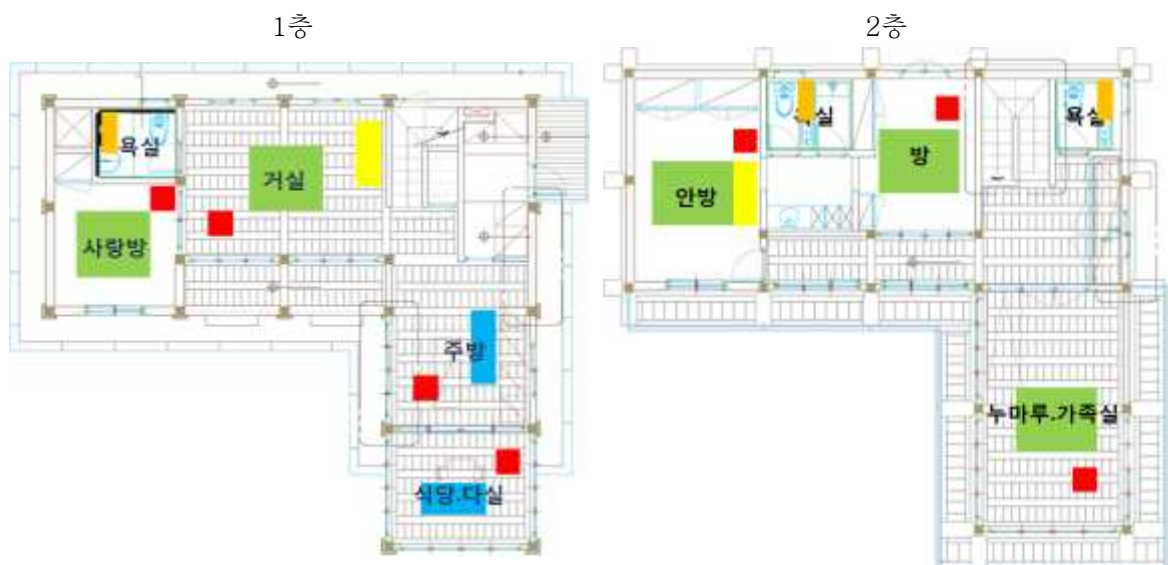


② 개발 제품

□ 제품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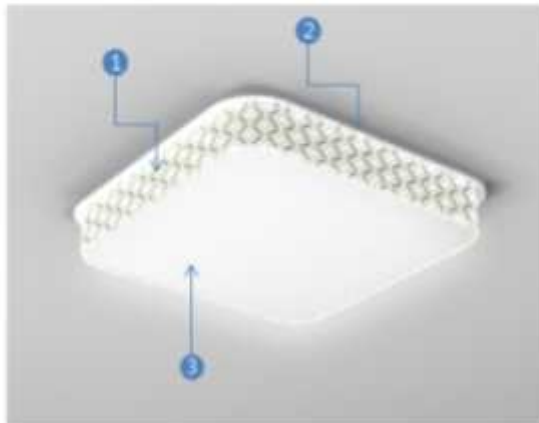
□ 공간에 따른 조명 적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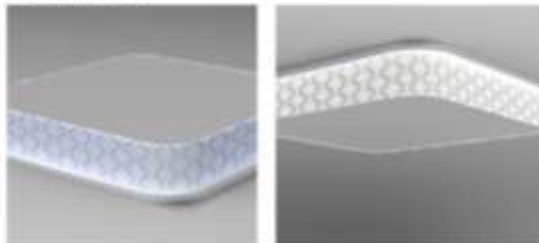
③ 제품별 상세 디자인

Ceiling light / 천장등

Virtual simulation



Detail view



패턴과 색상 및 패턴 디자인 - 패턴 색상 조합을 통해 디자인을 완성

Design spec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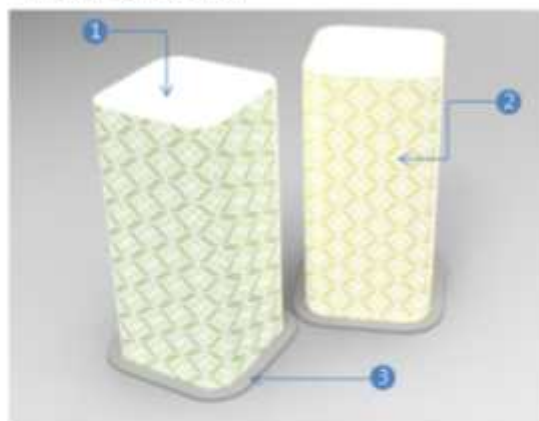
PA RT	DESCRIPTION	Color spec
설치 위치	1층 사물함 기둥 2층 안전 및 수리용기둥들의 연결 선상에 설치	no
1	1. Turn on 시 한 순간들의 패턴이 표현 됨 2. Turn off 시 한 순간들의 패턴이 사라 됨 3. 패턴을 후방 아크릴 소재의 패턴 패턴으로 효과 처리 4. 후방에 반질 처리	Pantone 485C Pantone 542C
2	1. Half glossy SUS frame으로 연결에 고정 2. 패턴을 그을 후 수직이동(반질) 효과	Cool grey 6c
3	1. 후방에 반투명 아크릴로 전면은 high glossy 아크릴로 2번의 코팅 됨	white

Material

Material name	Design Finishing	Reference image
SUS	전면 그을 후 수직으로 반질 처리	
Acrylic	1번 코팅 전면 반질 처리로 효과적인 시선	
Acrylic	1번 코팅 전면 high glossy 효과적인 빛 투과도	

Standing light / 스탠드

Virtual simulation



Detail view



패턴과 색상 및 패턴 디자인 - 패턴 색상 조합을 통해 디자인을 완성

Design spec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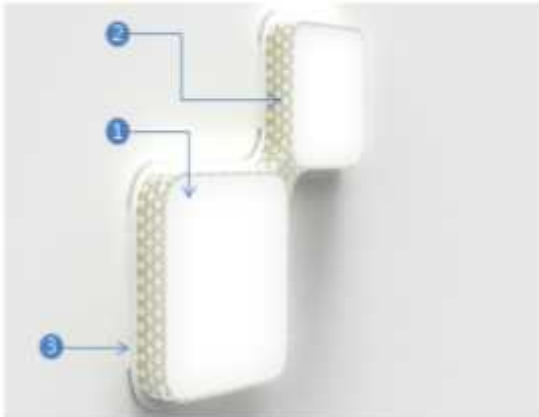
PA RT	DESCRIPTION	Color spec
설치 위치	1층 사물함 기둥 2층 안전 및 수리용기둥들의 연결 선상에 설치 전면이 패턴 처리 되어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표현 될 수 있음	no
1	1. 후방에 반투명 아크릴로 전면은 half glossy 아크릴로 2번의 코팅 됨	white
2	1. Turn on 시 한 순간들의 패턴이 표현 됨 2. Turn off 시 한 순간들의 패턴이 사라 됨 3. 패턴을 후방 아크릴 소재의 패턴 패턴으로 효과 처리 4. 후방에 반질 처리	Pantone 366c Pantone 485C
3	1. Half glossy Aluminum frame으로 연결에 고정 2. 패턴을 그을 후 수직이동(반질) 효과	Cool grey 6c

Material

Material name	Design Finishing	Reference image
Aluminum	전면 수직이동 처리 (반질 효과)	
Acrylic	1번 코팅 전면 반질 처리로 효과적인 시선	
Acrylic	2번 코팅 전면 half glossy 효과적인 빛 투과도	

Wall light / 벽부등

Virtual simulation



Detail view



좌편의 실물상하에 반사광을 미치는 구조

Design specifica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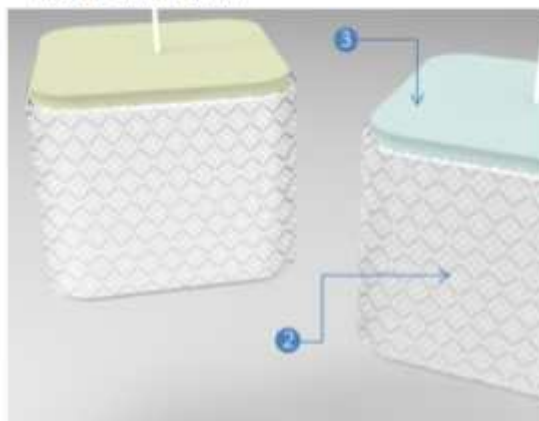
PA RT	DESCRIPTION	Color spec
본체 좌편 우편	1층 거실벽면, 거실벽면 2층 부엌(거실)에 설치할 수 있다.	no
1	1. 좌편에 반투명 아크릴로 전면을 half glossy 마감 2. 반의 스텝 처리	White
2	1. Turn on 시 반 스텝 처리 좌편이 유입됨 2. Turn on 시 반 스텝 처리 우편이 유입됨 3. 좌편에 반투명 아크릴 소재의 하단 덮개로 좌편 유입 방지 4. 좌편에 반투명 아크릴 소재의 하단 덮개로 좌편 유입 방지	Pantone 454c
3	1. Half glossy Acrylic frame으로 반투명 마감 2. 좌편에 스텝 처리 3. 우편에 유입 방지 반투명	white

Material

Material name	Design Finishing	Reference image
Aluminum	좌편 Anodizing 처리 (반투명)	
Acrylic	1. 반투명 좌편 반투명 아크릴로 유입 방지 처리	
Acrylic	2. 반투명 좌편 half glossy 하단 덮개 반투명 아크릴	

Pendant light / 펜던트

Virtual simulation



Detail view



좌편의 실물상하에 반사광을 미치는 구조

Design specificaion

PA RT	DESCRIPTION	Color spec
본체 좌편 우편	1층 거실, 식당(대) 2층 부엌(거실)에 설치할 수 있다.	no
1	1. 좌편에 반투명 아크릴로 전면을 half glossy 마감 2. 반의 스텝 처리	White
2	1. Turn on 시 반 스텝 처리 좌편이 유입됨 2. Turn on 시 반 스텝 처리 우편이 유입됨 3. 좌편에 반투명 아크릴 소재의 하단 덮개로 좌편 유입 방지 4. 좌편에 반투명 아크릴 소재의 하단 덮개로 좌편 유입 방지	Cool gray 3c
3	1. Half glossy Acrylic frame으로 반투명 마감 2. 좌편에 스텝 처리 3. 우편에 유입 방지 반투명	Pantone 454c Pantone 624c

Material

Material name	Design Finishing	Reference image
Aluminum	좌편 Anodizing 처리 (반투명)	
Acrylic	1. 반투명 좌편 반투명 아크릴로 유입 방지 처리	
Acrylic	2. 반투명 좌편 half glossy 하단 덮개 반투명 아크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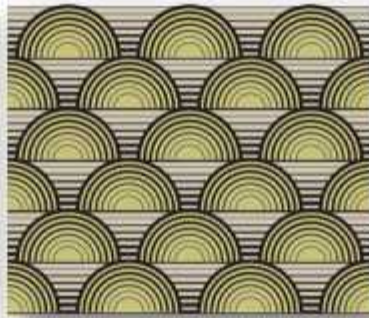
(4) 패턴(문양)

한국의 전통적 스타일과 현대적인 스타일의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패턴(문양)의 개발은 그 활용성이 매우 크다. 디자인 요소 및 건축 요소에 적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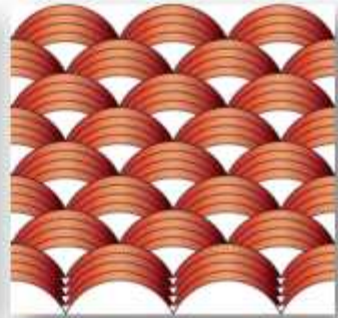
소리의 진동과 물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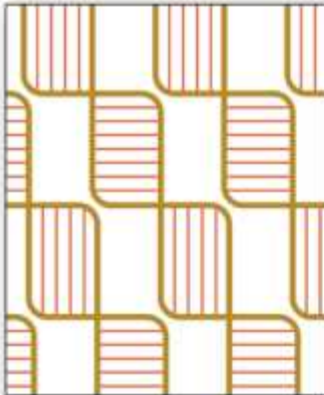
직선과 곡선의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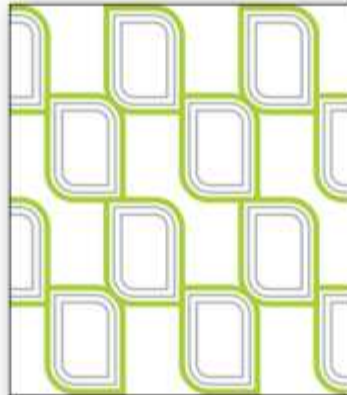
입체적 원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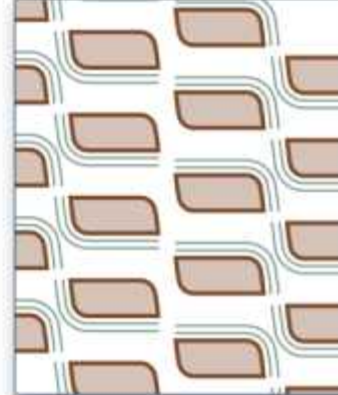
직선과 곡선의 조화



반복과 파동



선과 면의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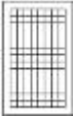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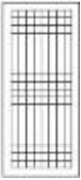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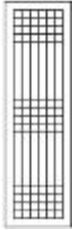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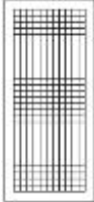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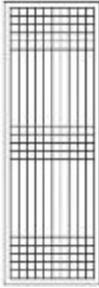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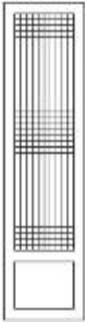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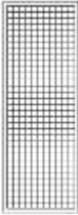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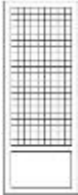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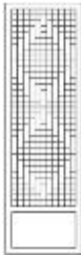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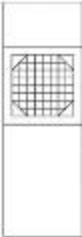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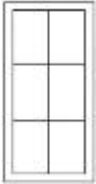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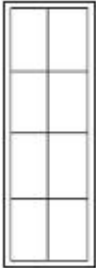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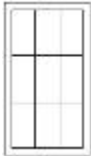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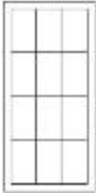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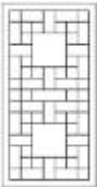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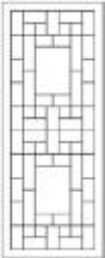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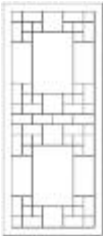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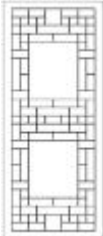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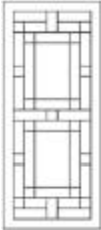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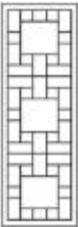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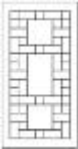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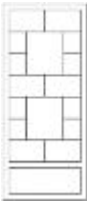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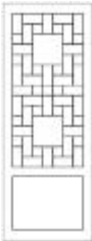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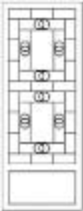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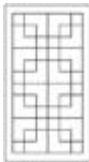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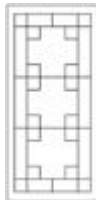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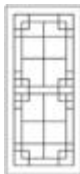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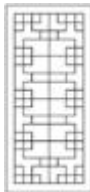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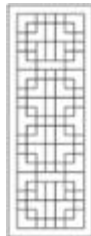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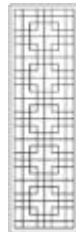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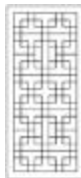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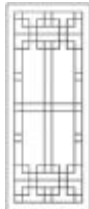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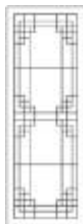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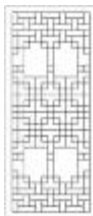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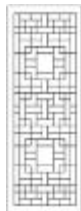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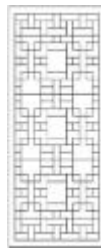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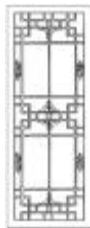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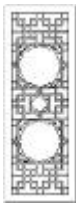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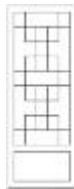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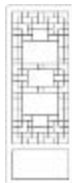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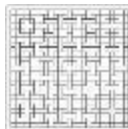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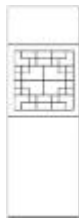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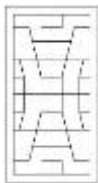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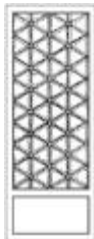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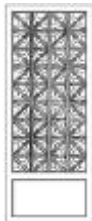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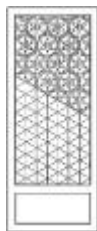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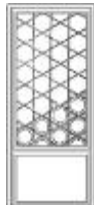
(5) 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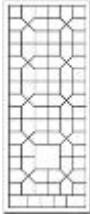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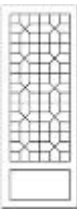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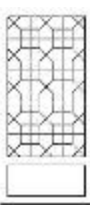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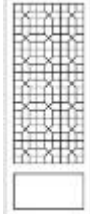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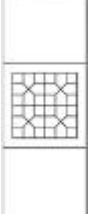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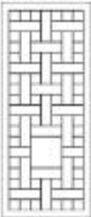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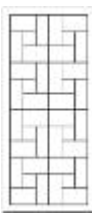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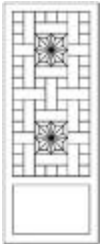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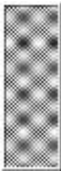
(가) 한국, 중국, 일본의 창호의 비교

동양과 서양의 창호문양은 확연한 차이가 있어서 쉽게 구분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서로 인접한 국가여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문화가 발전되어 왔다. 그렇기에 이들 사이에 창호에 문양이 서로 유사하기도 하고 구분이 되지 않는 것도 있다. 다시 말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창호문양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와 기후를 달리하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창호가 똑같다는 것은 논리적인 생각은 아니다. 한국이 문화 정체성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한국 자체의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중국과 일본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마치 남을 통해서 나의 좌표를 아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 창호의 차이를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중국은 그림에서 보듯이 화려하고 일본은 단순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그 국가의 사이에 한국의 창호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생산적인 측면에서 단순화를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처럼 단순화 됐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시각도 있다. 중국의 경우에 자객이 많아 그 자객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창살을 표현했다는 것이며 일본의 경우 그만큼 신변의 위협을 받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여하튼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길이 없는 것이여서 단지 추측만을 해볼 뿐이다. 문양의 경우 어떤 상징성을 생각하며 문양을 해석 하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억지일 수 있다. 특별한 의미 없이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처럼 그저 아름다운 창을 만들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그것을 보고 후세에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그저 창호의 문양은 상징성을 생각하지 않고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문양으로만 이해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 나타나는 문양을 고려하고 중국과 일본에 나타나지 않는 문양 중에서 요즘에 잘 맞는 문양을 사용하면 우리의 한국성을 보여주는 공간을 만드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한다. 단지 그 문양의 상징적의미를 명확히 알지는 모르지만 한, 중, 일의 창호문양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명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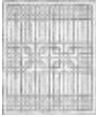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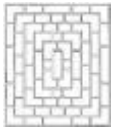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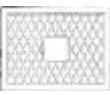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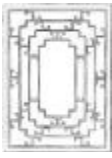
① 한국 창살의 분류체계와 대표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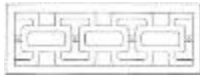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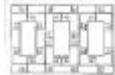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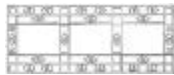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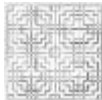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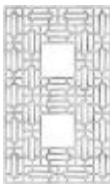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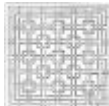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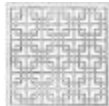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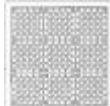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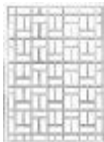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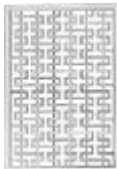
띠 살	      
정 자 살	    
용 자 살	    
아 자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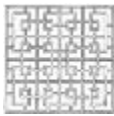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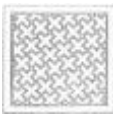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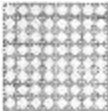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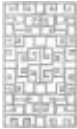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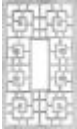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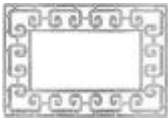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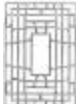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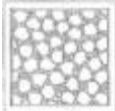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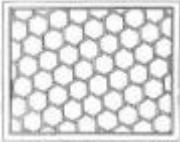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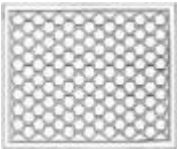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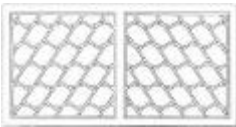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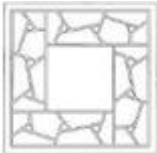
완 자 살	      							완자살1	완자살2	완자살3	완자살4	완자살5	완자살6	완자살7			
	      							완자살8	완자살9	완자살10	완자살11	완자살12	완자살13	완자살14			
	        									완자살15	완자살16	완자살17	완자살18	완자살19	완자살20	완자살21	완자살22
귀 자 살	 													귀자살1	귀자살2		
꽃 살	       								꽃살1	꽃살2	꽃살3	꽃살4	꽃살5	꽃살6	꽃살7	꽃살8	
	       								꽃살9	꽃살10	꽃살11	꽃살12	꽃살13	꽃살14	꽃살15	꽃살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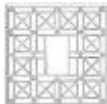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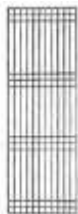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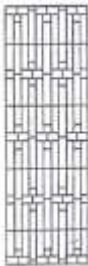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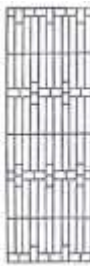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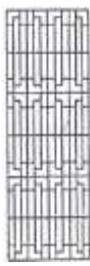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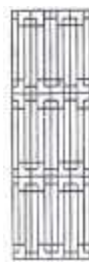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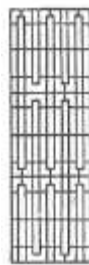
귀갑살	      귀갑살1 귀갑살2 귀갑살3 귀갑살4 귀갑살5 귀갑살6
숫대살	      숫대살1 숫대살2 숫대살3 숫대살4 숫대살5 숫대살6
빗살	     빗살1 빗살2 빗살3 빗살4 빗살5

② 중국 창살의 분류체계와 대표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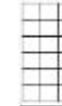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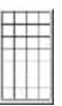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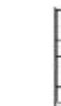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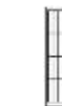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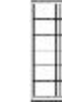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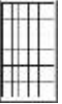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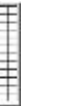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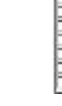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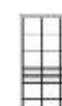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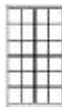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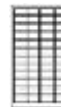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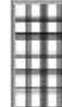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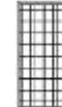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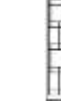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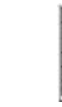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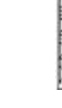
평행/팔각/육각	         평행1 팔각1 팔각2 팔각3 육각1 육각2 육각3 육각4 육각5
1초점	        1초점1 1초점2 1초점3 초점4 1초점5 1초점6 1초점7 1초점8

2 초 점 / 3 초 점	    							
	2초점1	3초점1	3초점2	3초점3	3초점4			
5 초 점 / 무 초 점	       							
	5초점1	5초점2	무초점1	무초점2	무초점3	무초점4	무초점5	무초점6
췌 기	       							
	췌기1	췌기2	췌기3	췌기4	췌기5	췌기6	췌기7	췌기8
표 출 / 외 부	     							
	표출1	표출2	외부1	외부2	외부3	외부4		
내 외 부 / 한 대	     							
	내외부1	내외부2	내외부3	한대1	한대2	한대3		
병 렬 / 대 칭 / 역 방 향	      							
	병렬1	병렬2	병렬2	대칭1	역방향1	역방향2	역방향3	

고리 / 만자	        고리1 고리2 고리3 만자1 만자2 만자3 만자4 만자5
변형 / 중심	       변형1 변형2 변형3 변형4 중심1 중심2 중심3
전면	   전면1 전면2 전면3
S 자	    S자1 S자2 S자3 S자4
U 자	     U자1 U자2 U자3 U자4 U자5
비대칭	     비대칭1 비대칭2 비대칭3 비대칭4 비대칭5
대칭	     대칭1 대칭2 대칭3 대칭4 대칭5     대칭6 대칭7 대칭8 대칭9

정 곡	       									
	정곡1	정곡2	정곡3	정곡4	정곡5	정곡6	정곡7	정곡8		
격 자	         									
	격자1	격자2	격자3	격자4	격자5	격자6	격자7	격자8	격자9	격자10
지 그 재 그 / 지 - 정	  									
	지그재그1	지그재그2	지-정1	지-정2	지-정3					
사 - 꽃	        									
	사-꽃1	사-꽃2	사-꽃3	사-꽃4	사-꽃5	사-꽃6	사-꽃7	사-꽃8	사-꽃9	
	        									
	사-꽃10	사-꽃11	사-꽃12	사-꽃13	사-꽃14	사-꽃15	사-꽃16	사-꽃17	사-꽃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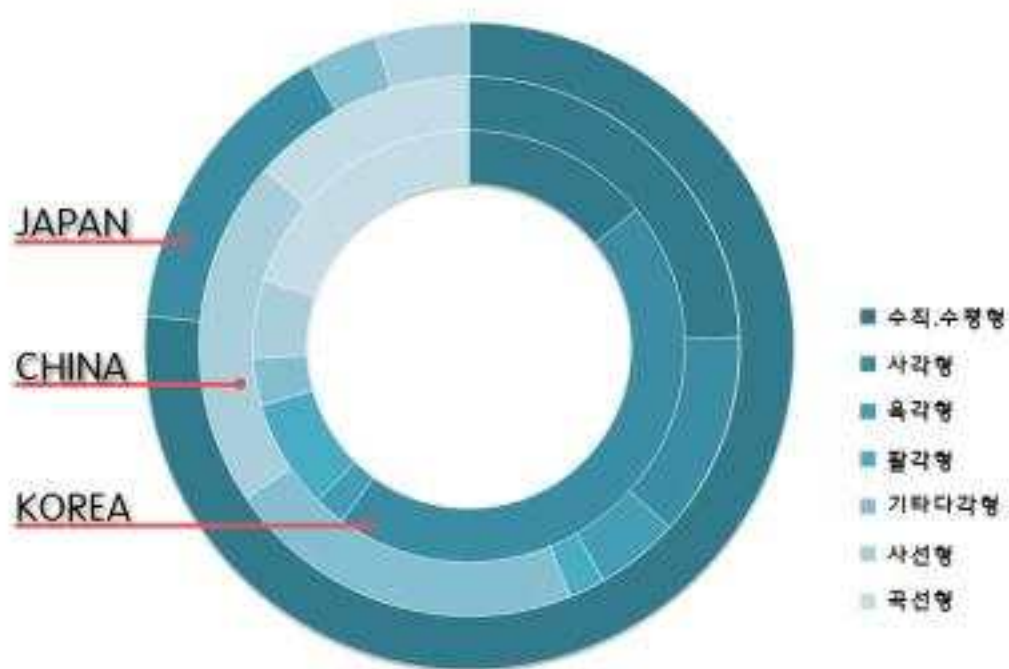
③ 일본 창살의 분류체계와 대표적 형태

기 본									
	기본1	기본2	기본3	기본4	기본5	기본6	기본7	기본8	기본9
									
기본10	기본11	기본12	기본13	기본14	기본15	기본16	기본17	기본18	기본19
수 직									
	수직1	수직2	수직3	수직4	수직5	수직6	수직7	수직8	
									
수직9	수직10	수직11	수직12	수직13	수직14	수직15	수직16		
수 평									
	수평1	수평2	수평3	수평4	수평5	수평6	수평7		
									
	수평8	수평9	수평10	수평11	수평12	수평13	수평14		
									
수평15	수평16	수평17	수평18	[수평19	수평20	수평21			
복 합									
	복합1	복합2	복합3	복합4	복합5	복합6	복합7	복합8	복합9
기 타									
	기타1	기타2	기타3	기타4	기타5	기타6			
									
기타7	기타8	기타9	기타10	기타11	기타12	기타13			
사 선									
	사선1	사선2	사선3	사선4	사선5	사선6	사선7		

창살의 패턴은 실내인테리어에 있어서 한국 전통을 시각적으로 확연하게 보여주는 데 크게 기여를 하는데 반해 중국, 일본도 비슷한 창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 3국의 창살 비교를 통해 한 스타일 분위기의 창살을 찾는 데 기본이 되는 연구이다.

한중일 창살은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 일본은 다른 형태에 비해 수직, 수평 형 빈도가 높음
- 한국의 사각형은 아자살, 완자살, 숫대살이 대표적 형태이며 중국의 사각형은 한국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성을 보이며 사각형이 조밀함. 일본의 사각형은 그리드를 기본으로 살을 추가, 제거한 형태가 많음
- 육각형과 팔각형은 한국과 중국에서만 보이는 형태이나 한국도 주거에서는 그리 많이 사용되지 않은 형태로 중국의 것에 비해 크기가 크고 단순하게 사용. 중국은 기본 육각, 팔각에서 복잡, 정교하게 변형된 것이 많음
- 다각형과 사선 형은 중국의 사례 빈도가 가장 많고 한국은 귀자살과 빗살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형태로 나타남
- 곡선형 역시 한국과 중국에서만 나타나는데 한국은 꽃살에만 곡선이 사용됨



앞의 표에서 볼 수 있듯 이 수직, 수평 형은 한국과 일본에서만 나타나는데 그리드 형의 경우 혼동되기 쉬울 수 있지만 해당되는 형태들을 보면 서로를 구분시켜주는 특징적 요소가 내재되어있다. 전체적인 밀도감과 각 칸의 가로대 세로의 비례가 보이는 차이에서 오는 걸로 짐작된다.

한국의 사각형은 아자살, 완자살, 숫대살이 대표적인데 수직선과 수평선의 끊어진

부분이 연결되면서 상당히 의도적인 사각형을 연출한다. 한편, 중국의 사각형은 의도적으로 사각형을 구성하는 점에서는 한국의 경우가 같으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훨씬 더 복잡한 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밀도 역시 조밀하다. 일본의 사각형은 기본적인 그리드를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살대를 추가하거나 제거한 것처럼 보인다.



한국의 숯대살패턴을 적용한 난간



쇼지의 그리드



중국의 그리드

육각형과 팔각형은 한국과 중국에서만 보이는 형태인데, 사실 한국에서는 그리 많이 사용되지 않은 형태이다. 한국은 육각형이나 팔각형만으로, 혹은 사각형과 함께 복잡한 형태로 비교적 단순히 사용되고 있으나 중국은 육각형과 팔각형은 전체적인 틀에서부터 내부모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보이며, 좀 더 복잡한 구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기타 다각형과 사선형의 경우, 세 나라가 모두 해당되는 예들을 갖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가 가장 많고 여기에서 한국은 귀자살과 빗살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른 두 나라와 차이를 보인다. 곡선형은 한국과 중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데, 한국의 경우 꽃살을 제외한다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문양이 곡선으로 구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꽃살을 만들 때에 곡선형이 나타나므로 진정한 기하학적 차원에서 창살문양에 다양한 곡선을 도입하고 있는 중국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 중국에는 이러한 곡선형이 원형을 비롯해서 물결 모양이나 끝만 둥근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고 있다.



중국 춘추원



일본의 쇼지

(나) 한국 창살의 현대화 적용 방안

전통의 창호문양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던 문제일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은 곤란할 것이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지혜로운 답은 어떤 때

는 전통적인 문양을 사용해서 쓰고 어떤 때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양을 쓰라는 이야기이다. 단정적으로 어떤 것이 옳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전통적인 방식의 문양의 경우에는 있는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롭게 재해석해서 문양을 만드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문양 패턴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그동안 옛날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였지만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사용한 것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 같다. 동양의 기하학적인 패턴을 착안해 서양의 스테인드글라스를 융합해서 사용한 프랭크의 작업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는지 모른다.

인테리어디자인의 요소로서 창문은 그 창살의 패턴을 현대화하여 한스타일 인테리어디자인에 적용시켜 볼 수 있다. 전통한옥에서 보여준 창호 패턴의 의미와 공간적 특색에 따른 상징성은 창호패턴의 선정에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전통한옥에서도 출된 창호를 현대적인 생활방식과 공간 구성에 대한 요구에 맞춰 현대한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구성하여 디자인 방향을 제안하면 현대와 과거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한 공간 안에서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법론으로는 첫 번째로 전통의 패턴과 재료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과 두 번째로 재료를 목재, 한지에서 벗어나 금속, 유리 등을 활용하고 그 패턴역시 단순하게 변형시켜 적용시키는 것과 마지막으로 알루미늄, 스테인드글라스 등을 활용하여 이전의 재료, 패턴에서 주는 느낌에 색채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현대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① 전통의 단순 적용 사례

창호지의 투명도와 창살의 기하문양에 따라 다양성을 나타내고 햇빛의 상태에 따라 다른 색을 띄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림자를 통해 기하문양은 더욱 달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경복궁



정동극장



조선시대 반가에서 자주 볼 수 있던 창살과 한지를 그대로 적용 시킨 시물레이션

② 재료와 형태의 현대화

전통적 느낌을 주기위해 한지는 고수 되어야 하는 걸까? 한지는 은은한 멋을 줄 수는 있지만 채광이 유리에 비해 잘되지 않고 수분을 쉽게 흡수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두면 벌레나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므로 관리가 힘들어 사람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한지가 아닌 유리를 사용하면 어떨까? 최근 들어 전통적 느낌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현대적인 재료들이 많이 생성되고 선택이 가능해짐으로써 굳이 전통 재료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전통적인 공간을 표현하는 인테리어가 설계되고 있다.



스타벅스 소공동점



glass와 패턴을 단순화 시켜서 적용한 시뮬레이션.

③ 칼라의 사용

한옥은 면과 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흡사 몬드리안의 구성과 같지만 차갑거나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재미를 줄 수 있다. 재료의 다양화를 창호에 적용시키면 어떤 느낌일까? 프랭크 라이트 로이드는 기하학적 형태와 재료의 솔직한 표현을 통해 장식적 가치를 부여시켰다. 이렇듯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재료마다의 특징을 창호패턴에 반영하면 조금 더 다양한 디자인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Stained glass와 PVC를 적용시킨 창호 시뮬레이션

기하학적인 선과 형의 분할로 이루어진 한국 전통 창호는 현대인이 추구하는 심플한 모던함등으로 현대적 감각에 현대적 감각에 잘 어우러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정보를 제일 먼저 지각 하는 부분은 시각임을 감안한다면 그 공간에서의 패턴은 공간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그 의미는 장식의 범주를 뛰어 넘어 다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주거 공간에서의 창호는 공간에서 디자인적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전통창살의 형태를 현대주택의 실내공간에 도입하면 한스타일의 정체성 확보에 효과적일 수 있다.

3. 신한옥 인테리어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가. 연구수행방법

- 요소별 가이드라인
- 한중일 실내디자인의 스타일
- 공간별 가이드라인

나. 연구개발내용

- 요소별 가이드라인

(1) 창호

현대 한옥에서 어떤 창호를 써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창호가 건물의 외관의 특성을 결정짓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창호의 패턴은 건물의 외관에 스타일을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창호를 써야할지를 정하기가 쉽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창호의 기하학적인 패턴에서 어떤 상징적 의미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통한옥의 경우의 사례를 보면, 공간에 따라 달리 창호가 사용되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특별한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창호 패턴을 선정함에 있어서 건물의 전체와 맞는 장식적 패턴에 창호를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창호의 패턴으로 세살(띠살)창호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세살(띠살)창호는 비교적 단순하여 현대적으로 잘 맞아 사용하기에 용이한 것이다. 전통창호 문양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새로운 문양패턴을 디자인하여 사용해 볼 수도 있다.

창호 패턴 외에도 창호를 선택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한지를 끼울 것인가 아니면 유리를 끼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현대한옥의 경우라면 창호보다는 유리를 끼는 것이 나을 때가 많다. 그러나 보다 전통적인 느낌을 갖기를 원한다면 한지 창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유리를 끼웠을 때의 창호는 문살과 유리가 일체화되어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유리를 끼웠을 때 창살을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면 유리 위에 패턴을 새겨 사용한다면 보다 더 현대적인 느낌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현대화 된 창호패턴의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유리창호에 대한 개발방향은 무수할 것이다.

전통문양의 창호는 건물의 외관에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보다 한국적 느낌의 실내공간의 연출을 하고자 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창호에 있어서 패턴은 중요하다. 그 패턴이 갖는 비례체계도 중요한 것이다. 패턴을 선택할 때 있어서 패턴 자체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건물과의 비례를 생각한 창호패턴의 선정은 아름다운 한옥의 가치를 증폭시킬 것으로 생각이 든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한국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능한 다음과 같은 띠살과 아자살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아자살의 현대화 _ 삼청동 와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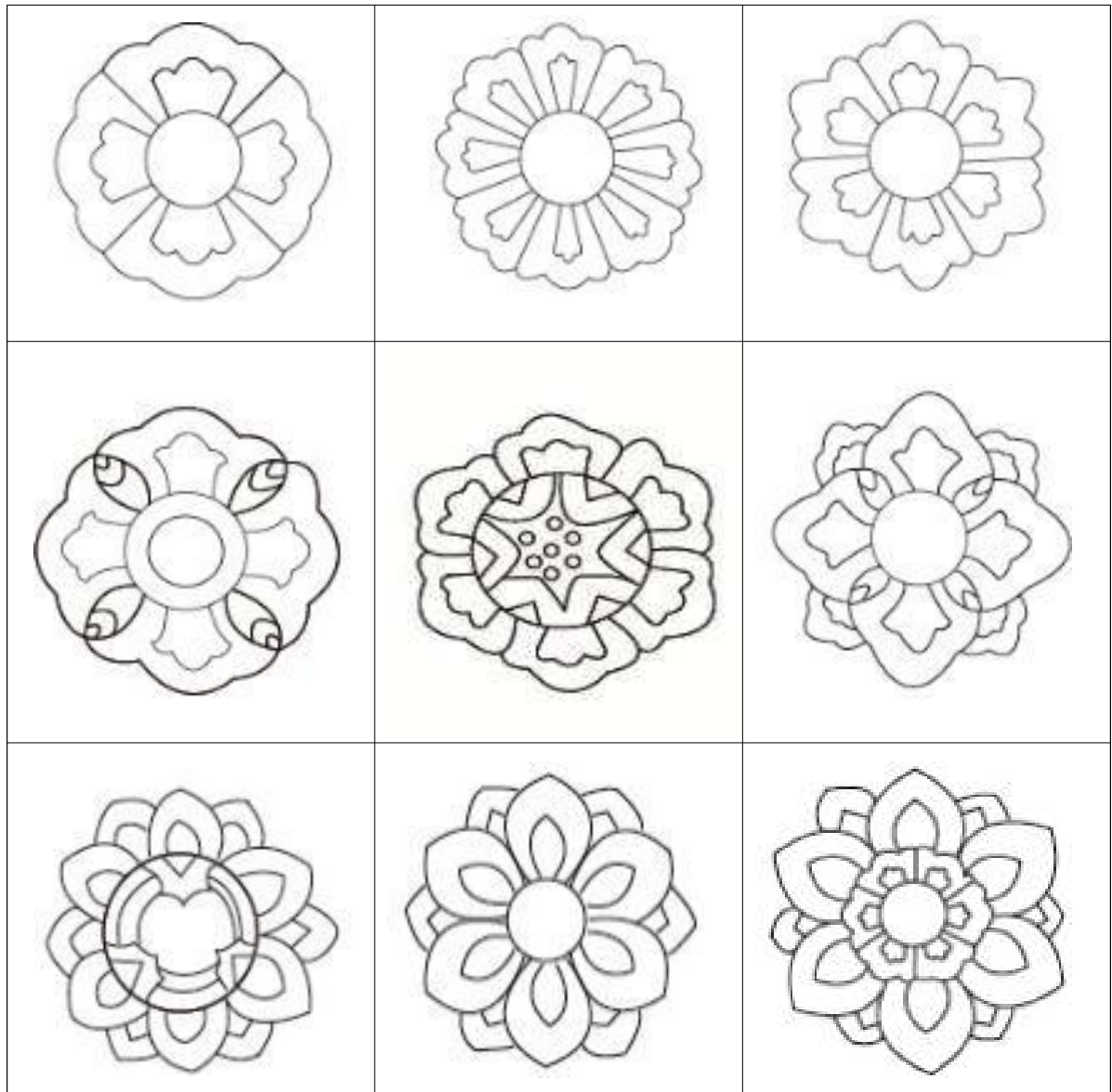
아자살의 현대화 _ 경기도화성개량한옥

(2) 서까래

지붕의 곡선을 만드는 서까래는 단연 한국적 느낌을 만드는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축요소이다. 그래서 많은 실내공간에 천장을 보면 서까래의 느낌을 갖는 천장의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서까래의 리듬감과 서까래의 머리에 채색에서 한국적 정서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서까래가 지붕의 곡선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처마를 만드는데 사용되었지만 꼭 지붕 곡선을 만드는 데만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보다 더 실내공간에 장식적인 요소를 두고 싶다면 서까래의 머리 부분에 단청을 칠하여 보다 실내공간에 장식성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천장 위에 서까래를 사용함에 있어서 조명기기에 대한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옛날에 전통방식에서의 조명은 지금처럼 위에서 아래로 비추는 조명방식이 아니었다. 전기가 없었던 시절에는 호롱불이 대표적인 조명원이었던 것이다. 예전에 사용한 호롱불은 점광원이다. 한국의 빛을 찾아감에 있어 예전에 점광원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옛날방식으로 점광원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많은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예전에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점광원을 사용하였기만 현대에 있어서 점광원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든다. 한옥의 현대화는 현대인을 위한 방향으로 진보되어야 할 것이다. 요즘은 인터넷이 없으면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심한 경우에는 인터넷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도 발생한다. 현대 한옥에는 인터넷 시설을 장착해야 하며, 전기배선을 생각하고 설비시설을 위한 배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설들을 잘 받아줄 수 있는 서까래 디자인 또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여하튼 실내디자인 요소로서 서까래는 한국적 특성을 보여주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건축요소임에 틀림이 없다. 서까래의 배치방법으로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실내공간에서의 서까래 디자인 또한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천장 가장자리에 일렬로 배치된 서까래의 모습은 실내공간의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손색이 없는 좋은 사례이다. 아래와 같은 주화를 기와에 넣어서 표현하면 전통적인 분위기를 쉽게 연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까래의 장식으로 사용가능한 문양을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다.

(3) 바닥

전통한옥이 온돌과 마루로 크게 대별된다는 이야기는 앞에서도 한 적이 있다. 바닥



의 재료로 전통방식에 의한 온돌을 놓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비합리적이다. 바닥의 난방 방식으로 우리의 아파트에 쓰였던 방식을 그대로 현대한옥에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바닥재로서 나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바닥재를 아무런 패턴 없이 강화마루로 간다면 전통적인 맛은 덜할 것이다. 물론 비용을 생각한다면 현대적 방식에 강화마루를 바닥 재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웬지 강화마루를 보면 거기에는 사람의 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한옥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별다른 고민 없이 강화마루를 깔기보다는 우물마루와 같은 것을 깔기를 권한다. 바닥 자체의 큰 신경을 쓰지 않고 바닥을 까는 것은 실내공간의 분위기를 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바닥 재료를 선정함에 있어서 굳이 목재만을 고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바닥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요소는 무수히 많다. 공간의 용도에 따라 바닥재료를 달리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가령 예를 들면 안방은 장판지, 거실은 마루, 욕실은 전통의 느낌이나 타일 등등 바닥과 관련해서 생각하여야 할 요소는 무수히 많다.

바닥은 사람의 발이 닿는 촉각적 요소이다. 바닥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성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바닥을 만듦에 있어 고저차에 의한 바닥은 공간의 영역성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영역성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누마루는 일반적으로 다른 방에 비해서 높이가 높다. 공간을 구분 짓고 싶다면 바닥의 고저차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바닥의 고저차가 있는 것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에서 볼 때, 생활의 관점에서 볼 때, 불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바닥재는 가능한 한 우물마루를 사용하는 것을 권한다.

(4) 천장

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어떤 천장을 사용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할까. 아니다. 천장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에 앞서 천장에서 중요한 것은 바닥에서 천장에 이르는 천장고이다. 이 천장고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천장고는 좌식 생활을 고려했을 때의 천장고와 입식생활을 고려했을 때의 천장고가 다르다. 옛날 사람의 경우는 신장이 작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낮은 천장고를 사용했다. 천장고의 높이에 따라 사람의 기가 눌리기도 하고 기가 살기도 한다. 바닥면적에 따른 적정 천장고가 무엇인지 곰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천장고를 정하기에 앞서서 어느 정도의 높이에서 편안한 느낌이 들지를 생각하며 천장고를 정하는 것은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천장에 부착될 수 있는 요소로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조명기기이다. 조명기기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실내공간의 분위기를 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천장에 부착될 적절한 조명기기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옥의 잘 맞는 조명기기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전통의 느낌이 나는 조명기기는 조악한 조명기기가 많아 공간을 망치기 일쑤이고, 현대건축공간에서 사용되는 조명기기는 조악하진 않지만 공간과 잘 맞지 않는 것이다. 옛날 고풍스러운 느낌의 조명기기를 선택하고자 하면 또한 가격이 만만치가 않다. 조명기기의 선택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뿐 만 아니라 장식적, 상징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조명기기를 설치함에 있어서 노출형과 매립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옛날의 전통의 빛 관점에서 볼 때 노출형 보다 매립형이 예전의 조명방식과 가깝다. 그러나 매립형이 간접조명으로 우리의 한국의 빛의 원리를 담고 있다고 해서 모든 공간의 매립형 조명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리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 매립형 조명기기의 단점은 조도가 나쁘다는 점이다. 그래서 조명기기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람의 활동을 고려한 조명기기의 선택이 중요하다. 높은 조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침실의 경우, 매립형 조명기기는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작업용 조명을 필요로 하는 부엌의 조명은 매립형 조명이 그리 적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위기에 연출과 어느 정도의 기능성 조명을 원한다면 부엌의 팬던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욕실에 조명을 매립형으로 할지 아니면 노출형으로 할지 명확하게 하나로 결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아무래도 휴식을 취하고 치유의 시간으로 욕실을 생각한다면 또, 광원을 직접 봤을 때 거기서 안도의 순간을 발견할 수 있다면, 매립형 보다는 노출형 조명기기가 좋지 않을까 싶다. 물론 노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눈부심 빛을 방지하기 위한 갓이 씌워진 조명기기 또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욕실공간은 기능적일수도 있고 무드를 연출하는 공간으로 거주자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바닥에 고저차와 마찬가지로 천장에 고저차는 높이에 따라 공간의 성격을 규정짓는다. 천장의 재료 또한 분위기와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천장은 하늘과 맞닿은 공간이다. 올려다봤을 때 천장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천장이 아닐까 싶다. 천장에 보이는 한옥만이 갖고 있는 구조적 미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천장을 통해 보여 지는 하늘 또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는 매력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다. 천장은 올려다보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꿈을 주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천장의 높이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물론 중요하다.

(5) 조명

현대 한옥 공간에 어울리는 조명 디자인이란 어떤 것일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한옥의 공간 안에서 간혹 어울리지 않는 조명기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한옥의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현대의 조명기기를 억지로 매달아 놓은 사례를 볼 수 있다. 천정의 구조가 노출되어 있는 공간이지만 조명기기의 눈부심 때문에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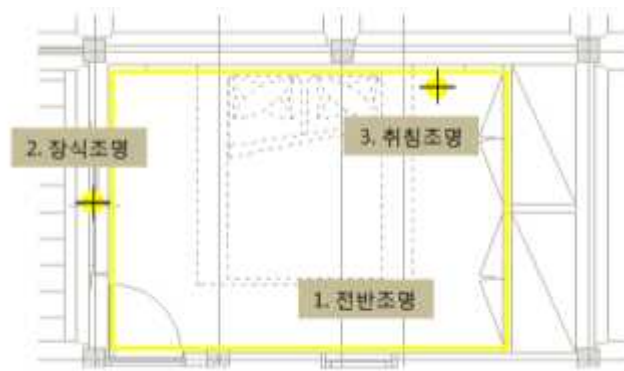
우리는 전통 한옥 빛의 현대적 재해석을 토대로 한옥의 각 공간별 조명디자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안방, 거실, 주방, 욕실, 사랑방 각 공간에 적절한 조명 연출을 함으로써 한옥의 아름다움은 한 층 돋보일 수 있게 된다. 현대 한옥에 조명설계를 함에 있어서도 자연 채광을 극대화함으로써 낮 시간동안의 전력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가) 안방

안방은 방 중에 중심이 되는 방으로서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연출해야 할 것이다. 한옥의 안방은 현대 주택의 안방보다 좀 더 따뜻한 색온도의 빛을 사용함으로써 한지와 나무 등의 재료가 감성적으로 변하게 연출 한다. 천정과 창호의 재료로 쓰인 한지는 빛과 함께 따뜻한 온도를 가지는 재료로 변한다. 창호 문양 등의 전통적인 요소와 침대, 불박이장 등의 현대 요소가 잘 어우러지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한국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창호의 문양을 강조하는 조명 연출을 할 수 있다. 취침 조명을 위한 조명기구는 나무와 한지 재료로 만들어진 한 스타일의 조명기구를 사용한다. warm color의 색온도는 취침공간의 아늑한 분위기를 형성해 준다. 공간에 쓰인 재료와 빛의 색을 통일하여 재료의 아름다움을 강조해 줄 수 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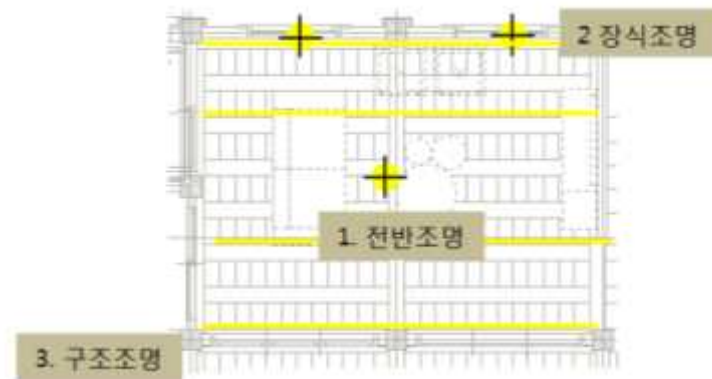
분 류		조명1	조명2	조명3
조명 방식	간 접 조 명	0	0	
	반간접조명			
	직 접 조 명			0
공간연출방법	구 조 강 조			
	문 양 강 조		0	

		재 료 강 조	0		
		그림자효과			
		색 채 강 조			
조명기기	조명기기유형	천 정 등	0		
		벽 부 등		0	
		펜 던 트			
		스 텐 드			0
		기 타			
	빛의 종류	분 산	0	0	
		s p o t			0
	빛의 방향	상 향			
		하 향	0		0
		수 평		0	
	광원의 종류	형 광 등	0	0	
		백 열 등			0
		할 로 겐			
		L E D			

(나) 거실

거실은 손님을 접대하거나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서양식 집의 공간이다. 단아한 아름다움을 가진 한옥에서 거실 공간은 천장을 노출하여 천장고를 높이고 공간감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한옥의 구조미가 드러나도록 구조미를 강조할 수 있는 조명 연출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천정의 보와 기둥을 강조할 수 있는 조명은 구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드러낸다. 전반조명으로는 직접조명을 설치하여 거실의 기능적 효율성을 높인다. 거실의 창호에 설치된 조명은 창호를 통해 투과된 빛으로 한옥의 은은함을 더해준다. 색온도는 cool color를 주로 사용하여 활동적인 공간을 연출하면서 재료에 직접 비춰지는 조명은 warm color를 이용하여 재료의 물성을 살리는 공간 연출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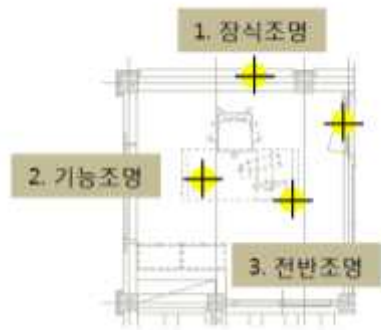


분 류		조명1	조명2	조명3
조명 방식	간 접 조 명		0	
	반간접조명			0
	직 접 조 명	0		
공간연출방법	구 조 강 조			0
	문 양 강 조		0	
	재 료 강 조			
	그림자효과			
	색 채 강 조			
조명기기	조명기기유형	천 정 등	0	
		벽 부 등	0	
		웬 던 트		
		스 텐 드		
		기 타		0
	빛의 종류	분 산	0	0
		s p o t		0
	빛의 방향	상 향		
		하 향	0	0
		수 평	0	
	광원의 종류	형 광 등	0	0
		백 열 등		
		할 로 겐		
		L E D		

(다) 사랑방

사랑방은 바깥주인이 거쳐하며 손님을 접대하는 공간으로 다소 기능적인 업무가 수행되는 곳으로 전반조명으로 직접조명을 설치하여 일의 효율을 높인다. 기능 조명으로 한 스타일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여 공간 연출을 한다. 사랑방의 창호에 설치된 조명은 창살의 패턴을 드러내 공간의 한국성을 더해준다. 색온도는 warm color를 주로 사용하여 한옥의 재료와 잘 어울리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기능성 스탠드 조명은 cool color를 이용하여 시야를 극대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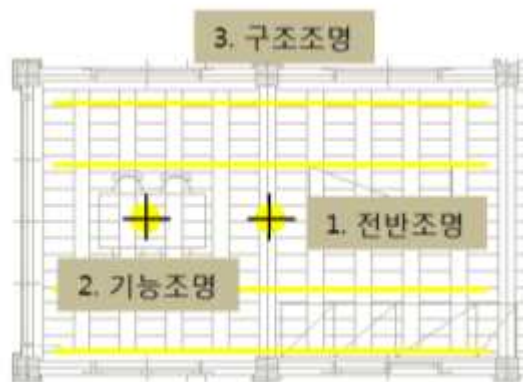


분 류		조명1	조명2	조명3
조명 방식	간 접 조 명	0		0
	반간접조명			
	직 접 조 명		0	
공간연출방법	구 조 강 조			
	문 양 강 조	0		
	재 료 강 조			
	그림자효과		0	
	색 채 강 조			0
조명기기	조명기기유형	천 정 등		0
		벽 부 등	0	
		펜 던 트		
		스 텐 드	0	
		기 타		
	빛의 종류	분 산	0	0
		s p o t	0	
	빛의 방향	상 향		
		하 향	0	0
		수 평	0	
	광원의 종류	형 광 등	0	0
		백 열 등		
		할 로 겐		
		L E D		

(라) 주방

주방은 음식을 만들거나 차리는 방으로, 그 공간에서의 행위의 효율이나 분위기를 결정하는데에 조명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방 역시 천장의 보를 노출시켜 구조미를 강조할 수 있는 조명을 사용하여 한국적인 멋을 연출할 수 있다. 주방 가구는 주로 현대식 가구를 사용해야 함으로, 천정 구조 노출을 통한 한옥의 미 강조는 중요한 미적 요소가 될 것이다. 요리할 때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반조명으로 직접조명을 이용하고 기능성 국부 조명으로 한스타일 조명기기를 이용하여 음식의 색이 돋보이도록 연출한다. 색온도는 warm color를 주로 사용하여 한옥의 재료와 잘 어울리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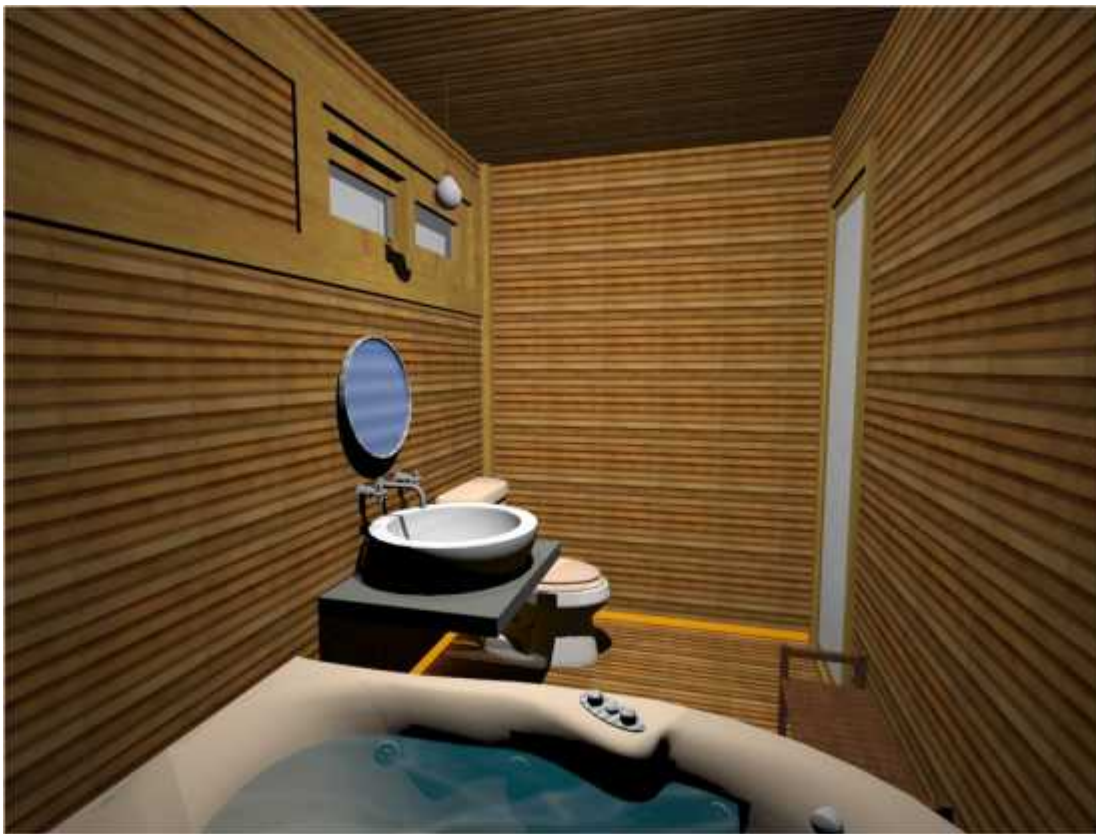




분 류		조명1	조명2	조명3
조명 방식	간 접 조 명			
	반간접조명			0
	직 접 조 명	0	0	
공간연출방법	구 조 강 조			0
	문 양 강 조			
	재 료 강 조	0		
	그림자효과			
	색 채 강 조		0	
조명기기	조명기기유형	천 정 등	0	
		벽 부 등		
		펜 던 트	0	
		스 텐 드		
		기 타		0
	빛의 종류	분 산	0	
		s p o t	0	0
	빛의 방향	상 향		
		하 향	0	0
		수 평		
	광원의 종류	형 광 등	0	0
		백 열 등	0	
		할 로 겐		
		L E D		

(마) 욕실

욕실은 목욕을 할 수 있도록 갖추어진 방인데 과거 한옥에서의 욕실과는 전혀 다르게 현대적인 가구들로 구성이 된다. 한옥의 주 재료인 나무를 욕실 전반에 사용하고 재료의 질감을 살려주는 조명 연출을 통해 한옥의 다른 공간과 동질성 있게 보이도록 한다. 욕실의 전반조명은 현대 욕실공간보다 조금 낮은 조도로 따뜻한 조명을 사용하여 나무 재질과 통일되는 빛 디자인을 한다. 욕실에도 현대 가구들이 필요하지만 그 재료를 한옥의 자연 재료로 사용함으로써 통일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세면대 위에는 기능성 한스타일 조명을 설치하여 효율을 높인다. 공간의 아래쪽에 간접조명을 사용하여 입욕시의 정적이고 온화한 공간 분위기를 더 풍요롭게 연출한다. 색온도는 warm color를 주로 사용하여 재료의 자연성이 강조되도록 한다.





분 류		조명1	조명2	조명3
조명 방식	간 접 조 명			0
	반간접조명			
	직 접 조 명	0	0	
공간연출방법	구 조 강 조			
	문 양 강 조			
	재 료 강 조	0		
	그림자효과			
	색 채 강 조			0
조명기기	조명기기유형	천 정 등	0	
		벽 부 등		0
		펜 던 트		
		스 텐 드		
		기 타		0
	빛의 종류	분 산	0	0
		s p o t		
	빛의 방향	상 향		0
		하 향	0	0
		수 평		
	광원의 종류	형 광 등	0	0
		백 열 등		
		할 로 겐		
		L E D		

- 한중일 실내디자인의 스타일

(1) 거실 및 누마루



왼쪽 한국
위 중국
아래 일본

한중일은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개성이 뚜렷하다. 이것은 실내 디자인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앞서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좌식문화와 다르게 입식의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전반적인 실내디자인 스타일은 간결하면서도 여백의미를 살렸다. 반면에 중국은 궁중건축에 기반을 둔 화려하고 다양한 디자인을 많이 볼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스타일의 디자인을 보이지만 조금 더 강한 색을 사용한다. 한국은 백의민족답게 흰색과 자연스러운 중성색을 많이 쓰고, 전통문양의 벽지나 창호로 포인트를 준다. 중국은 강렬한 원색과 문양을 많이 사용하여 화려하고 꽉 채워진 대칭적 공간을 추구한다. 일본은 다다미바닥을 설치하는데 장판지바닥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과 같이 다다미바닥은 일본의 전통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요소이다. 또한 일본은 영구적인 벽을 대신 칸막이로 공간을 구분시키는 유기적인 공간을 많이 사용한다.

서재 및 공부방



왼쪽 한국
오른쪽 중국

(2) 안방



위 한국
왼쪽 중국
오른쪽 일본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 한국, 일본과는 조금 다른 해석이다. 우리나라가 목재로 서까래를 보여준다면 중국은 콘크리트로 서까래를 보여주고 다양한 색의 페인트 마감을 하여 서까래를 최대한 화려하게 보여준다. 이것은 중국만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다. 서양의 캐노피 침대와 카펫을 추구하고 동양의 창호문양과 서까래를 추구한다. 중국은 서양과 동양이 혼합된 실내디자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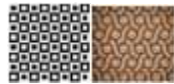
(3) 부엌



위 한국
왼쪽 일본
오른쪽 중국

다. 연구개발결과

거실		전통적인 스타일 ALT1.			
		C O L O R			
			M A T E R I A L S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천장	메인 천장	ZN031-2	회벽꽃	LG하우시스 Z-IN	
	바깥 창호	GAGREW01	유러피언 월넛	LG하우시스 Z-IN	
창호	안쪽 창호	GAGRST01	소프트 치크	LG하우시스 Z-IN	
	포인트 바닥	FORTE-S704	오크 오리진	LG하우시스 Z-IN	
바닥	메인 바닥	M014	크레테	LG하우시스 Z-IN	
	벽체	ZN028-2	칩스톤	LG하우시스 Z-IN	

거실		전통적인 스타일 ALT2.			
		C O L O R			
			M A T E R I A L S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천장	메인 천장	ZN031-2	회벽꽃	LG하우시스 Z-IN	
	바깥 창호	GAGREW01	유러피언 월넛	LG하우시스 Z-IN	
창호	안쪽 창호	GAGRST01	소프트 치크	LG하우시스 Z-IN	
	포인트 바닥	FORTE-S704	오크 오리진	LG하우시스 Z-IN	
바닥	메인 바닥	M014	크레테	LG하우시스 Z-IN	
	벽체	ZN028-2	칩스톤	LG하우시스 Z-IN	

주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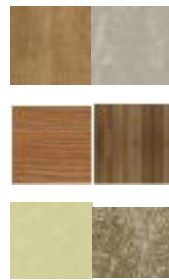
전통적인 스타일 ALT1.



COLOR



MATERIALS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천장	메인 천장	ZN031-2	회벽꽃	LG하우시스 Z-IN
창호	메인 창호	GAGREW01	유러피언 월넛	LG하우시스 Z-IN
	장식 창호	PLAP 707 A0	샤펠레	LG하우시스 Z-IN
가구	의자	MTD2007	마론 엠페라도 라이트	LG하우시스 Z-IN
	싱크대	-	WOOD	한옥 기술 개발
바닥	바닥	-	WOOD	한옥 기술 개발

주방

전통적인 스타일 ALT2.



COLOR



MATERIALS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천장	메인 천장	ZN031-2	회벽꽃	LG하우시스 Z-IN
창호	메인 창호	GAGREW01	유러피언 월넛	LG하우시스 Z-IN
	장식 창호	PLAP 707 A0	샤펠레	LG하우시스 Z-IN
가구	의자	-	METAL	한옥 기술 개발
	싱크대	P509	아프로 모시아	LG하우시스 Z-IN
바닥	바닥	-	WOOD	한옥 기술 개발

누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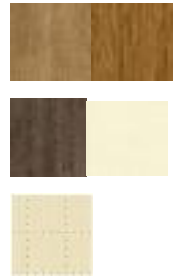
전통적인 스타일 ALT1.



COLOR



MATERIALS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천장	메인 천장	PLAP 710 A0	오토 그레이	LG하우시스 Z-IN
벽	벽지	-	벽지	한옥 기술 개발
창호	창호	PLAP 708 A0	티크	LG하우시스 Z-IN
바닥	포인트 바닥	-	WOOD	한옥 기술 개발
	메인 바닥	FORTE-S704	오크 오리진	LG하우시스 Z-IN

누마루

전통적인 스타일 ALT2.



COLOR



MATERIALS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천장	메인 천장	PLAP 710 A0	오토 그레이	LG하우시스 Z-IN
벽	벽지	-	벽지	한옥 기술 개발
창호	창호	GAGREW 01	유러피안 월넛	LG하우시스 Z-IN
바닥	포인트 바닥	PLAP 708 A0	WOOD	한옥 기술 개발
	메인 바닥	FORTE-S704	티크	LG하우시스 Z-IN

사랑방

전통적인 스타일 ALT1.



COLOR



MATERIALS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바닥	메인 바닥	-	WOOD	한옥 기술 개발
벽지	벽지	-	한지	한옥 기술 개발
천장	천장	예루살렘 골드	예루살렘 골드	LG하우시스 Z-IN
창호	창호	PLAP 707-A0	샤펠레	LG하우시스 Z-IN
가구	테이블	FORTE-S708	자토바 노바	LG하우시스 Z-IN

사랑방

전통적인 스타일 ALT2.



COLOR



MATERIALS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바닥	메인 바닥	-	WOOD	한옥 기술 개발
벽지	벽지	-	벽지	한옥 기술 개발
천장	천장	예루살렘 골드	예루살렘 골드	LG하우시스 Z-IN
창호	창호	-	WOOD	한옥 기술 개발

안방

전통적인 스타일 ALT1.



COLOR



MATERIALS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가구	장식품	XTPC108	C108	LG하우시스 Z-IN
창호	창호	GAGREW01	유러피언 월넛	LG하우시스 Z-IN
벽지	벽지	-	PATTERN	한옥 기술 개발
바닥	메인 바닥	MTD2018	아이언 그레이	LG하우시스 Z-IN
	포인트 바닥	M014	크레테	LG하우시스 Z-IN
천장	벽체	ZN033-3	핸디코트	LG하우시스 Z-IN

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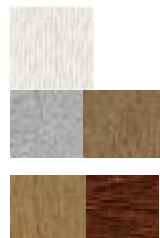
전통적인 스타일 ALT2.



COLOR



MATERIALS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바닥	메인 바닥	PLAP 705-A0	월넛	LG하우시스 Z-IN
창호	창호	FORTE-S704	오크 오리진	LG하우시스 Z-IN
벽지	메인 벽지	-	물결	한옥 기술 개발
가구	침대, 장식품	PLAP 705-A0	월넛	LG하우시스 Z-IN
	장식품	-	WOOD	한옥 기술 개발
천장	천장	ZN033-3	핸디코트	LG하우시스 Z-IN

거실

현대적인 스타일 ALT1.



COLOR



MATERIALS



Material Spec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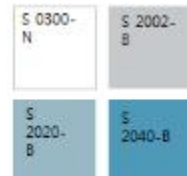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천장	메인 천장	TW101	천연 100% Clay+ herb	토로라이프
벽	벽체	7011-3	[실크NB] 빈티지그레이	Z:in
	창틀	PVC	White	한옥기술개발
	포인트벽지	IAQ011-02	[공기를 살리는 숨타일] Natural Stone	Z:in
바닥	메인 바닥	HM50751-11	[휴앤미] Wedding Singer-웨딩싱어	Z:in

거실

현대적인 스타일 ALT2.



COLOR



MATERIALS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천장	메인 천장	TW101	천연 100% Clay+ herb	토로라이프
벽	벽체	E8590-2	[공기를 살리는 벽지] 와이드	Z:in
	창틀	metal	silver	한옥기술개발
	포인트벽지	ZN022-2	[지니아(ZINNIA)] 트위드서클	Z:in
바닥	메인 바닥	GMG0401AP	KCC 숲 강마루 노르딕오크	KCC

주방		현대적인 스타일 ALT2		
		C O L O R		
			M A T E R I A L S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천장	메인 천장	TW101	천연 100% Clay+ herb	토로라이프
벽	벽체	EL177	[엘레이나] 솔리드콘크리트(블루)	Z:in
	창틀	metal	silver	한옥기술개발
바닥	메인 바닥	유고화이트	[마블] 유고화이트	Z:in

주방		현대적인 스타일 ALT2		
		C O L O R		
			M A T E R I A L S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천장	메인 천장	TW101	천연 100% Clay+ herb	토로라이프
벽	벽체	ZN033-1	[지니아(ZINNIA)] 핸디코트	Z:in
	창틀	metal	silver	한옥기술개발
바닥	메인 바닥	UN01	하이드	한화L&C

사랑방

현대적인 스타일 ALT1



COLOR



MATERIALS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천장	메인 천장	TW101	천연 100% Clay+ herb	토로라이프
벽	벽체	ZN024-1	[지니아(ZINNIA)] 새틴도트	Z:in
	창틀	PVC	White	한옥기술개발
바닥	메인 바닥	SL11171-11	[자연애1.8] Oak(Washed	Z:in

사랑방

현대적인 스타일 ALT2



COLOR



MATERIALS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천장	메인 천장	TW101	천연 100% Clay+ herb	토로라이프
벽	벽체	E85236-1	[공기를 살리는 벽지] 크랙회벽	Z:in
	창틀	metal	silver	한옥기술개발
바닥	메인 바닥		[휴앤미] Ivory Cream-아이보리 크림	Z:in

누마루

현대적인 스타일 ALT1



COLOR



MATERIALS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천장	메인 천장	TW101	천연 100% Clay+ herb	토로라이프
벽	벽체	E85226-1	[공기를 살리는 벽지] 글리터링 질석 II	Z:in
	창틀	PVC	White	한옥기술개발
	포인트벽지	E85228-2	[공기를 살리는 벽지] 잉글리쉬가든	Z:in
바닥	메인 바닥		[프레스티지] 워시 오크	Z:in

누마루

현대적인 스타일 ALT2



COLOR



MATERIALS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천장	메인 천장	TW101	천연 100% Clay+ herb	토로라이프
벽	벽체	ZN004-6	[[지니아(ZINNIA)] 효재 삼베	Z:in
	창틀	metal	silver	한옥기술개발
	포인트벽지	ZN039-1	지니아(ZINNIA) 빈티지브릭	Z:in
바닥	메인 바닥	MTD2002	[마블] 비얀코카라라	Z:in

안방		현대적인 스타일 ALT1		
		C O L O R		
			M A T E R I A L S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천장	메인 천장	TW101	천연 100% Clay+ herb	토로라이프
벽	벽체	E85226-1	[공기를 살리는 벽지] 클리터링 질석 II	Z:in
	창틀	PVC	White	한옥기술개발
바닥	메인 바닥	FORTE-S70	[소폭] 에션셜오크	Z: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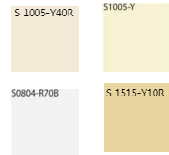
안방		현대적인 스타일 ALT1		
		C O L O R		
			M A T E R I A L S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천장	메인 천장	TW101	천연 100% Clay+ herb	토로라이프
벽	벽체	ZN022-2	[지니아(ZINNIA)] 트위드서클	Z:in
	창틀	metal	silver	한옥기술개발
	포인트벽지	흑경	그래픽마감	한옥기술개발
바닥	메인 바닥	7471	골드타일 사각스톤	한화L&C

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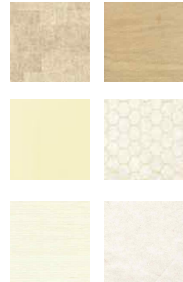
은은한 스타일 ALT1.



COLOR



MATERIALS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천장	메인 천장	-	닥운용 한지/white	온고을
벽	벽체1	ZEA005-2	[지아벽지]코튼 아이보리	Z:in
	벽체2	ZEA009-1	[지아벽지]오리엔탈	Z:in
	창틀	WF-01	[oak natural]티피코	좋은집 좋은나무
	포인트벽지	-	코튼벽지 귀갑살 패턴	한옥기술개발
바닥	메인 바닥	VS-01	5120	한화 L&C

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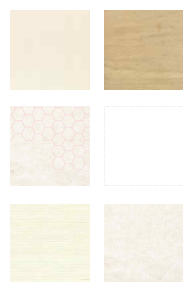
은은한 스타일 ALT2.



COLOR



MATERIALS



Material Spec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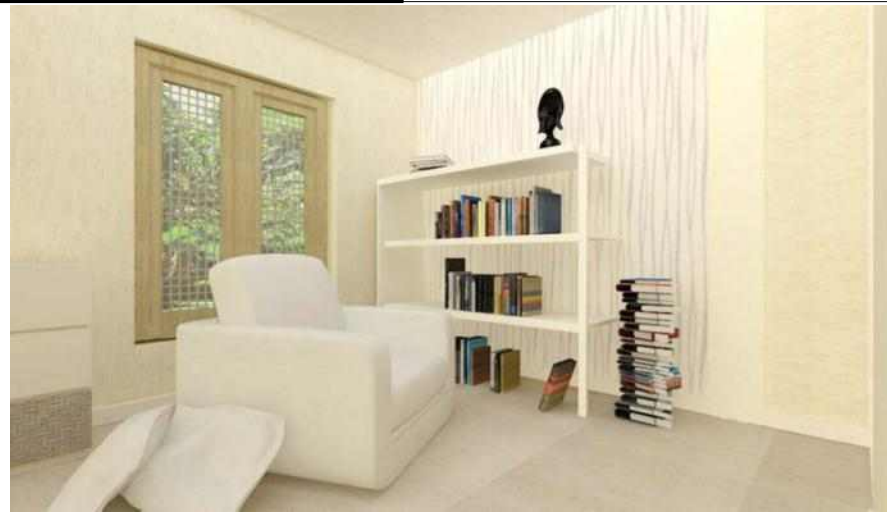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천장	메인 천장	-	닥운용 한지/white	온고을
벽	벽체	ZEA005-1	[지아벽지]코튼 핑크	Z:in
	창틀	WF-02	화이트 오크 공학널	좋은집 좋은나무
	포인트벽지	-	코튼벽지 귀갑살 패턴	한옥기술개발
바닥	메인 바닥	G101	[크리스탈베이지] 인조대리석	Z:in

주방		은은한 스타일 ALT1.			
		C O L O R	S1005-Y400C S1005-Y S0804-R70B S1513-Y100K		
			M A T E R I A L S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천장	메인 천장	-		닥운용 한지/white	온고을
벽	벽체1	ZEA005-2	[지아벽지]코튼 아이보리	Z:in	
	벽체2	ZEA009-1	[지아벽지]오리엔탈	Z:in	
	창틀	WF-01	[oak natural]티피코	좋은집 좋은나무	
	포인트벽지	SJPA 0043T2	Porcelain Tile	대동산업	
바닥	메인 바닥	MTD1002	[마블] 쥬매브라운	Z:in	

주방		은은한 스타일 ALT2.		
		C O L O R	S1002-Y50R S103C-R30B S1010-R20B S0804-R70B	
			M A T E R I A L S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천장	메인 천장	-	닥운용 한지/white	온고을
벽	벽체	ZEA005-1	[지아벽지]코튼 핑크	Z:in
	창틀	WF-02	화이트 오크 공학널	좋은집 좋은나무
	포인트벽지	DW6121	Wall Tile(Pink)	대동산업
바닥	메인 바닥	CM-01	폴리싱 마블	Z:in

사랑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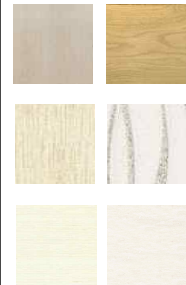
은은한 스타일 ALT1.



COLOR



MATERIALS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천장	메인 천장	-	탁운용 한지/white	온고을
벽	벽체1	3280-2	[에코] 브러쉬 아이보리	did 벽지
	벽체2	ZEA009-1	[지아벽지]오리엔탈	Z:in
	창틀	WF-01	[oak natural]티피코	좋은집 좋은나무
	포인트벽지	E85162-1	[공기를 살리는 벽지] 블링블링	Z:in
바닥	메인 바닥	SK50091-11	[실크앤티치] 볼레로	Z:in

사랑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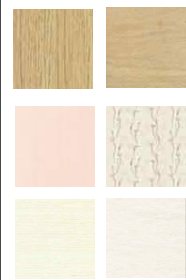
은은한 스타일 ALT2.



CO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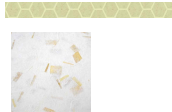


MATERIALS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천장	메인 천장	-	탁운용 한지/white	온고을
벽	벽체	ZEA005-1	[지아벽지]코튼 핑크	Z:in
	창틀	WF-02	화이트 오크 공학널	좋은집 좋은나무
	포인트벽지	85230-2	[공기를 살리는 벽지] 카라	Z:in
바닥	메인 바닥	GAGRAS01	[강마루] 애쉬	Z:in

누마루		은은한 스타일 ALT1.		
		C O L O R	 S1515-V10R	 S1002-Y50R
			 S1002-Y	 S0804-R70B
		M A T E R I A L S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천장	메인 천장	-	닥운용 한지/white	온고을
벽	벽체1	-	닥운용 한지/white	온고을
	벽체2	-	한지벽지 귀갑살 패턴	한옥기술개발
	창틀	WF-01	[oak natural]티피코	좋은집 좋은나무
	포인트벽지	E85162-1	옥수수잎 한지	온고을
바닥	메인 바닥	GAGRAS01	[강마루] 애쉬	Z:in

누마루		은은한 스타일 ALT2.		
		C O L O R	S1002-Y50R S0804-R70B S1010-R20B	
			M A T E R I A L S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천장	메인 천장	-	닥운용 한지/white	온고을
벽	벽체	ZEA005-1	[지아벽지]코튼 핑크	Z:in
	창틀	WF-02	화이트 오크 공학널	좋은집 좋은나무
	포인트벽지	-	한지벽지 귀갑살 패턴	한옥기술개발
	포인트벽지	49292-2	[휘앙세] 베이비 허브	Z:in
바닥	메인 바닥	5012	샤모니 오크 White	한화 L&C

안방		은은한 스타일 ALT1.		
		C O L O R	 S1002-Y50R	 S 1005-Y
			 S0804-R70B	 S 1115-Y10R
		M A T E R I A L S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천장	메인 천장	-	닥운용 한지/white	온고을
벽	벽체	ZEAO09-1	[지아벽지]오리엔탈	Z:in
	창틀	WF-01	[oak natural]티피코	좋은집 좋은나무
	포인트벽지	E85233-1	[공기를 살리는 벽지]행운목	Z:in
	포인트벽지	-	코튼벽지 귀갑살 패턴	한옥기술개발
바닥	메인 바닥	BSJ7621-11	[소리잠 방] 마블	Z:in

안방

은은한 스타일 ALT2.



COLOR

S2005-Y40R

S1002-Y50R

S1010-R20B

S0804-R70B

MATERIALS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천장	메인 천장	-	닥운용 한지/white	온고을
벽	벽체	K405-7	[아이비리그]페인팅	Z:in
	창틀	WF-02	화이트 오크 공학널	좋은집 좋은나무
	포인트벽지	82303-2	[실크NB]리틀블로섬	Z:in
바닥	메인 바닥	NL90692-11	[네이처라이프] 워시오크	Z:in

거실

담백한 스타일 ALT1.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천장	메인 천장	WC- 02 (Alt-5)	수제벽지 (POINT) G3759 W: 91cm x L: 11cm Price_ 52,000 /PY	여명벽지
벽	벽체	WC- 02 (Alt-5)	수제벽지 (POINT) G3759 W: 91cm x L: 11cm Price_ 52,000 /PY	여명벽지
	창틀	metal	PVC 시스템 창호 위 시트지 마감	한옥기술개발
	기둥, 인방	WF-13	센트라 프라임 강마루_H9022_Oak Brown 84x800x7.5/mm	한화 마루
바닥	메인 바닥	WF-13	센트라 프라임 강마루_H9022_Oak Brown 84x800x7.5/mm	한화 마루

거실

담백한 스타일 ALT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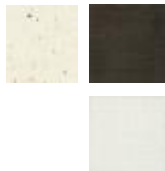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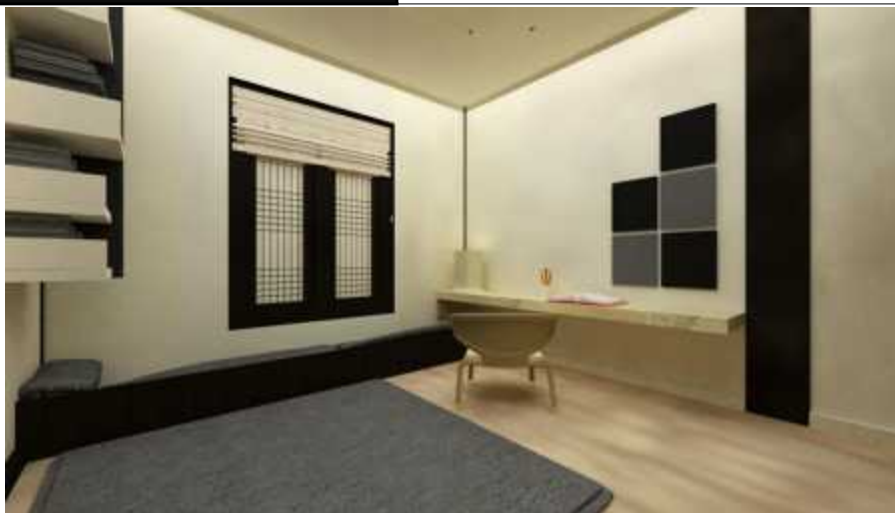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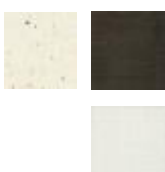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천장	메인 천장	WC- 02 (Alt-5)	수제벽지 (POINT) G3759 W: 91cm x L: 11cm Price_ 52,000 /PY	여명벽지
벽	벽체	WC- 02 (Alt-5)	수제벽지 (POINT) G3759 W: 91cm x L: 11cm Price_ 52,000 /PY	여명벽지
	창틀	metal	PVC 시스템 창호 위 시트지 마감	한옥기술개발
	기둥, 인방	WF-13	센트라 프라임 강마루_H9022_Oak Brown 84x800x7.5/mm	한화 마루
바닥	메인 바닥	TL-24	Geo Nuvola 100*100/mm	코토 세라믹 ☎ 02-3443-8600

부엌		담백한 스타일 ALT1.		
		C O L O R	 	
			 	
		M A T E R I A L S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천장	메인 천장	WC- 02 (Alt-5)	수제벽지 (POINT) G3759 W: 91cm x L: 11cm Price_ 52,000 /PY	여명벽지
벽	벽체	WC- 02 (Alt-5)	수제벽지 (POINT) G3759 W: 91cm x L: 11cm Price_ 52,000 /PY	여명벽지
	창틀	metal	PVC 시스템 창호 위 시트지 마감	한옥기술개발
	기둥, 인방	WF-13	센트라 프라임 강마루_H9022_Oak Brown 84x800x7.5/mm	한화 마루
바닥	메인 바닥	WF-13	센트라 프라임 강마루_H9022_Oak Brown 84x800x7.5/mm	한화 마루

부엌		담백한 스타일 ALT2.		
		C O L O R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천장	메인 천장	WC- 11	Organza45243 @910mm Manufacturer: Bn International	DSI 수입벽지 ☎ 02-575-4741
벽	벽체	WC- 11	Organza45243 @910mm Manufacturer: Bn International	DSI 수입벽지 ☎ 02-575-4741
	창틀	metal	PVC 시스템 창호 위 시트지 마감	한옥기술개발
	기둥, 인방	WF-13	센트라 프라임 강마루_H9022_Oak Brown 84x800x7.5/mm	한화 마루 ☎ 02-729-2529
바닥	메인 바닥	WC- 11	Organza45243 @910mm Manufacturer: Bn International	DSI 수입벽지 ☎ 02-575-4741

사랑방		담백한 스타일 ALT2.		
		COL OR		
		MAT ERIALS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천장	메인 천장	WC- 02 (Alt-5)	수제벽지 (POINT) G3759 W: 91cm x L: 11cm Price_ 52,000 /PY	여명벽지
벽	벽체	WC- 02 (Alt-5)	수제벽지 (POINT) G3759 W: 91cm x L: 11cm Price_ 52,000 /PY	여명벽지
	창틀	metal	PVC 시스템 창호 위 시트지 마감	한옥기술개발
	기둥, 인방	WF-13	센트라 프라임 강마루_H9022_Oak Brown 84x800x7.5/mm	한화 마루
바닥	메인 바닥	WF-13	센트라 프라임 강마루_H9022_Oak Brown 84x800x7.5/mm	한화 마루

사랑방		담백한 스타일 ALT2.		
		COLOR		
		MATERIALS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천장	메인 천장	WC- 11	Organza45243 @910mm Manufacturer: Bn International	DSI 수입벽지 ☎ 02-575-4741
벽	벽체	WC- 11	Organza45243 @910mm Manufacturer: Bn International	DSI 수입벽지 ☎ 02-575-4741
	창틀	metal	PVC 시스템 창호 위 시트지 마감	한옥기술개발
	기둥, 인방	WF-13	센트라 프라임 강마루_H9022_Oak Brown 84x800x7.5/mm	한화 마루 ☎ 02-729-2529
바닥	메인 바닥	WC- 11	Organza45243 @910mm Manufacturer: Bn International	DSI 수입벽지 ☎ 02-575-4741

누마루		담백한 스타일 ALT1.		
		COLOR		
		MATERIALS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천장	메인 천장	WC- 02 (Alt-5)	수제벽지 (POINT) G3759 W: 91cm x L: 11cm Price_ 52,000 /PY	여명벽지
벽	벽체	WC- 02 (Alt-5)	수제벽지 (POINT) G3759 W: 91cm x L: 11cm Price_ 52,000 /PY	여명벽지
	창틀	metal	PVC 시스템 창호 위 시트지 마감	한옥기술개발
	기둥, 인방	WF-13	센트라 프라임 강마루_H9022_Oak Brown 84x800x7.5/mm	한화 마루 ☎ 02-729-2529
바닥	메인 바닥	WF-13	센트라 프라임 강마루_H9022_Oak Brown 84x800x7.5/mm	한화 마루 ☎ 02-729-2529

누마루		담백한 스타일 ALT2.		
		C O L O R		
			M A T E R I A L S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천장	메인 천장	WC- 11	Organza45243 @910mm Manufacturer: Bn International	DSI 수입벽지 ☎ 02-575-4741
벽	벽체	WC- 11	Organza45243 @910mm Manufacturer: Bn International	DSI 수입벽지 ☎ 02-575-4741
	창틀	metal	PVC 시스템 창호 위 시트지 마감	한옥기술개발
	기둥, 인방	WF-13	센트라 프라임 강마루_H9022_Oak Brown 84x800x7.5/mm	한화 마루 ☎ 02-729-2529
바닥	메인 바닥	TL-24	Geo Nuvola 100*100/mm	코토 세라믹 ☎ 02-3443-8600

안방

담백한 스타일 ALT1.

	COLOR			
	MATERIALS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천장	메인 천장	WC- 02 (Alt-5)	수제벽지 (POINT) G3759 W: 91cm x L: 11cm Price_ 52,000 /PY	여명벽지
벽	벽체	WC- 02 (Alt-5)	수제벽지 (POINT) G3759 W: 91cm x L: 11cm Price_ 52,000 /PY	여명벽지
	창틀	metal	PVC 시스템 창호 위 시트지 마감	한옥기술개발
	포인트벽지	WC-02	Z:IN M518-1 매화도 3000mm*2.4m/폭 (3폭이 한 그림)	LG 하우스시스 ☎ 02-3773-3641
바닥	메인 바닥	WF-13	센트라 프라임 강마루_H9022_Oak Brown 84x800x7.5/mm	한화 마루 ☎ 02-729-2529

안방

담백한 스타일 ALT2.

	COLOR			
	MATERIALS			
Material Specification				
Location		Material Code	Spec.	Supplier
천장	메인 천장	WC- 11	Organza45243 @910mm Manufacturer: Bn International	DSI 수입벽지 ☎ 02-575-4741
벽	벽체	WC- 11	Organza45243 @910mm Manufacturer: Bn International	DSI 수입벽지 ☎ 02-575-4741
	창틀	metal	PVC 시스템 창호 위 시트지 마감	한옥기술개발
	기둥, 인방	WF-13	센트라 프라임 강마루_H9022_Oak Brown 84x800x7.5/mm	한화 마루 ☎ 02-729-2529
바닥	메인 바닥	VS=01	5120 1830mm*25m*3mm	한화 L&C ☎ 02-729-2529